

建築士



KIRA | vol. 413 | 2003



WIC

본 협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합시다



본 협회 홈페이지는 회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寶庫)입니다.

본 협회는 열린 협회, 참여하는 협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협회의 운영상황과 회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ول라 회원 여러분께서는 협회발전을 위한 제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활용 방법

우리 협회 홈페이지는 일반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회원, 비회원, 건설기술자, 일반방문자 등으로 차별화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원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Web 회원으로 기입한 후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회원의 경우에 한하여 Web mail을 비롯한 회원전용게시판, 회관건립토론회, 회장과의 대화, 설문조사, 실적관리프로그램, 계획설계신고함사다 등의 모든 메뉴의 활용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의 습득은 물론, 협회의 활동에 대한 의견개진 등 협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web 회원가입

회원가입

- 정회원 및 건설기술자 : 좌측 상단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 선택 →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비회원 : 본 협회에 비회원신고서 제출 후 → ID 발급 → 사용

로그인

- 좌측 상단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후 확인

2. 메뉴의 활용

▷ 상단메뉴

협회안내 협회의 전반적인 소개 및 업무 안내

- 협회의 조직, 설립목적, 협회소식, 초대글(인사말), 협회연혁, 정관, 주요사업 및 활동, 협회 조직도, 대의원 명단, 찾아오시는길, 건축사업무내용, 홈페이지 배너광고안내 및 월간건축사 광고안내로 구성되어 있음.

협회업무	협회관련 업무별 공지사항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소식, 전체자료실, 예전자료실, 회원관리, 법령정보, 건축사 실적관리, 경력관리, 건축사시험, 건축문화대상, 월간건축사, UIA/ARCASIA, Reg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기타협회업무 및 관련사이트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법령정보	건축관련 법규, 세법령 소식 및 각종 법령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법령새소식 : 법령의 제·개정, 입법예고 등 법령에 대한 최근소식 게재 일반자료실 : 회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자료 게재 기준 및 고시 : 건축법, 건축사법 등과 관련된 각종 기준 및 고시내용 게재 서식자료실 : 건축법, 건축사법 등과 관련된 각종 서식을 한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음. 현행 법령 : 법제처 법령검색페이지에 링크하여 현행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 자치법규 :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페이지를 링크하여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음. 질의화신사례 : 각종 법령과 관련된 질의화신 사례 수록
입찰정보	설계·감리용역 및 현상설계 등 입찰관련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목록, 설계용역, 현상설계, 감리용역, 감리자모집 및 기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업무	협회 정회원관련 안내 및 공지사항, 정회원 검색, 회원신고 관련 서식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검색, 회원전용 게시판, 회원가입안내, 공지사항, FAQ 및 자료실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건축사업무실적	건축사법 제1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사업무실적관리를 위한 안내 자료실, FAQ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사업무실적을 신고하거나 실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함.
건설기술자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한 페이지로 경력관리 조회, 경력관리제도안내, 교육훈련 안내,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안내, 공지사항, FAQ,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음.
민원상담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민원을 온라인 상담하고 있으며, 메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실명인증을 받아야 함. •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업무별(회원관리, 법령정보,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사실적관리, 건설기술자경력관리, 건축사시험, 건축문화대상, 기타협회업무)로 구분되어 있음.
회장실	회장의 약력, 동정, 회장과의 대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과의 대화를 이용하려면 정회원으로써 로그인을 해야 하며, 회장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음.
Webmail	정회원을 위한 웹메일서비스로서 로그인 후 사용하여야 함.
FAQ	회원관리, 건축사실적관리, 건설기술자경력관리, 건축사시험 등 회원업무와 관련한 모범 질의 답변 사례를 게재하였음.
ArchiDB	건설자체정보 ArchiDB.com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의 경우 기업회원이 서비스중인 회사/자체정보의 카테고리, 시방서, 디테일, 률성표 등 건축자재정보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구인/구직	회원 또는 회원사에서 직원을 구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등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구인구직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메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실명인증을 받아야 함.
자유게시판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모든 방문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하고 검색할 수 있음.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음.

▷ 좌측 메뉴

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든 활동사항을 공개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 활동, 게시판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회원으로써 로그인 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음.
회관건립토론회	협회 회관건립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설되어 회관건립 전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며, 정회원으로써 로그인을 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음.
계획설계신고합시다	건축주의 무분별한 계획설계 의뢰로 인한 회원들의 불필요한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정회원으로써 로그인을 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음. 계획설계 신고 : 회원이 수주한 계획설계 개요를 등록, 수정, 삭제 및 건축사 본인이 등록한 내용을 검색, 관리할 수 있음. 계획설계 검색 : 회원은 검색어(건축주, 대지위치)로 검색하여 의뢰된 계획설계가 타 건축사가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회원검색	협회 정회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검색(성명, 사무소명)로 검색할 수 있음.
회원전용게시판	본 협회 정회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회원가입안내 및 공지사항, FAQ, 회원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회원으로서 로그인을 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음.
건축사회 LINK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 링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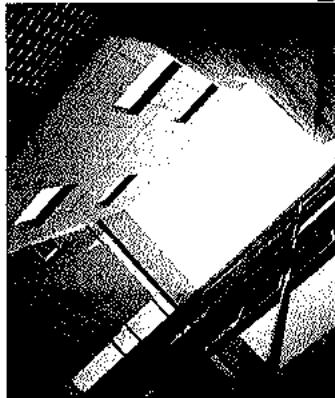
▷ NEWS

협회소식	본회 및 16개 시·도 건축사회 관련 소식 안내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규 및 법령자료 안내
세소식	건축·건설관련 NEWS 소식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9월호. 봉권413호

차례 2003 9 413호



예닮고을 교회(이용우)



34

51

컬럼	하나가 되는 꿈	이현희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 신제조창 이영희·정영균	22	
	시몬느 사옥 안길원	30	
	문래동 에이스 테크노타워 오근석·문호	40	
	공군회관 이종찬	46	
	예닮고을 교회 이용우	56	
작품노트	KT 대전지사 체두병	64	
연재	공간 클립 - 04 이재훈	68	
기고	「선계획-후개발」 정책과 도시·건축행정의 변화 윤혁경	75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79		
	현상설계 86		
	해외잡지동향 102		

발행인: 이세준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민승열, 박영순,
손기찬, 윤상기, 윤시덕, 이상립

취재·편집: 홍보편찬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스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이홍식 팀장)



Column

Dream for Unity	Lee Hyonnie	18
-----------------	-------------	----

Cartoon	Yoo Won-Jai	21
---------	-------------	----

Works

New Manufacturing Center at Youngju, KT&G	Lee Young-Hee & Jeong Young-Gyo	22
---	---------------------------------	----

Simone Head Office	Ahn Kil-Won	30
--------------------	-------------	----

Moonlae ACE Techno Tower Apartment-Type Factory	O Kun-Sok & Moon Ho	40
---	---------------------	----

Air Force Club Turnkey Competition (Prizewinner)	Lee Jong-Chan & Seong Jin-Yong	46
--	--------------------------------	----

The Yedamgoul Baptist Church	Lee Yong-Woo	56
------------------------------	--------------	----

Design note

KT Daejeon Branch Office	Chae Du-Byeong	64
--------------------------	----------------	----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68
-----------------	--------------	----

Feature

Pre-Planning Development Policy and the Changes in Urban Architectural Management	Yoon Hyuk-Kyung	75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79
-----------	----

Competition	86
-------------	----

Overseas Journal	102
------------------	-----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J-art)

하나가 되는 꿈

Dream for Unity

이현희 / 경원대학교 건축, 실내건축학부 부교수

by Lee Hyomie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폐막되었다.

대회 개막 전에는 참가를 당연시하던 북한의 태도가 개막 직전에 돌변하여 참가를 꺼려하자, 한켠에서는 남측을 길들이려는 북한 측의 상투적 솔책이라고 언짢아하였고, 한켠에서는 “이 참에 안 오면 더 좋지” 라며 내심 반기기도 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필자가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되는 꿈(Dream for Unity)”이라는 대회주제였다.

북한의 참가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던 그 때, 남북한 화합의 지속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 측의 불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예측되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북한의 불참으로 예상되는 감소분이 30% 이상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외신들의 대구체류도 축소될 조짐이 보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한민국이 북핵문제와 관련되어 거주하거나 사업하기에 적당치 않은 국가라는 인상이 강조되어 국가이미지에 막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했다. 금액 단위가 놀라웠고, 그런 계산이 신기했다.

대통령의 유감표명 이후, 다행스럽게도 북한 선수단과 그 ‘미인 응원단’, 취주악단이 대구로 입성하였고, 대구시민의 대회준비를 무산시키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적 가치창출도 기대하며, “하나”된 듯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비방과 돌출행동, 얼룩진 기자회견, 상호비방, 문화관광부 장관의 “손님초대론”이 엉키면서 대회 기간은 그럭저럭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폐막을 같이 치렀다. 처음과 마지막은 적어도 하나였다. 형식적으로는.

대회 기간 내내 난 U대회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니 최소한의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 우리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엄청 잘 살려서 번쩍이는 금메달을 몇 개 챙겼는지, 북한의 미인 응원단이 보여준 일사불란한 그들의 응원이 얼마나 웃기는 퍼포먼스였는지 정도가 그저 들려왔다. (적어도 필자가 들었던 공영방송의 저녁뉴스는 그렇게 전했다) 그러더니 대회가 끝날 무렵에는 왜 U대회를 남북한 교류전 정도로 전락시켰느냐, 북한 미녀 응원단 운운하면서 흥미워주로 보느냐, 등등 비난여론이 일었고 또 그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토론”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부(?)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하나”이기를 원했지만 하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갈래가 되었다. “자아비판”을 했다. 그리고 이제

는 아주 익숙하게 능숙한 솜씨로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참으로 별 볼일 없는 민족이고, 참으로 불쌍하고 어처구니없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저 무리들과 같이 있긴 하지만 다르기를 바라며, 내심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까지 한다. 8월 15일의 상반된 기념식(거의 시위라고 생각되었던)을 보면서 그들을 한심해했다. 본질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U대회를 정리하던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일본과의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승리에 도취된 “미녀응원단”이 그 모든 기쁨을 목소리 모아 “장군”에게 상정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어색했다. 우리도 그랬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지금도 간혹 연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과의 남자배구 결승전이었다. 중반까지도 우리 팀은 열세에 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경기에서의 그 찬란한 퍼포먼스 의무에서 비껴나 있던 북한 응원단 수뇌부가 비상회의를 했다. “지도자 동무”가 말했다. “상대가 누구야. 일본이야. 우린 재들을 반드시 이겨야 해” 라며 비장한 다짐을 전했다. 모두들 열성적으로 응원을 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들을 이겼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그때 남한의 남정네는 북한 미녀응원단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표했다. 주변의 남한 주민들도 감격에 겨워했다.

상황을 전달하는 시각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혹시 우리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미명 하에, 표현은 자유롭다는 미명 하에 긍정적 이해보다는 부정적, 비판적 이해를 주로 즐겨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본질을 망각하고 부분에 편중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왜 매스컴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주로 보여주었을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도 많은데 왜 낯설고 어색한 미녀응원단의 퍼포먼스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을까.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서로 반목하고, 어색해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소지를 남겨준 걸까?

“건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 여러 업종, 여러 직종, 여러 단체가 있다. 동일 업종도 또 세분화되어 갖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개인이 한 단체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 각 단체는 상호 유관하며 상호 무관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이다.

건축인으로서 자주 듣고, 자주 하게 되는 말이 “대한민국 건축의 현주소”에 관한 것이다. 예술적 감각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국민을 안타까워하고, 모든 건축사를 예술가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을 슬퍼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정하고 투자해 주지 못하는 사회 상황을 속상해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축”이 별 볼일 없다고 비난이라도 할라치면 그 주범이 아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내심 자신의 “불참”을 안타까워한다. 비난받더라도 차라리 “주범”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최근 건축계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제도의 변화, 자격의 변화, 체제의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대처방법이 다르고, 행동강령도 다르다. 그래서 다시 세분된다. 다른 조직이 생겨났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건축계가 “하나” 되어야 할 때라고. 원래 우리는 “하나”였으니까.

다시 가을이 왔다.

올 가을에도 각 대학의 졸업전시, 각 단체 주관의 행사가 올해도 전개될 것이다. 어느 건축사의 작품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공범”이 되자. 공범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자. 따뜻한 눈으로 청찬할 구석을 찾아보자. 그리고 찾는 데에 성공하면 우리들의 “행각”을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하나” 된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 “하나” 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적어도 “제 살 깎아먹는 것”은 않도록 하자.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해서.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

생각해보니 아주 근사한 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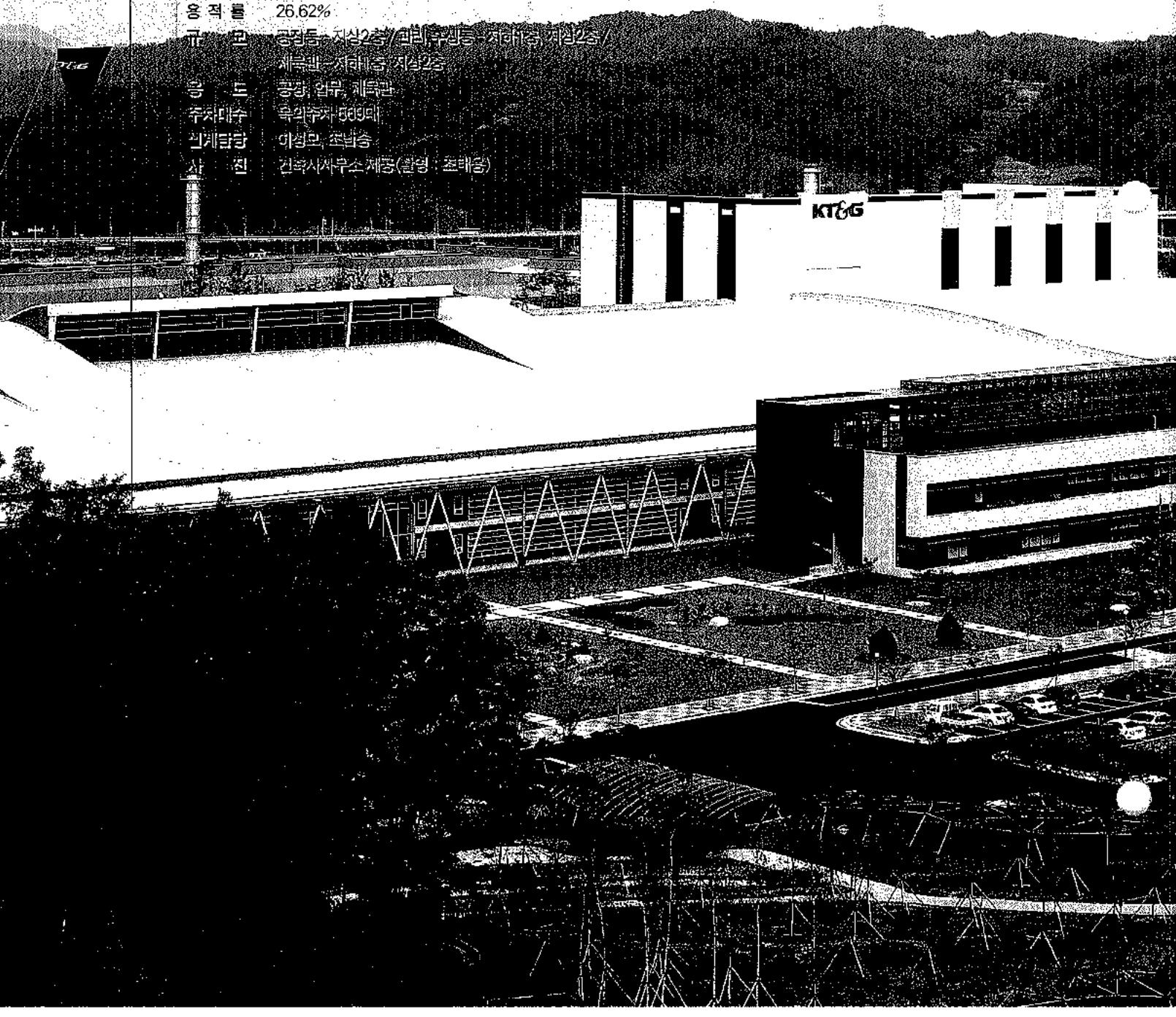
한국담배인삼공사 영주 신제조창

New Manufacturing Center at Youngju, KT&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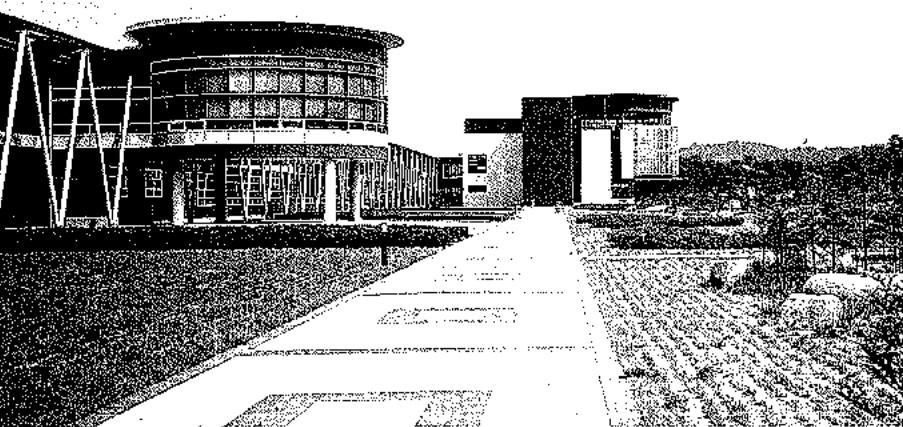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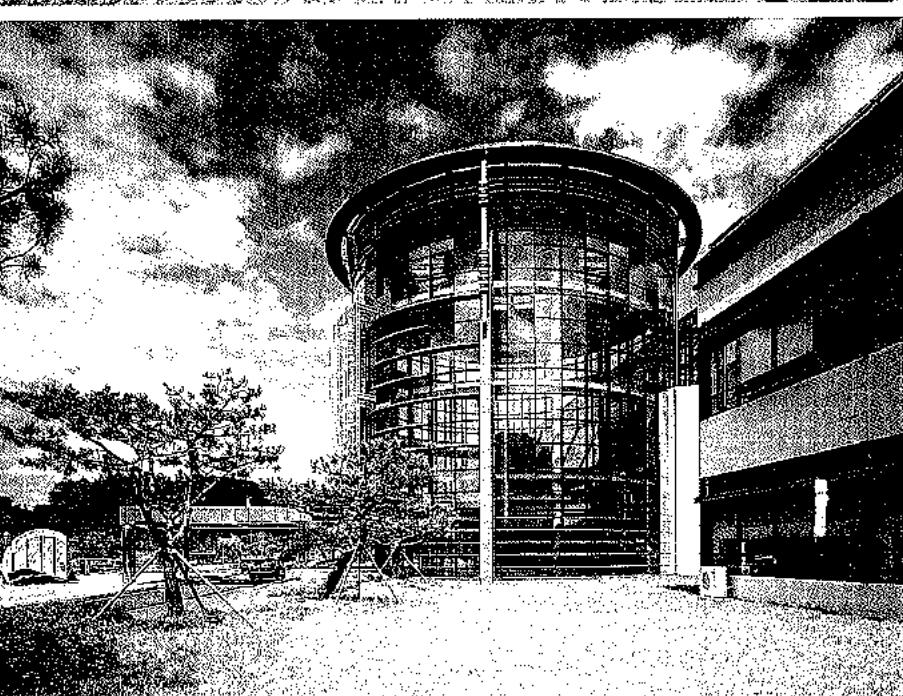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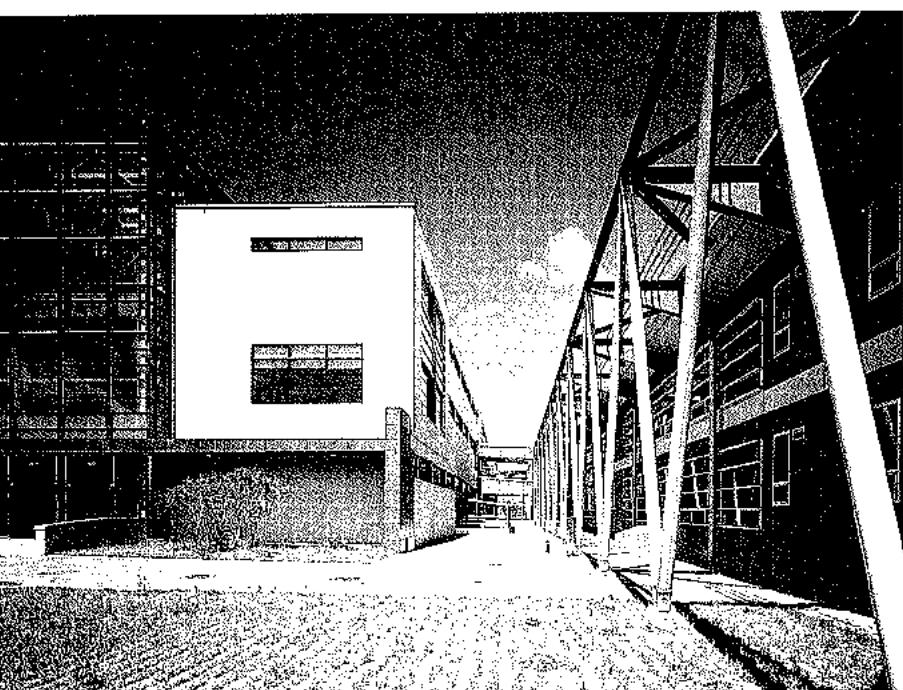
이영희 · 정영균 / (주)회립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Jeong Young-G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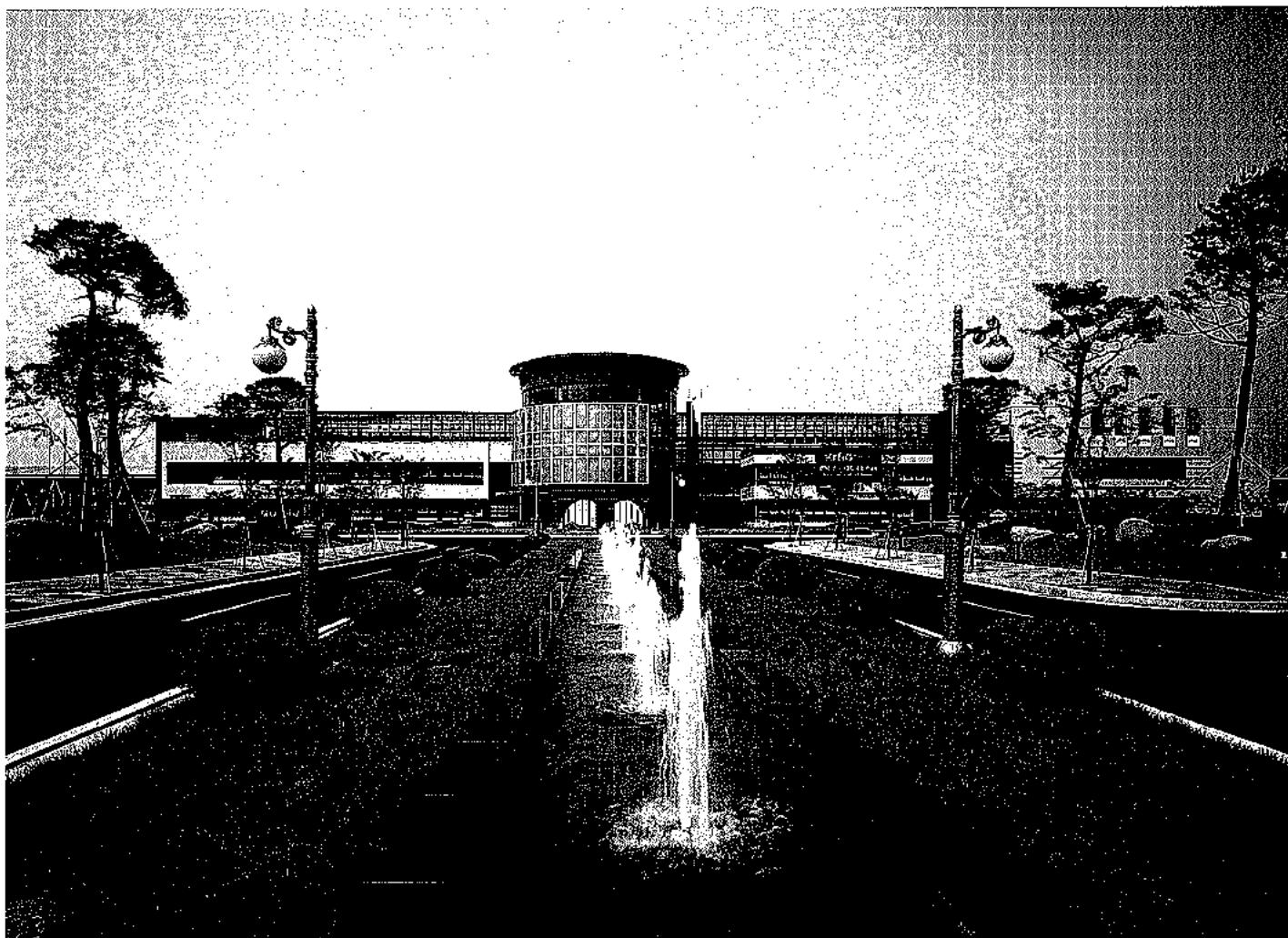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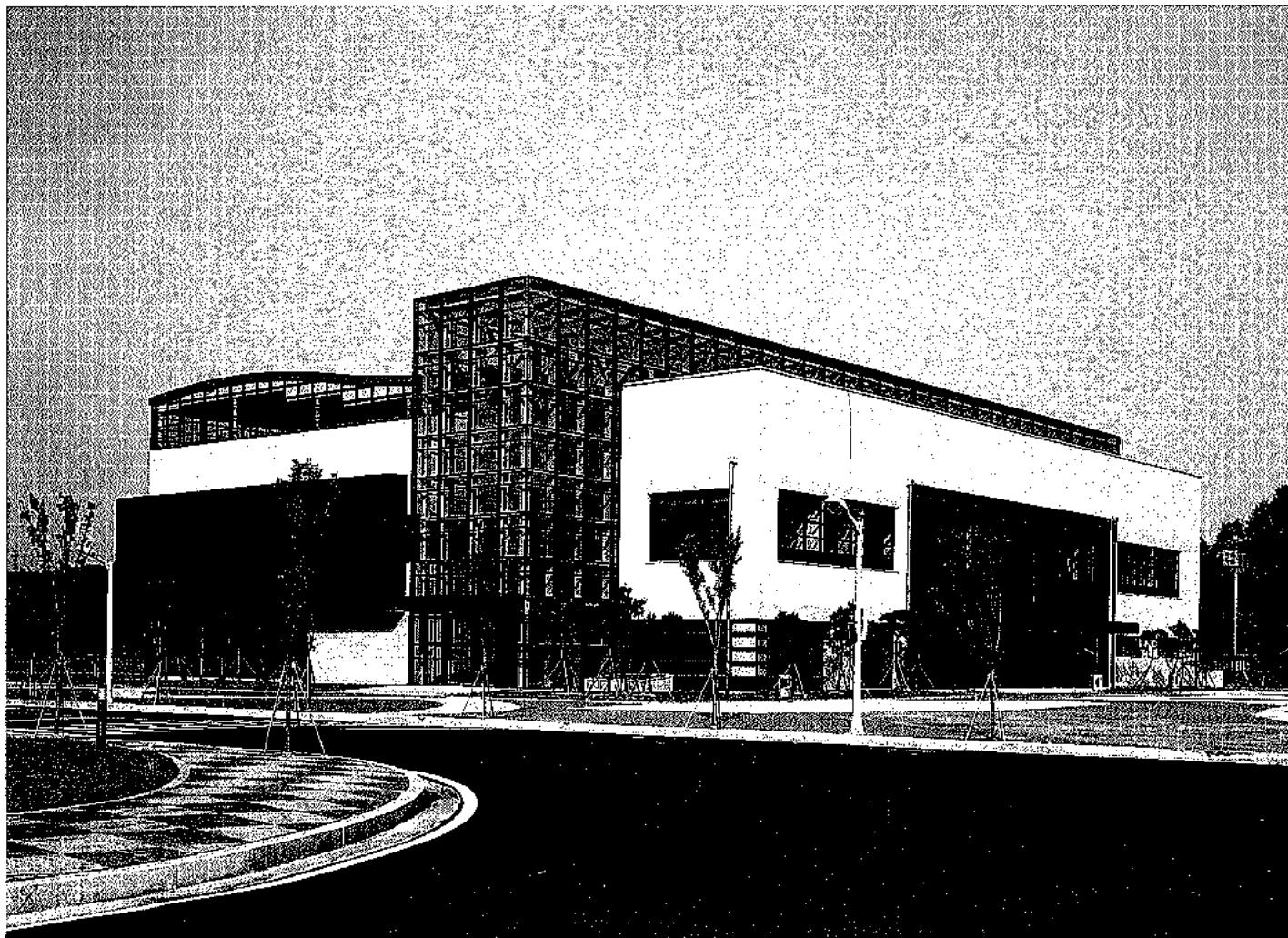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동 휴천농공단지
지 역	일반공업지역
대지면적	343,805.00m ²
건축면적	86,333.13m ²
연 면 적	91,537.32m ²
건 폐 율	24.81%
용 량	26.62%
구조	裙形동·지상2층/타워부동·지하1층·지상2층/ 세류관·지하1층·지상2층
층	총 5층
주차대수	목재주차 500대
설계대학	아침모, 조립중
사 진	건축사사무소 채공(촬영: 조태웅)









배치계획

건물배치를 공업단지의 중심적 도로가 될 전면 30M도로와 나란히 하여 제조장에 대한 접근성과 인자성을 높였으며, 단계적 진입계획에 따라 주출입구로부터 녹지공간-주차장-관리/후생동-공장동-차폐수립대를 차례로 형성하였다.

〈공장동〉

물류 입·반출, 제품생산, 확장 등을 고려하여 대지축과 나란히 배치하고, 후면부에 하역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시설들과 분리도록 하였다.

〈관리/후생동〉

단지의 중심에 공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장동 전면에 남향배치하였다.

〈체육관〉

야외공간과 연계 배치하여 야외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동선계획

보행동선 - 남측 주출입구로부터 수변시설을 따라 단지로 진입도록 하였다.

물류차량 동선 - 부지좌측 14M도로에서 진입하여 일반출 작업이 완

료된 차량이 일방향 진행으로 남측 부출입구로 신속

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차량 - 남측도로에서 주출입구를 통하여 근무자와 방문객 주차장으로 유도하였다.

〈공장동〉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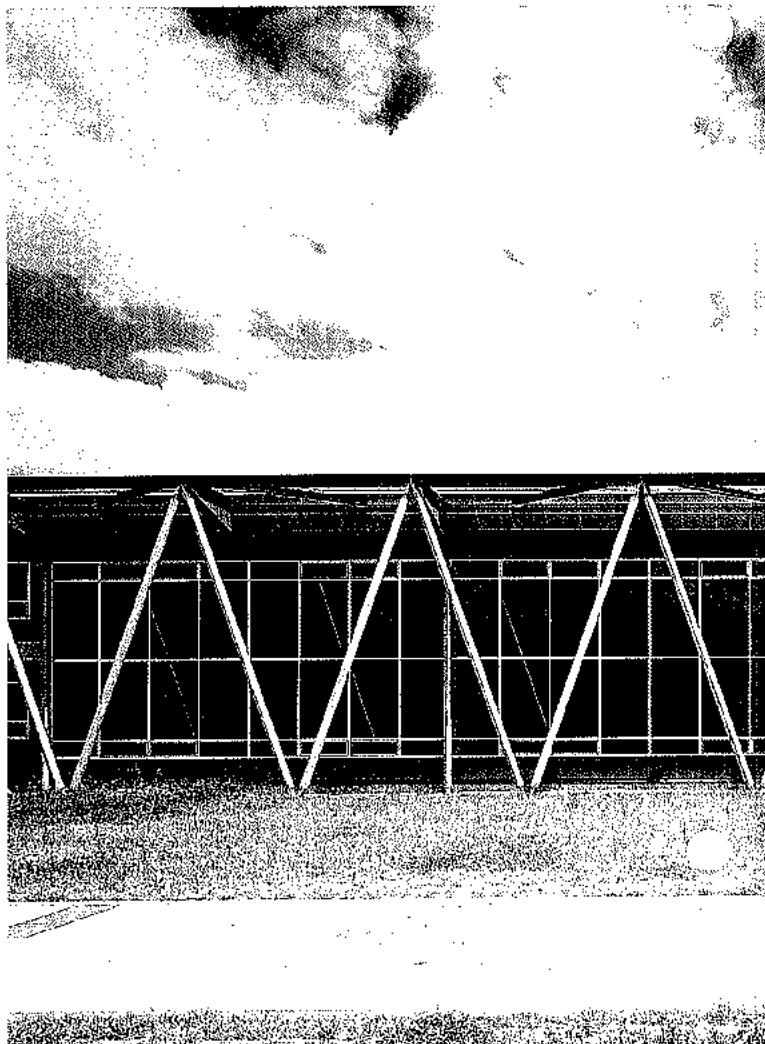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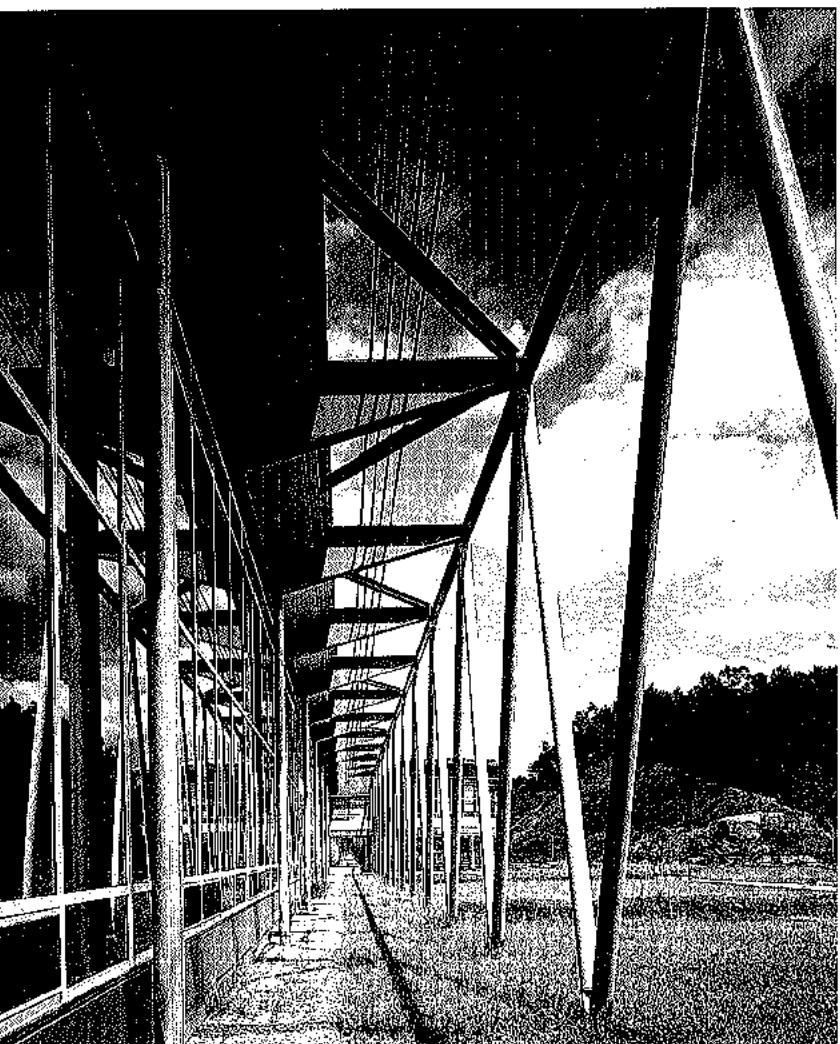
- 공정별로 원료창고, 원료기공, 지원시설, 궤련제조/포장, 자동화창고로 분리하고 직선형 생산라인을 형성하였고, 향후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중정과 아트리움을 도입하여 쾌적한 생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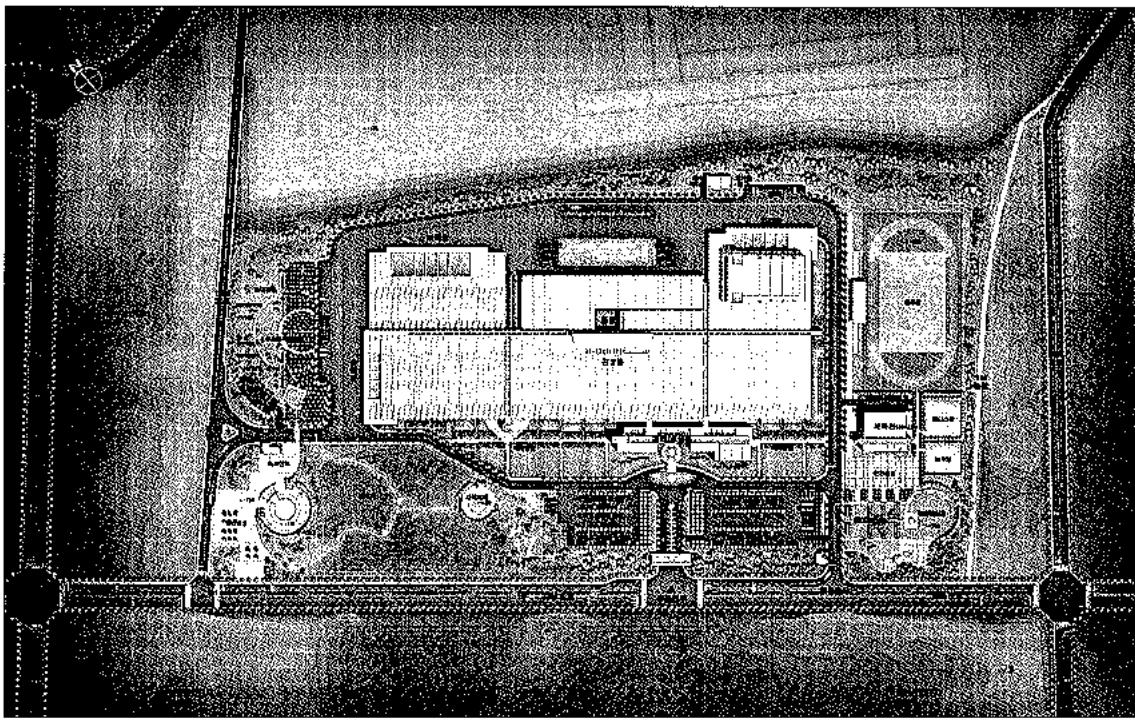
- 관리zone의 1층은 사무부분, 2층은 견학자를 위한 관람동선으로 활용하였고, 관리 zone을 외주부에 집중 배치하여 자연채광 및 외기유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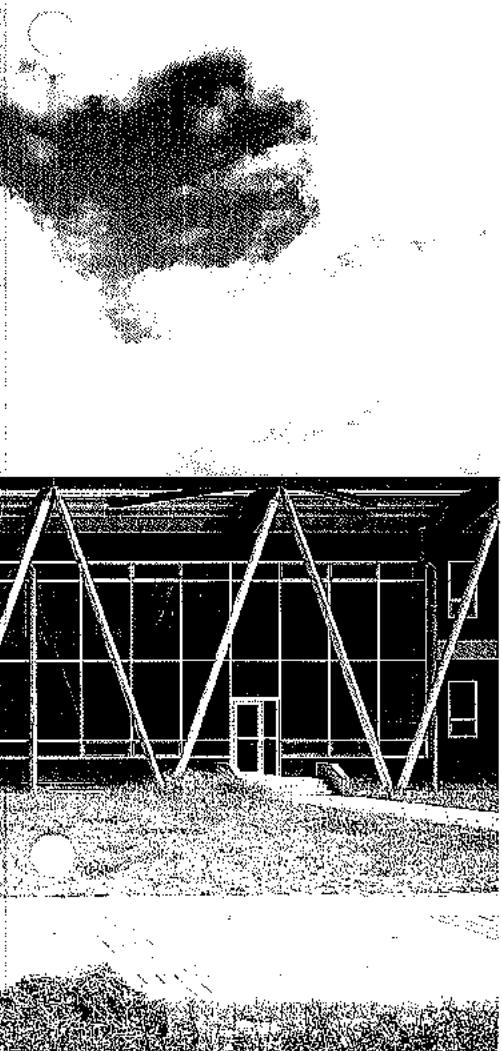
-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형태로 주변 자연산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구조체를 외부로 드러내어 구조미를 강조하였다





배치도



단면계획

경제성과 합리성, 의장성을 갖춘 지붕구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정 층고로 계획하였으며, 하역장은 우천시라도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끔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상부에는 일부분을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하여 하역장 내부까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였다.

마감계획

지붕마감은 샌드위치패널로 공장zone은 두께 100mm로 하고, 창고 zone은 75mm로 하였으며, 외벽은 공장zone 75mm, 창고zone 50mm로 설계하였다.

〈관리후생동〉

평면계획

- 로비홀을 중심으로 관리zone과 후생zone으로 구분하여 원활한 동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zone별 별도의 외부출입구를 설치하여 시설별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장동과 연계를 위한 연결통로를 설치하였다.
- 또한 관리zone과 후생zone을 연결하는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연계성 확보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입면계획

- 관리/후생동은 상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툰디를 중앙에 배치하여 정면성을 확보하였다.

단면계획

- 아트리움을 이용한 자연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였다.

〈체육관동〉

평면계획

-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대공간인 실내체육관과 작은 공간을 분리 구획하고, 시설별로 자연채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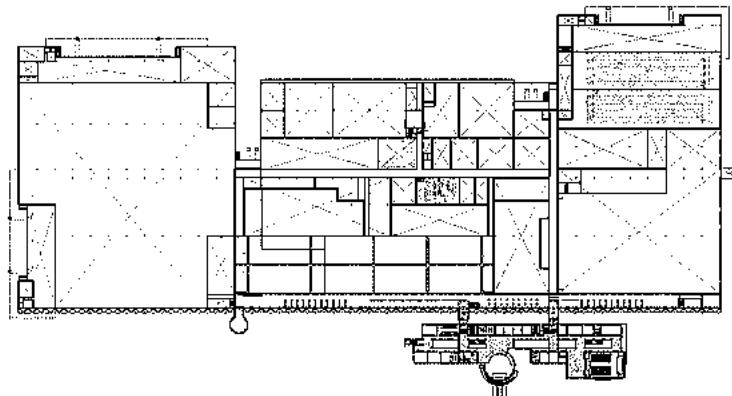
입면계획

- Mass의 직선형태와 지붕의 곡선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주 출입구 부분은 커튼월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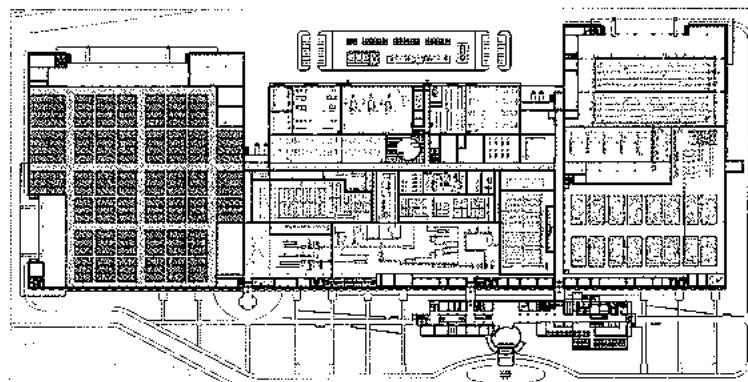
단면계획

- 체육관은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천장고(12.5m)를 확보하고, 관리부분의 지하층에는 전기/기계실의 층고를 이용하여 스퀘시 경기장을 설치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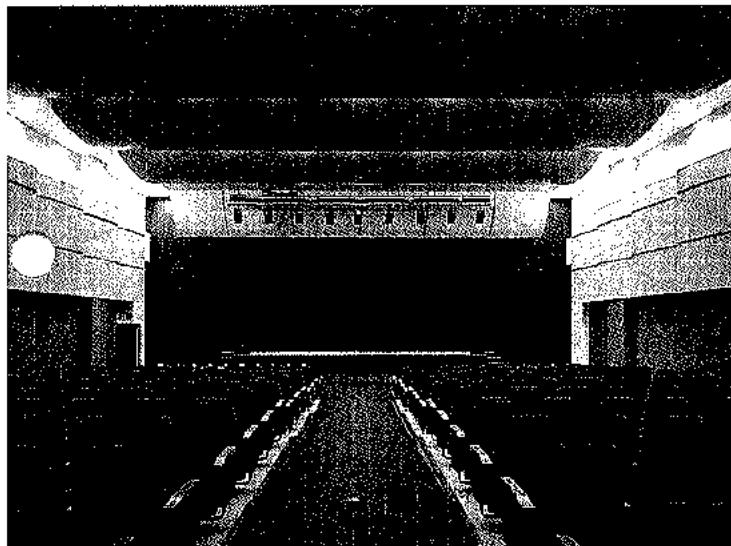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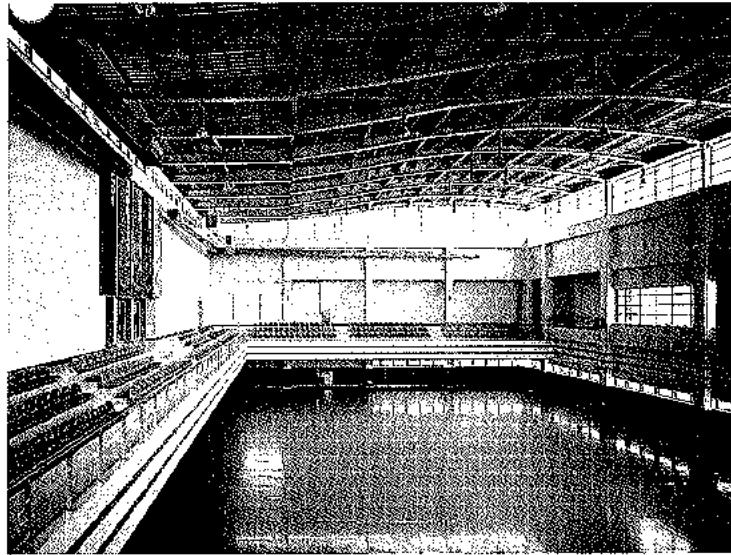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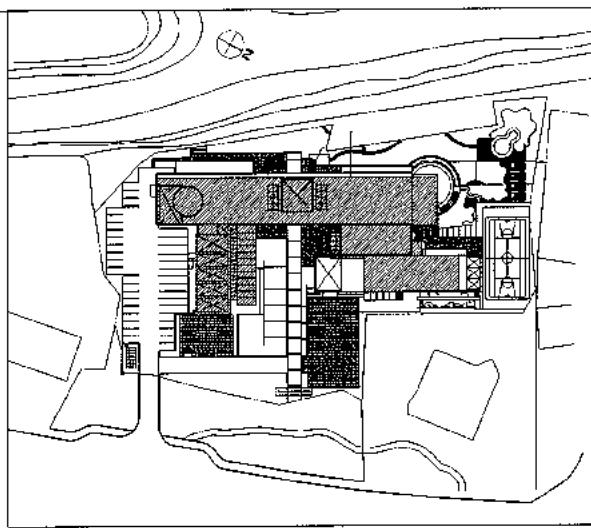
시몬느 사옥

Simone Head Office

안길원 / (주)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Kil-won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17-1번지의 11필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주요용도	공장시설(제조업) 및 부대시설
대지면적	8,938.00m ²
건축면적	3,063.64m ²
연 면 적	8,250.25m ²
건 폐 율	34.28%
용 적 률	81.15%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페널/THK.18 복층유리
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 : 8,250.25m ² /200m ² = 41.25대 계획주차대수 : 73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시몬느 사옥은 제조공장과 본사의 역할을 동시에 총족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자연속의 연구소와 같은 건물을 의도하였다.

계획에 앞선 대전제로서 Green Office로서의 지역내 Landmark 이미지 구축과 이에 걸맞는 고품격 공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표로서 첫째, 대내적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공장+공원의 유기적 연결,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근무조건의 향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둘째, 대외적인 인지도면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Simone의 이미지구축과 글로벌경쟁시대에 부합되는 시설확보에 의한 자부심을 표출하여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통한 사업성확보와 동시에 경수산업도로변의 Landmark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

하였다. 셋째, 신개념이 도입된 차별화된 공간에서의 남다른 직업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Total Interior 개념 도입에 의한 품질의 고급화, 내·외부 디자인의 일관성이 돌보이는 내부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배치계획 개념에 있어서는 기능에 맞는 실배치에 의한 명확한 기능분리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각 실의 융통성 확대화를 이루기 위해 크게 가방제조영역, 영업상담영역, 업무영역으로 나누고, 어는 3분할된 매스를 통하여 사각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외부공간 계획에서는 대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보차분리에 의한 보행자 안전 우선확보를 대원칙으로 하였으며, 4개의 테마별 정원(Oak Plaza, Waterside Garden, Maple Garden, Lake Garden)을 도입하여 고품격의 디테일을 적용한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성하여,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와 내방객에 최상의 회사이미지를 제공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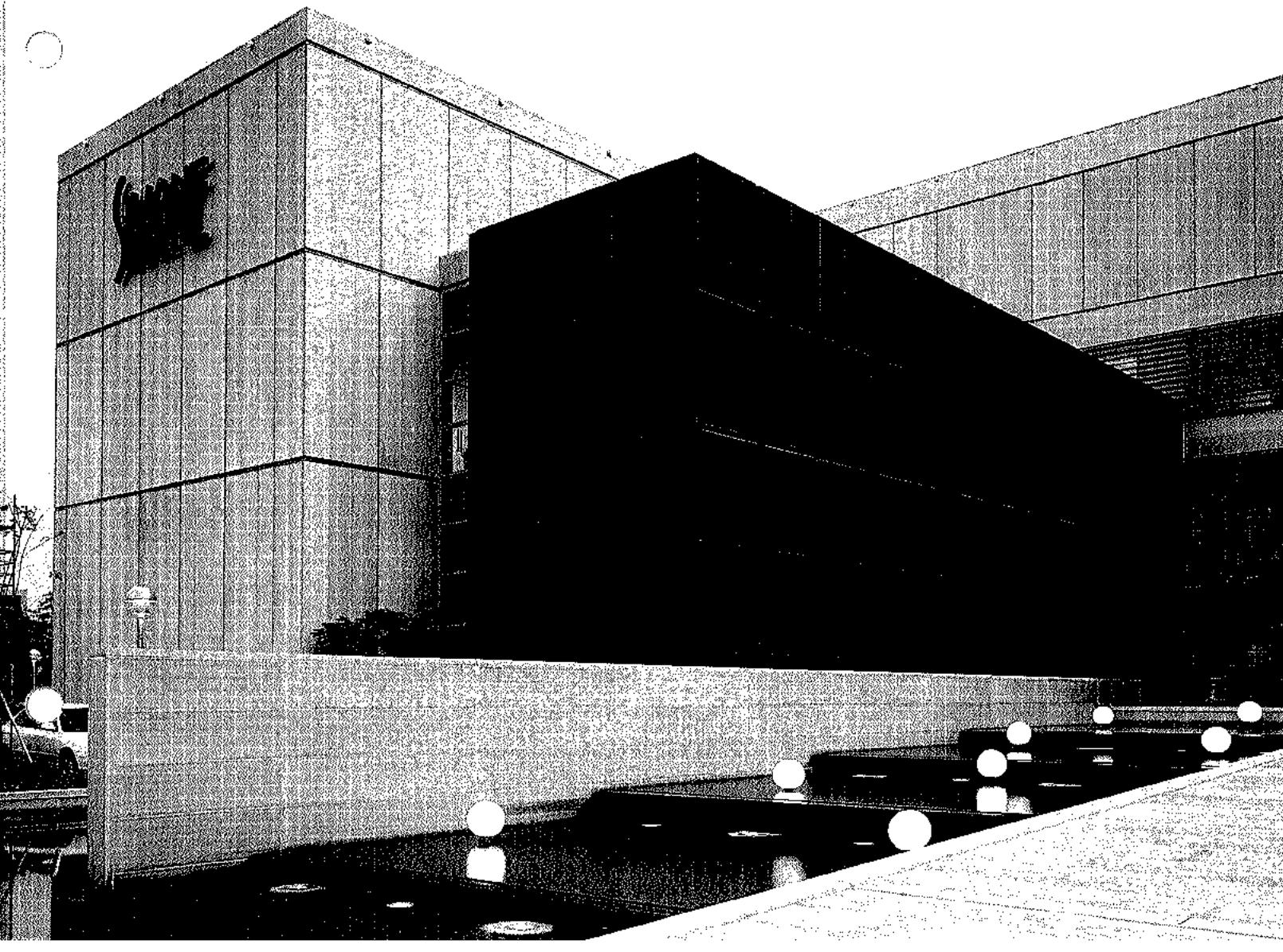
있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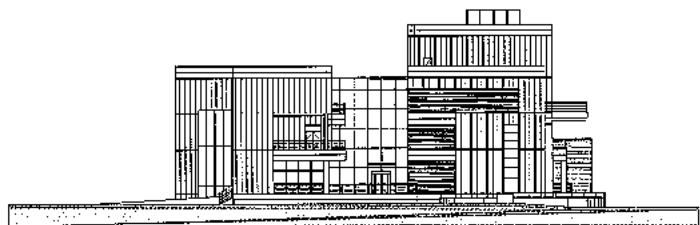
또한 내부동선과 옥외공간이 연결체계에 있어서 첫째, 고객과 직원동선의 엄격한 분리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간별 이용자를 분리하고 둘째, 시몬느 사옥만의 고유한 디자인 요소인 아트리움, 브릿지, 정원의 유기적 연계에 의한 특화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셋째 날코니, 테라스, 정원의 적정한 배치에 의해 실내공간과 옥외휴식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자연친화적인 Green Architecture로서의 최신트렌드에 맞추어, 인테리어계획 역시 열린공간을 표방하여, 외부공원을 공유하고, 자연의 흐름을 실내로 유도하여 적극적인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이용함으로서 자연을 존중하는 시몬느의 기본정신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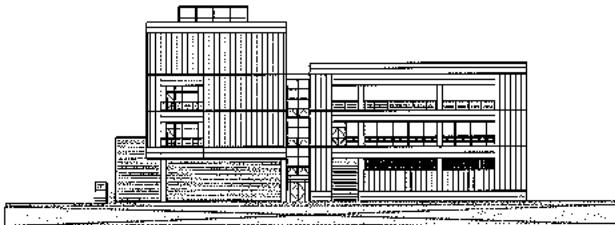
이를 위해 목재의 질감과 이를 관통하는 자연채광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자연소재와 인공소재를 중첩시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긴장감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서 모던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목재의 느낌과 빛의 조화를 각 실의 용도에 맞도록 적용하여,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감성적 공간을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현되어진 시몬느 본사의 진보적인 공간해결방안은 건물이용자들에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디자인(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만이 제공하는 초유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차후에 계획되어질 유사 프로젝트들에 있어서 자연과 디자인 및 효율이 결합된 모범적인 기업의 한 전형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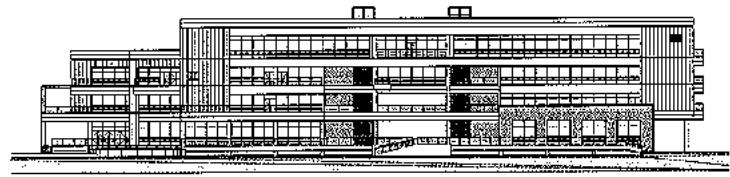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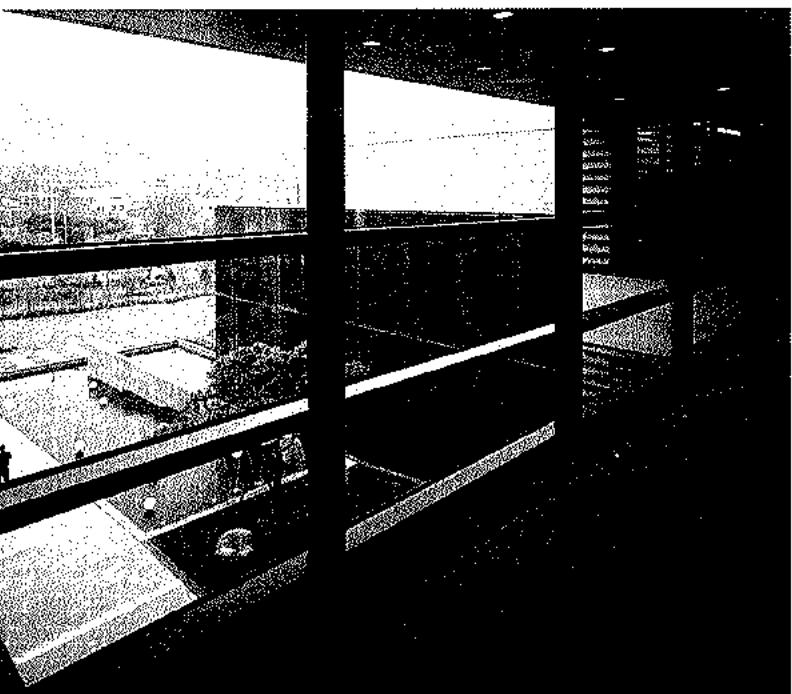
좌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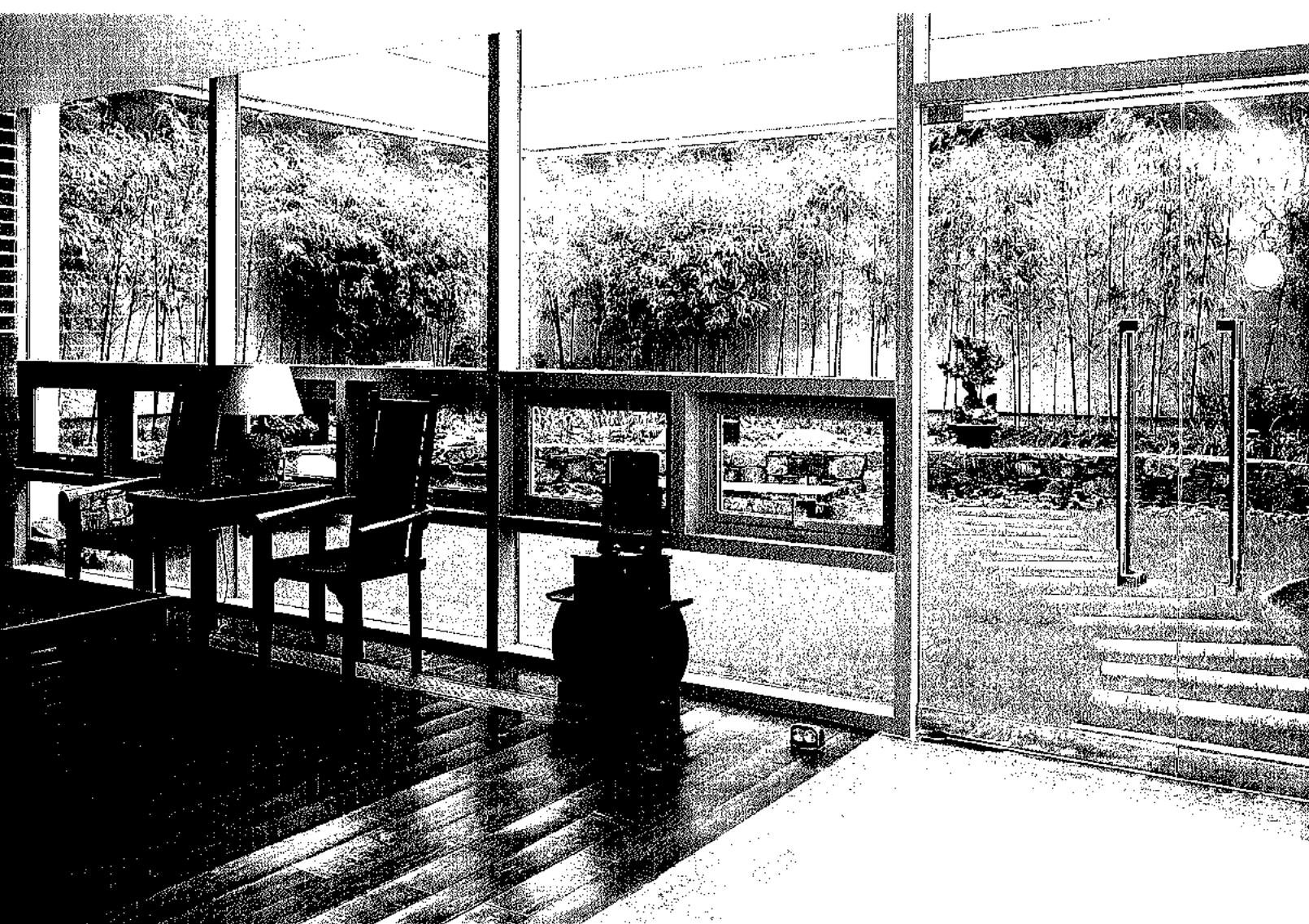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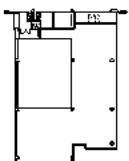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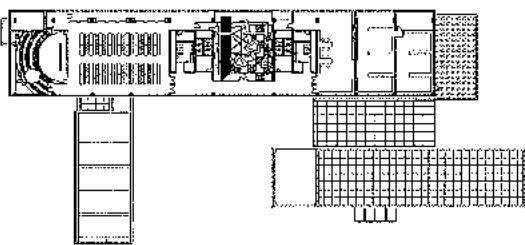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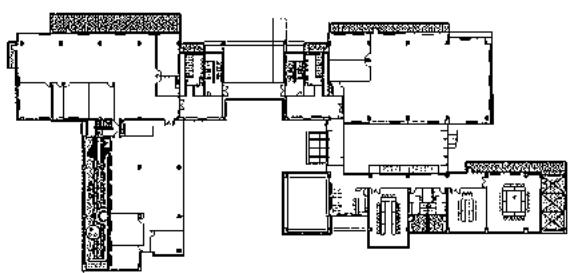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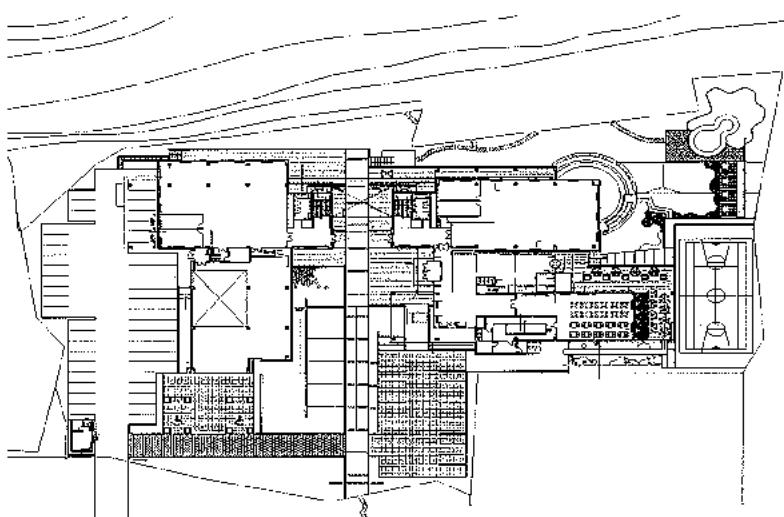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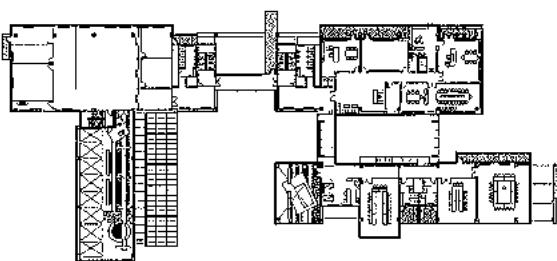
자재참고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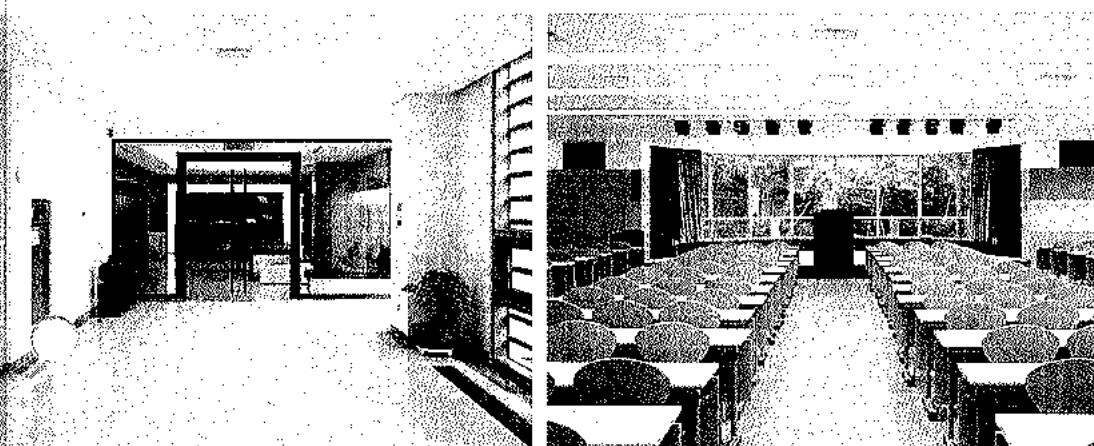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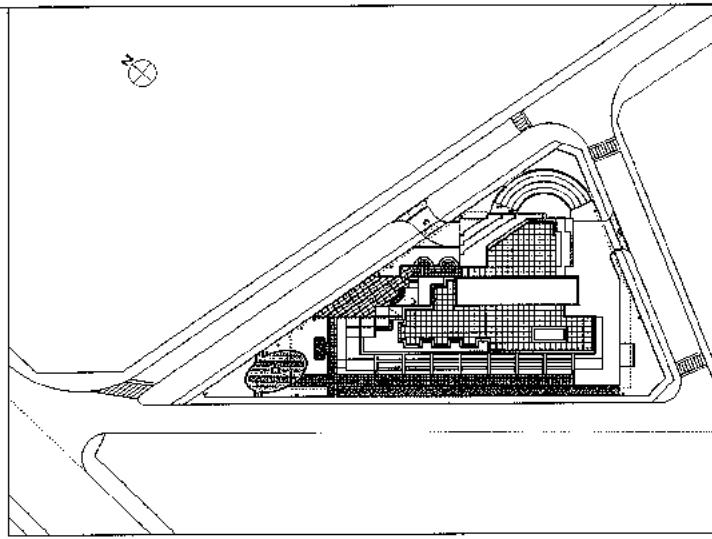
문래동 에이스 테크노타워

Moonlae ACE Techno Tower Apartment-Type Factory

오근석·문호 / (주)유진인터내셔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O Kun-Sok & Moon Ho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지역	준공업지역, 특별계획구역
대지면적	5,356.40m ²
건축면적	2,141.65m ²
연면적	27,549.27m ²
주요용도	아파트형 공장
건폐율	39.98%
용적률	377.80%
총수	지하 2층, 지상 1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칼라복층유리, 회강식
설계담당	김용호, 윤종석, 홍승진, 노윤진
감리담당	윤진노
시공사	에이스종합건설(주)
사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배치도

문래동 3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방림 방적공장 부지 7블럭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은 소규모 영세공장과 재래시장이 혼재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계획에 의하여 점차 도심형 주거와 상업시설,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낙후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과거 하드웨어 공장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심형 공장으로 첨단 및 지식형 산업위주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지의 형상이 길죽한 삼각형 모양으로 3면 모두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정형의 반듯한 건물로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정형의 맵스를 놓고 일면처리에 상당한 고심을 하였고, 디자인상 체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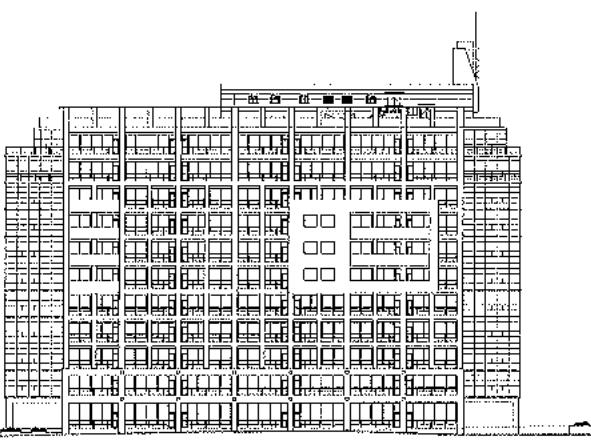
조건을 해결하다 보니 3면 모두 각각의 표정을 가진 역동적이고 독특한 외관을 가지게 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각각의 도로방향과 일치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에 순응하는 개념으로 계획하였으며, 커튼월 공법을 도입하여 개방감, 조망권 및 일시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외관이 되도록 하였고 지상1층 일부를 피로티 처리하여 지상주차 및 하역공간으로 활용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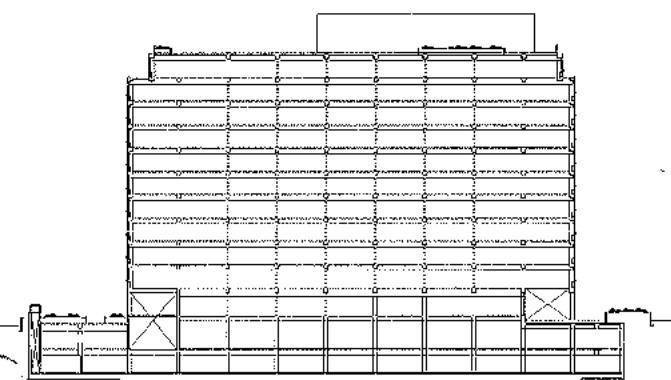
공개공지는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포장과 식재로 친환경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소공원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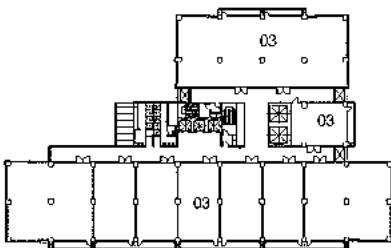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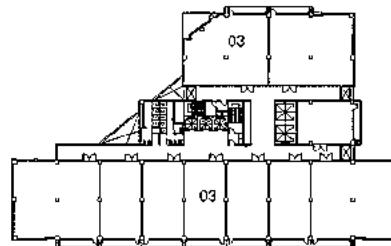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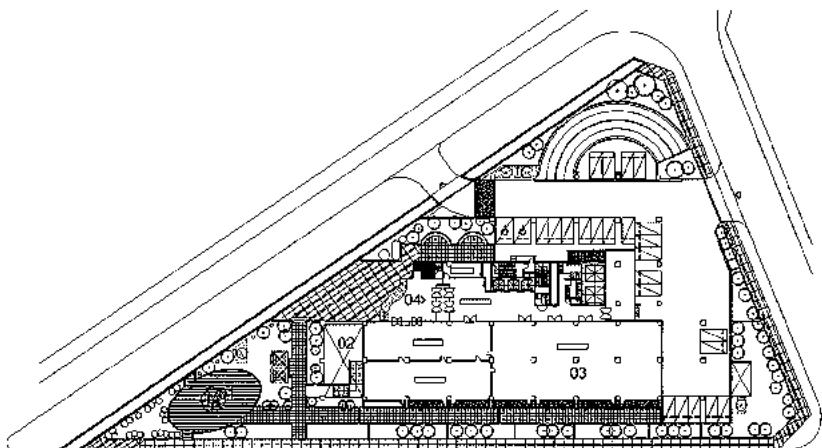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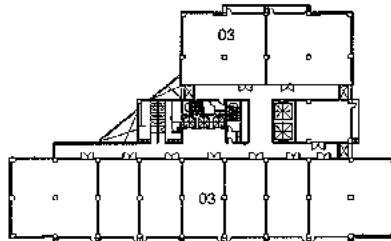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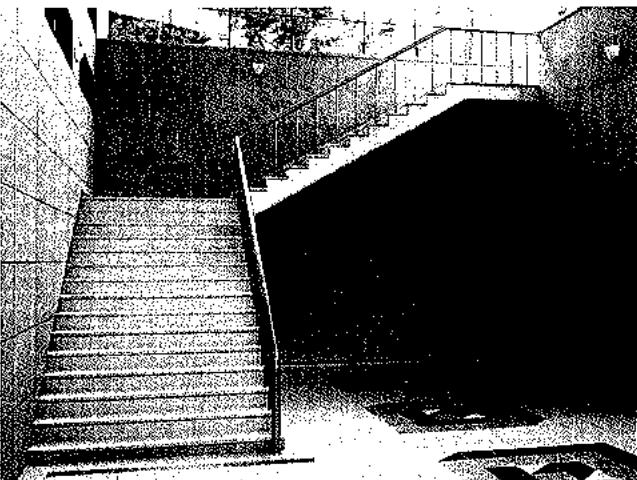
8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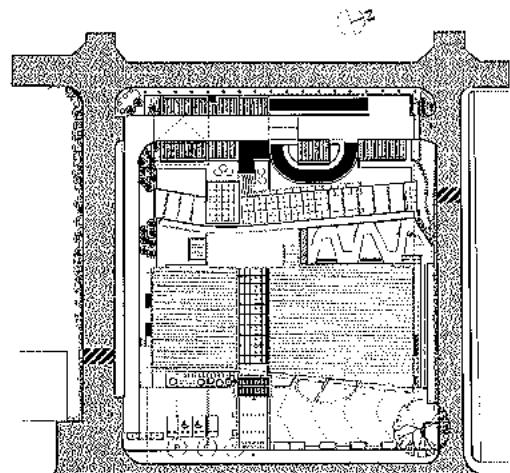
공군회관

Air Force Club Turnkey Competition (Prizewinner)

이종찬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 성진용
Designed by Lee Jong-Chan & Seong Jin-Yong

건축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신길동 1245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복지시설), 문화 및 접회시설(집회장)
대지면적	7,318.60m ²
건축면적	2,600.72m ²
면 적	14,937.41m ²
건 폐 율	35.54%
용 적 률	113.98%
규 모	지하 2층, 지상 7층
외부마감	외벽 - 알루미늄 쉬트 + 광택노출콘크리트 지붕 - 알루미늄 지붕페널 유리 - THK.24 패스텔 복층유리,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성기, 김영진, 박노현, 김태명, 박찬정, 김하영, 이상경, 정병용
시 공	두산건설
구 조	서울구조
기 계	한일 엔지니어링
전 기	협안 전기
토 목	두호 엔지니어링
조 경	신화 컨설팅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2000년 봄의 기억

지금부터 3년 전 터키방식으로 진행된 공군회관은 재경지역 출장자에 대해 숙소제공과 공군관련단체의 사무실, 예식, 연회 등 (공)군 관련 주요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하는 다종의 복합시설로써, 도심지내 독립된 군 관련 시설로써의 역할이 아닌 (공)군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만남의場으로써 지난 50년의 흐름과 현재, 그리고 미래 공군의 시간성을 담아내는 내·외부공간에 공군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인 조형성을 부각시키는 통합디자인을 기본개념으로 접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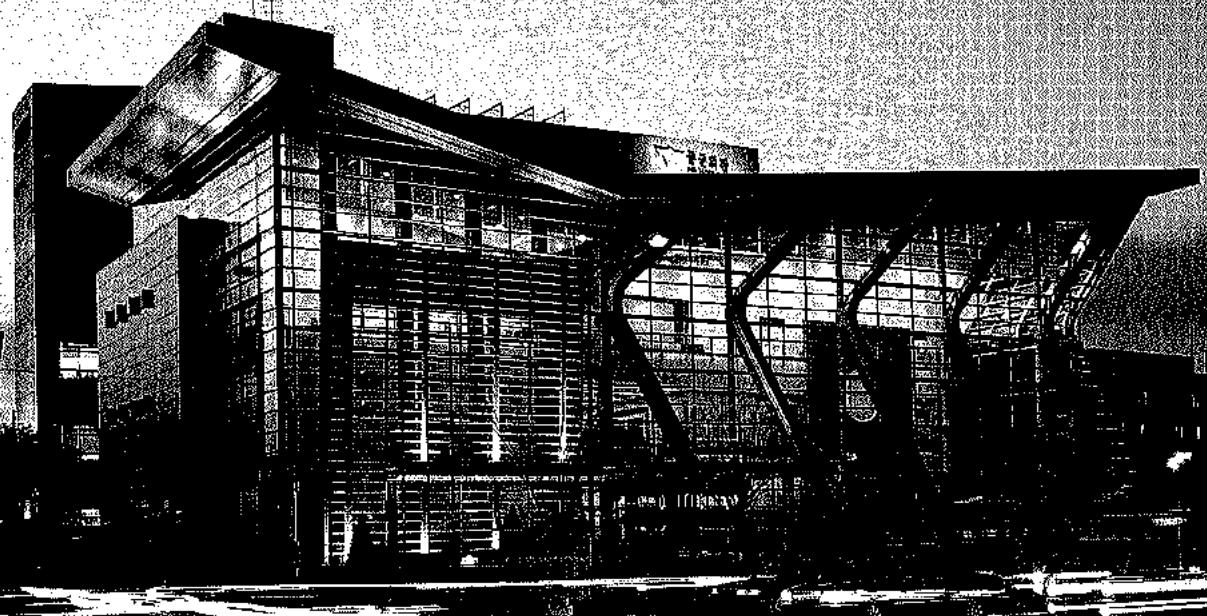
공군의 상징성을 활공(Gliding)과 날개(Wing)의 이미지를 보다
직접 체험하였으며, 비상하는 조망과 하늘을 향한 조망, 역동성
(Dynamic)과 기류의 형상(Air Pattern Motion)을 축화시켜 새

천년으로 飛翔하는 듯한 가벼우면서 강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주 응도인 예식장의 기능을 남성(Male)과 여성(Female)의 이미지로 평면, 입면계획 오소르 표현하였으며, 좌측은 남성적인 적선·강직함을 의미하고, 우측은 꼭선·부드러움을 의미한다. 폭포와 연못, 산과 개곡의 대비되는 자연의 요소를 내·외부공간에 도입하고, 아트리움 내부의 벽천은 남성을, 외부의 연못은 여성 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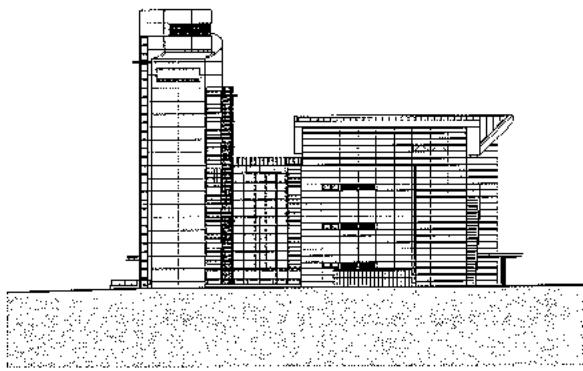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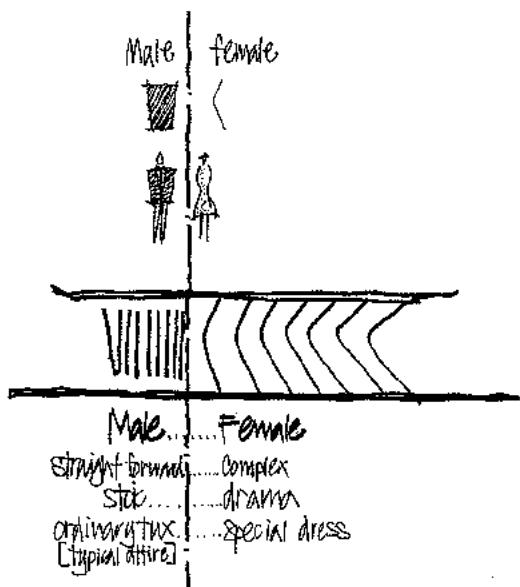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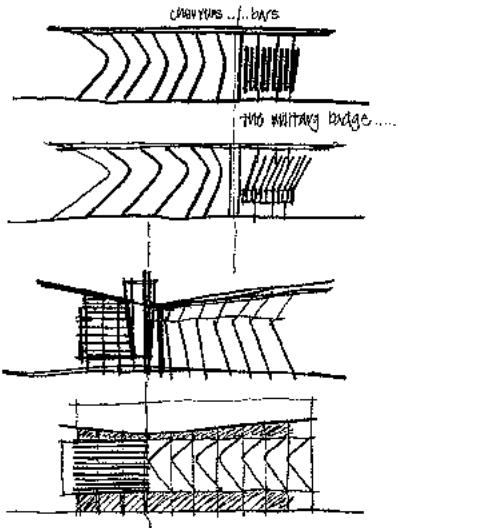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은 대양로에서의 진입 시 개방감과 점면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식·연회동을 전면에 위치하고, 숙소동은 소음, 조망 등을 고려하여 후면부에 배치함으로써 기능의 독립성을 고려했다.

대지 전면에 확보된 광장으로부터 내부까지의 강한 보행자 중심축을 설정함으로써 건물 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으며,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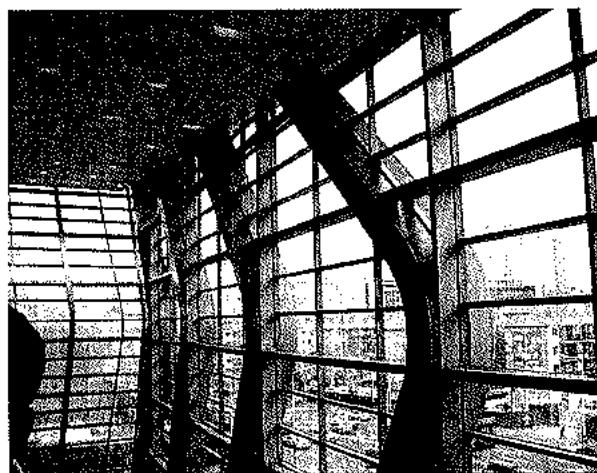
좌측면도

레벨차를 이용한 플로티 및 데크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층 옥상정원의 갤러리는 우측 8m도로에서 직접 연결시켜 예식·연회동과 숙소동 사이의 원충공간으로써 시민의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예식, 연수,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관련 기능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된 예식·연회동과, 사무실·숙소·스카이라운지 등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후면부 숙소동의 계획으로 기능별 조닝의 독립성과 연관성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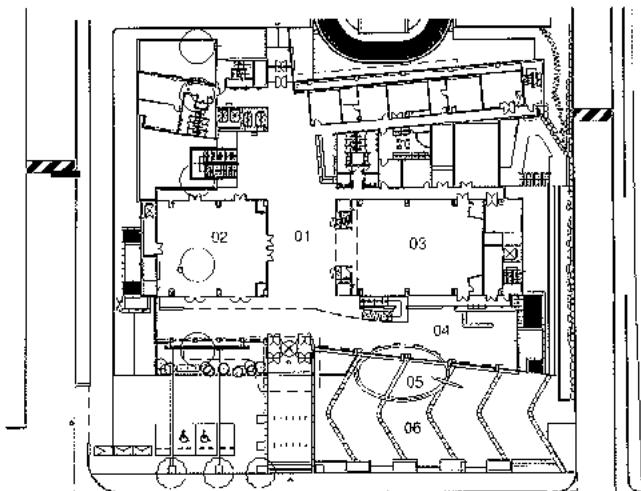
2003년 봄의 설레임

따사로운 아침햇살을 받으며 기상하는 숙소동 이용자, 전면광장-아트리움-대기홀로 전개되는 개방적인 대공간아래 분주히 움직이며 빛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는 하객들, 내·외부를 연결하는 건조한 도심의 여백으로써 연못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 땅에 더욱 풍요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실루엣으로 비쳐지는 전면 아트리움의 아경이 만들어내는 대비되는 직선과 곡선의 움직임은 지나는 이에게 호기심과 설레임을 유도하며, 머무르고픈 여유로움과 활기찬 공간으로 기억 되기를 기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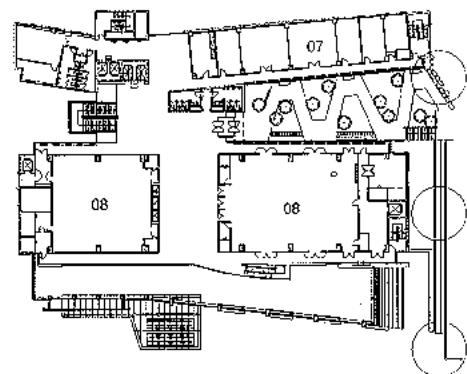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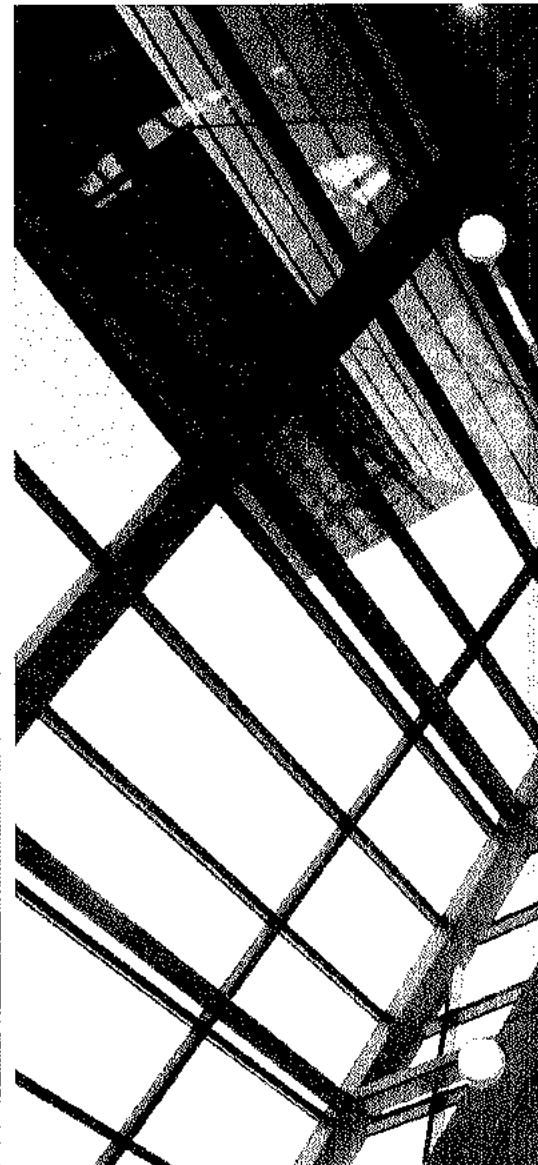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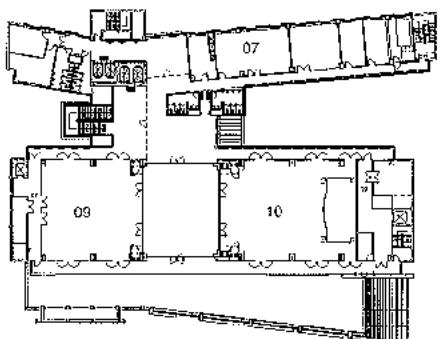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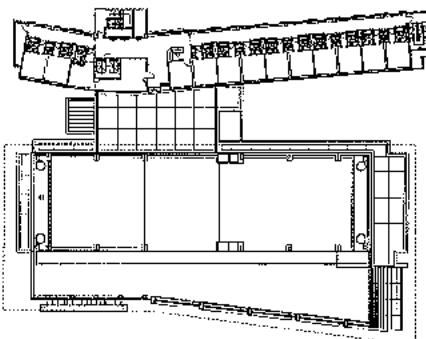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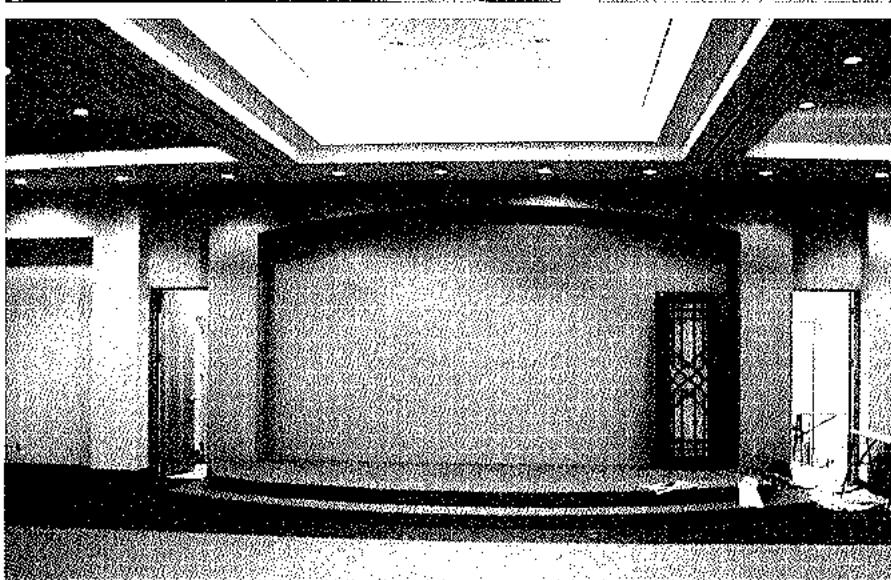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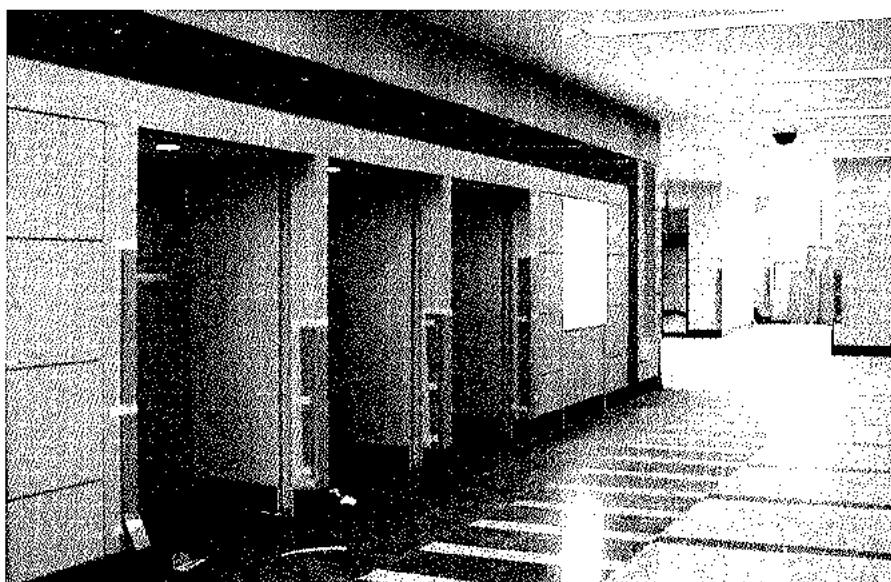


- 01_로비
- 02_피로연장
- 03_예식장
- 04_아트리움
- 05_인문
- 06_이벤트프라자
- 07_회의실
- 08_연수실
- 09_교류실
- 10_세미나실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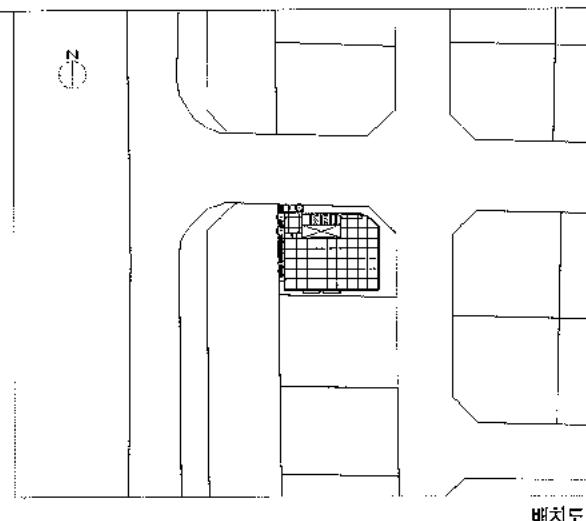
예닮고을 교회

The Yedamgoul Baptist Church

이용우 / 건축사사무소 별빛건축
Designed by Lee Yong-Woo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84-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교회) + 주택
대지면적	217.10 m ²
건축면적	129.62 m ²
연 면 적	317.54 m ²
건 폐 율	59.71%
용 적 률	146.26%
주차대수	4대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합성수지침투목재, 145X145 투명유리블럭, THK16투명복층유리
내부마감	파널히팅/디렉스타일, 석고보드/아크릴계페인트, 경량철골천정틀/석고보드/암면흡음텍스
설계담당	박경숙, 장승현, 하현진
구조설계	서울구조
설비설계	(주)송정ENG
전기설계	(주)보우티앤씨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배치도

신도시 내의 주거와 종교시설이 복합된 소규모 도시형 교회가 이 프로젝트의 주제이다.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주변의 환경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한다. 그러한 환경들과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스럽고, 경건한 공간을 담는 기능이 외에 다양한 방식의 예배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들이 도시형 교회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도시 계획에 의해 변화되어 가는 부천 상동의 도시 양기로 이

계획 작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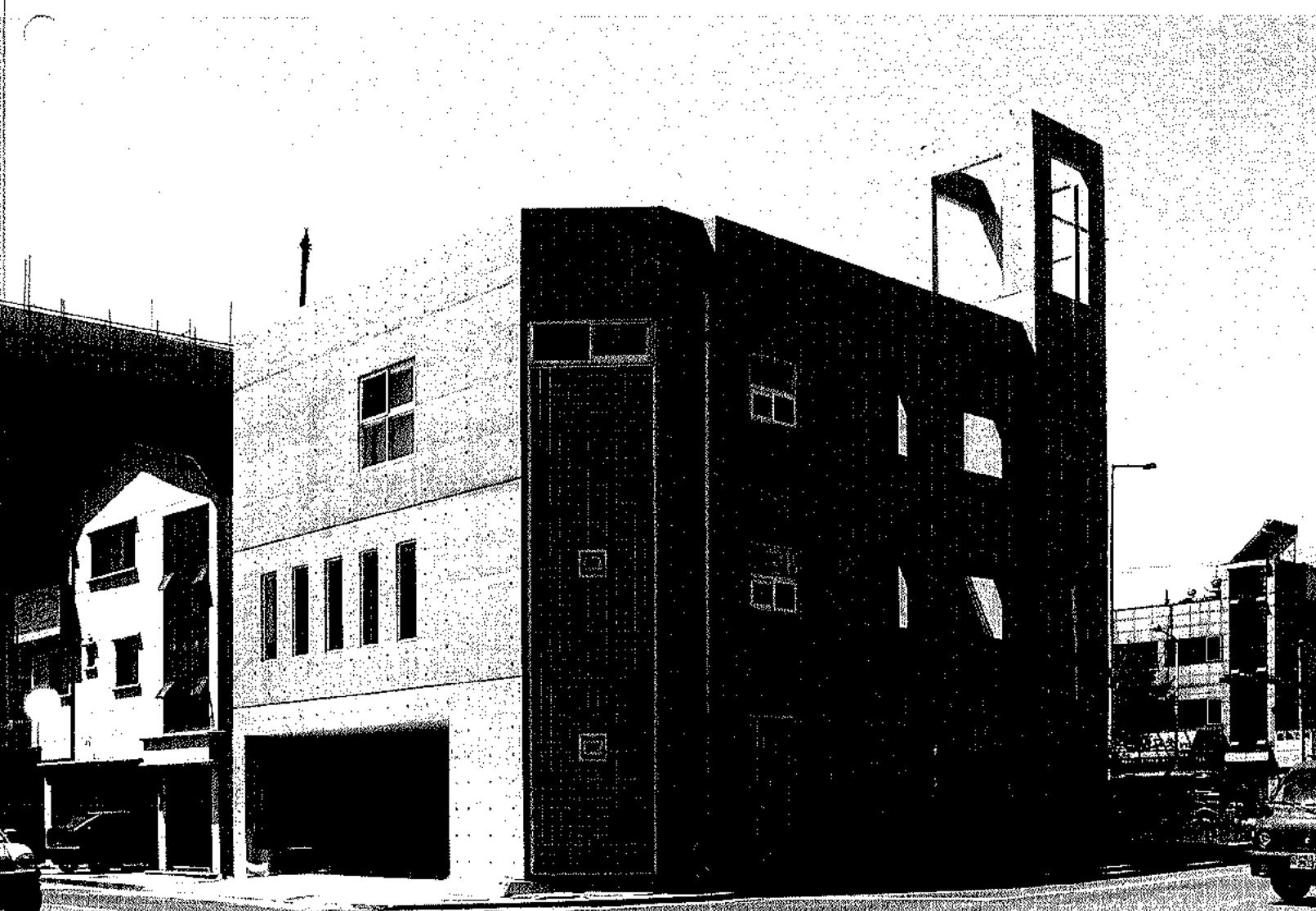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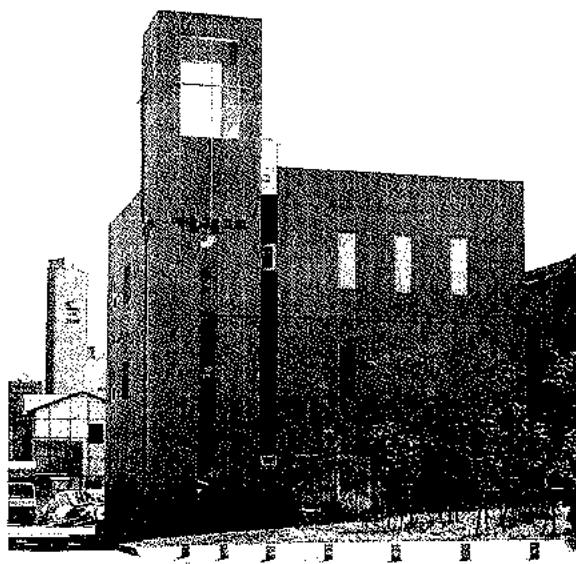
주변의 획일화된 건물들과 수많은 교회들... 빨간색 네온사인으로 둘러싸인 십자가, 뾰족 탑 지붕들, 어지럽게 장식된 외부 형태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지던 빛의 무분별한 절제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요구에 더 이상 적당하지 않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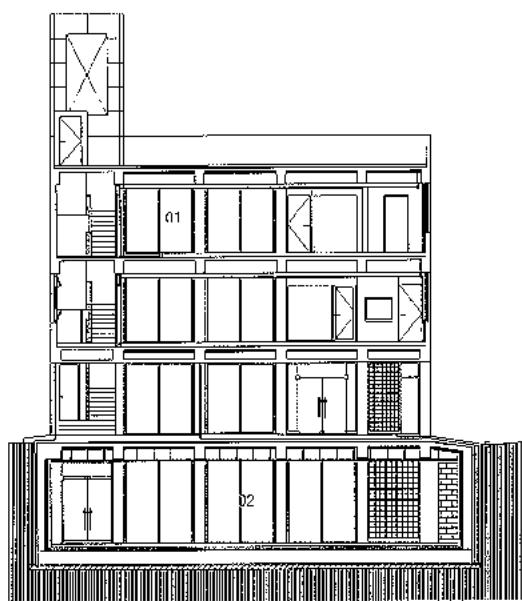
이 계획은 대지주변의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 노출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물성, 형태적인 면에서 절제되고, 간결한 이미지와 밝고 폐쇄적이지 인지되는 예배당 분위기로 접근을 하자 하였다.

1층의 필로티는 단지,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공간이 아니라, 예배 전 후에 신도들간의 가벼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로도 쓰인다.

지상2,3층은 주택으로 그리고 보다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예배당은 지하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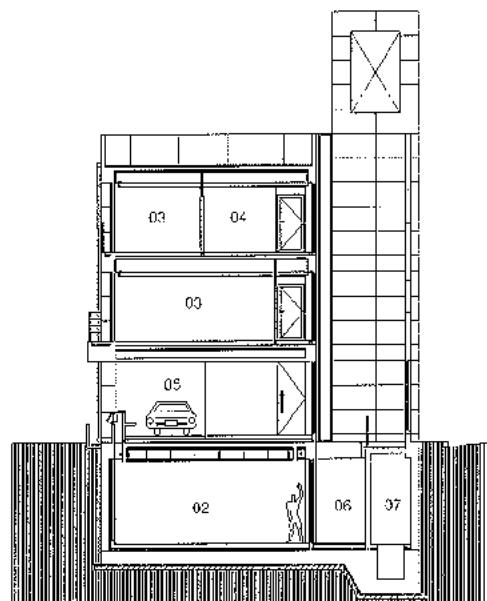
대신 빛우물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절대자와의 만남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진입계단(나무 테크)은 노출콘크리트와 대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으로 동선을 유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신도들이 예배당에서 나올 때 사면이 갇혀있는 오직 하늘만 열려있는 공간을 접하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한번 더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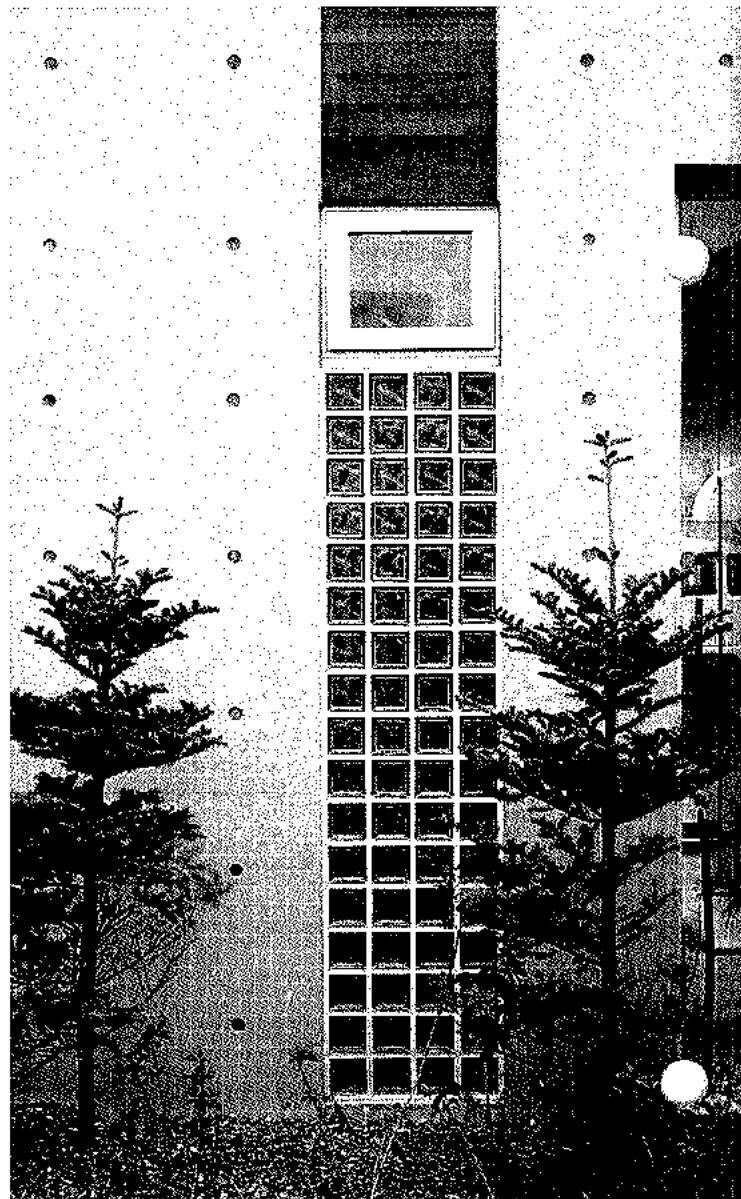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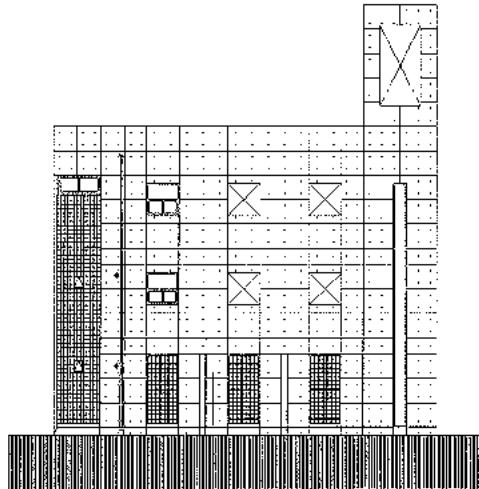
- 01_ 현관문
 02_ 예배당
 03_ 빙
 04_ 거실
 05_ 주차장
 06_ 예배당 내부용
 07_ 평포문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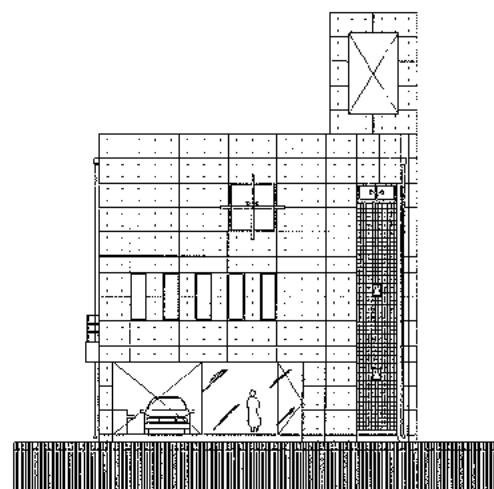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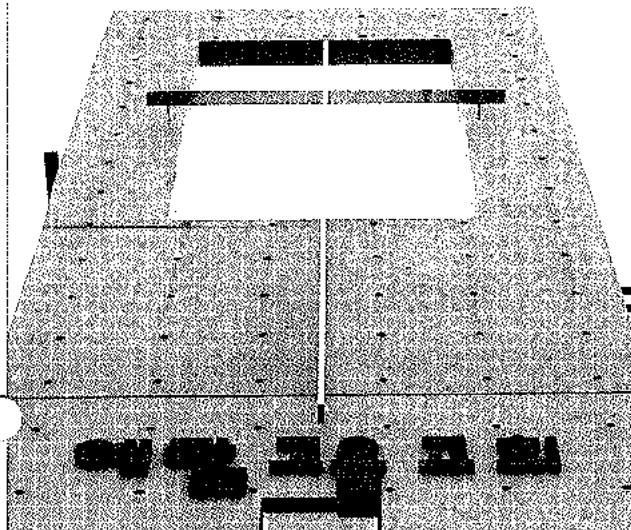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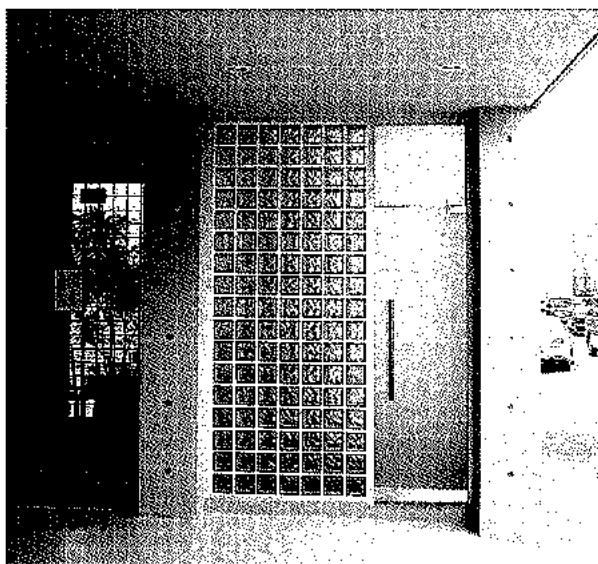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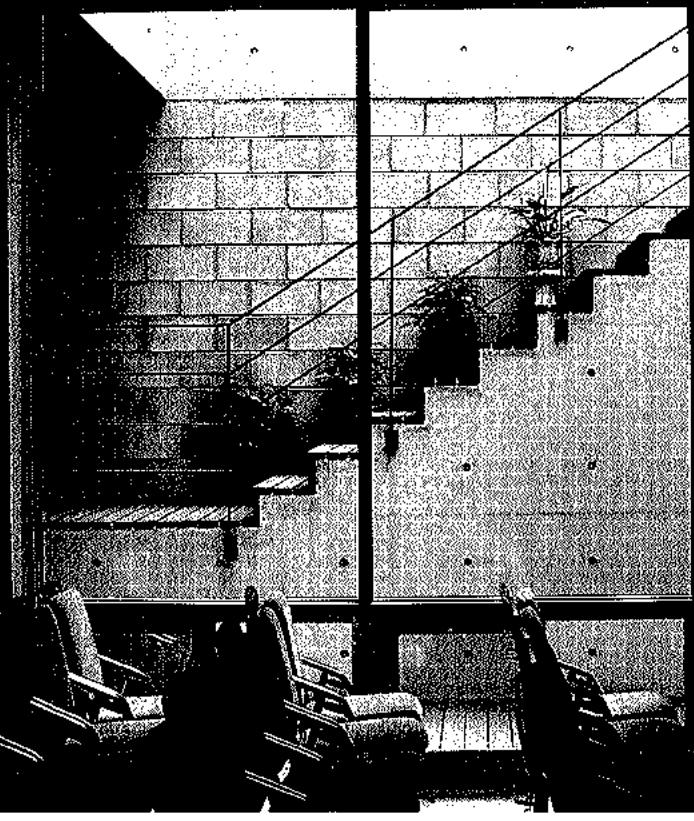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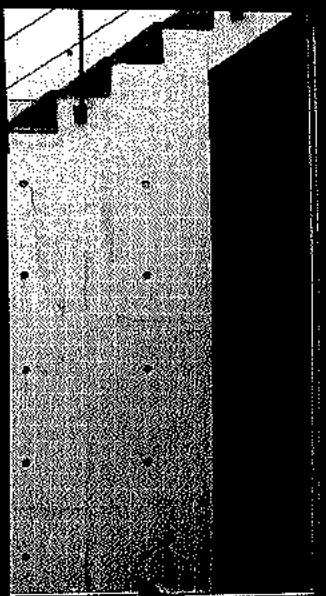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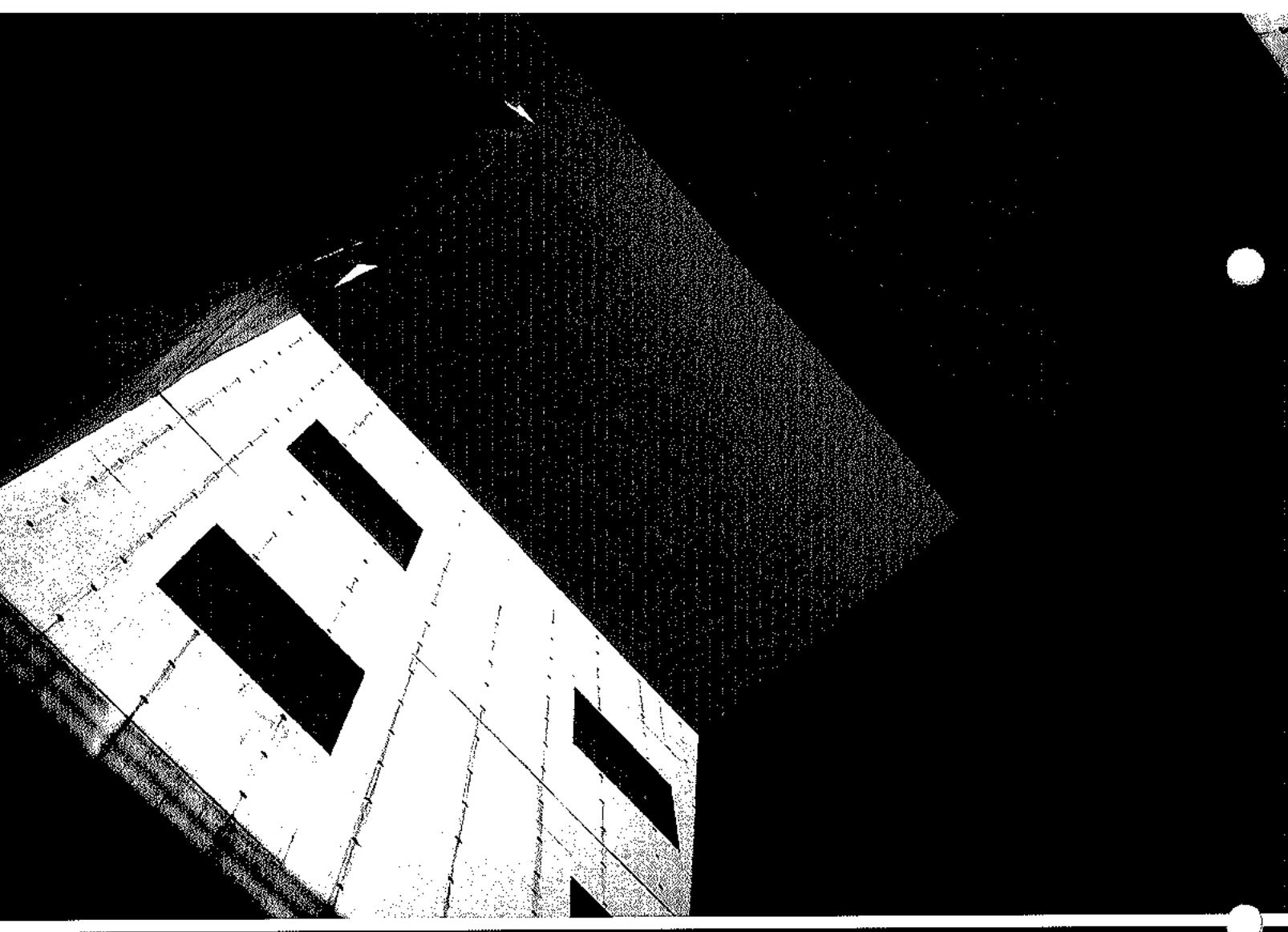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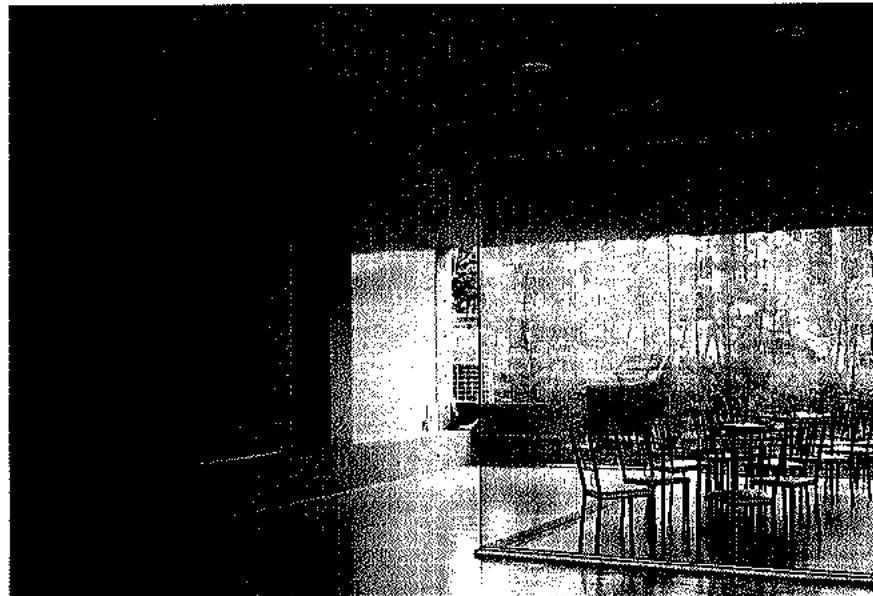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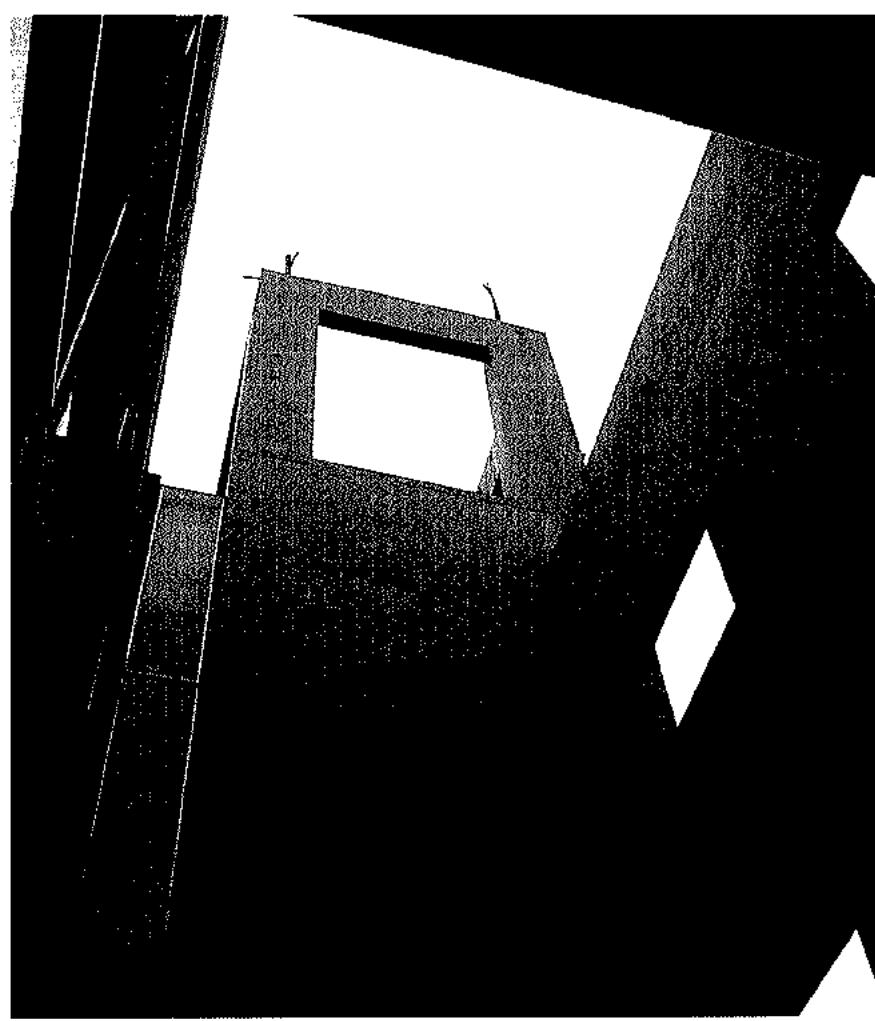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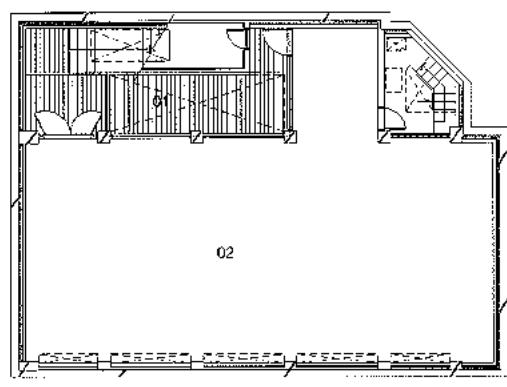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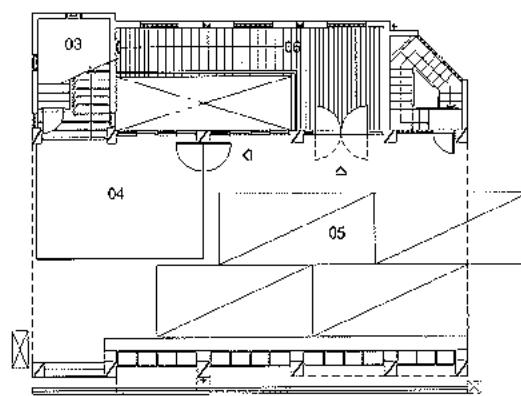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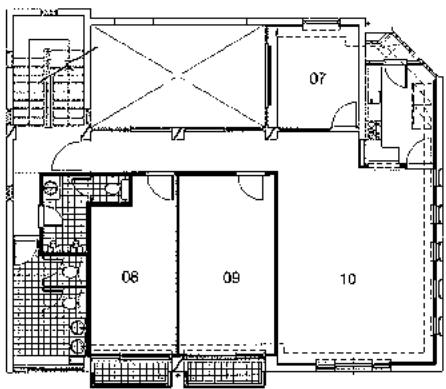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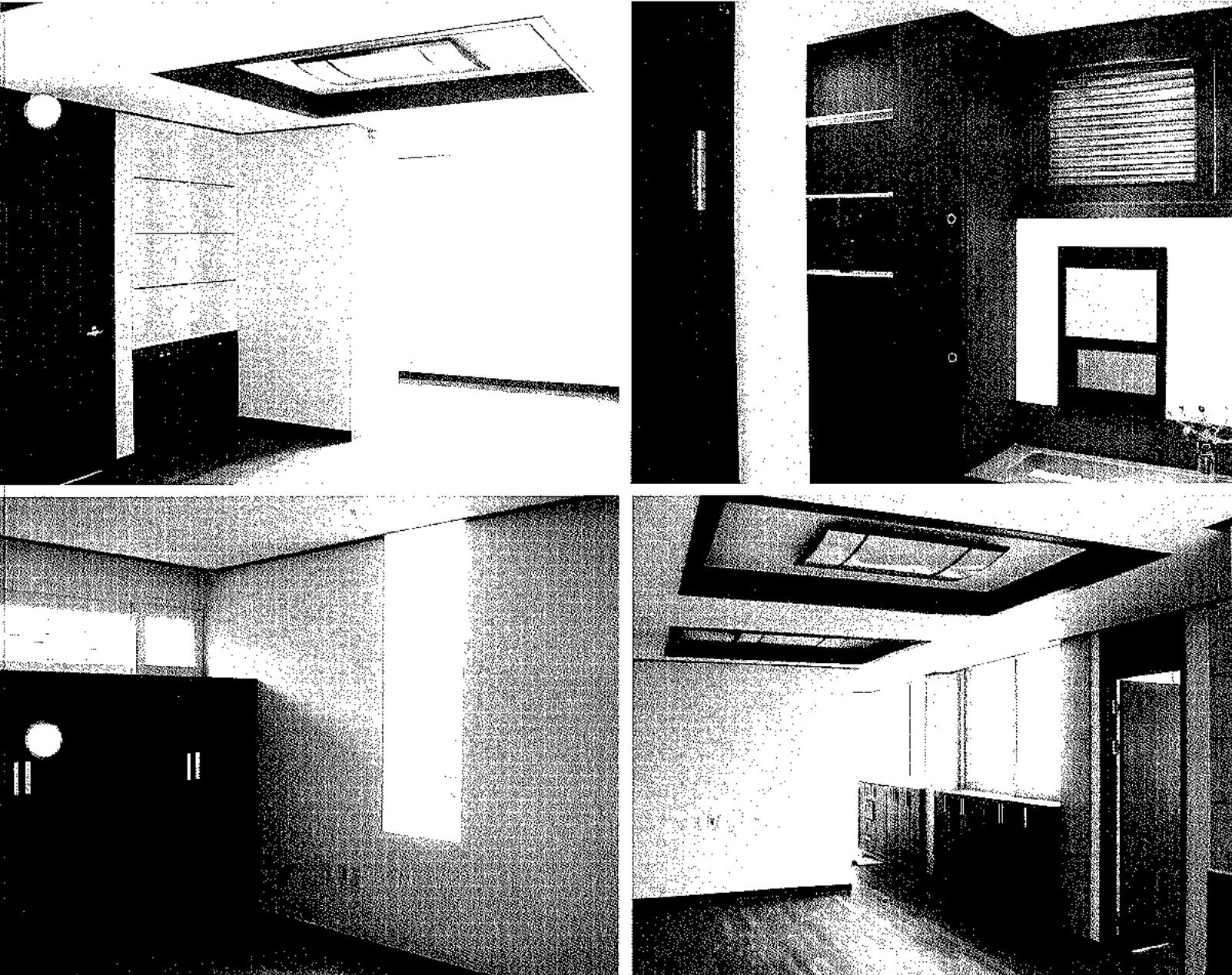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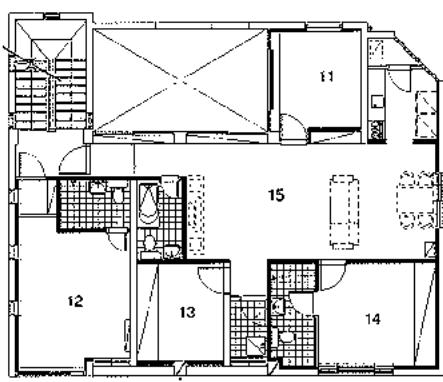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 01_ 이내당 내부홀
- 02_ 이내당
- 03_ 창고
- 04_ 현관홀
- 05_ 주차장
- 06_ 현관홀
- 07_ 방-1
- 08_ 방-2
- 09_ 방-3
- 10_ 거실
- 11_ 방-1(1세대)
- 12_ 방-2(1세대)
- 13_ 방-3(1세대)
- 14_ 방-4(1세대)
- 15_ 거실



3층평면도

KT 대전지사

KT Daejeon Branch Office

채두병 / (주)건축사사무소 아취그룹
by Chae Du-Byeong

건축분야에는 의미를 부여받는 것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말하려는 대상이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증명하는 것이다. - 중략 - 바라건대 건축가는 학문적이고 회화에 숙달 되며 기하학, 역사에 능통하고 철학자에게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음악을 이해하고 법률가의 견해나 천문학 혹은 天空理論에 관한 지식도 구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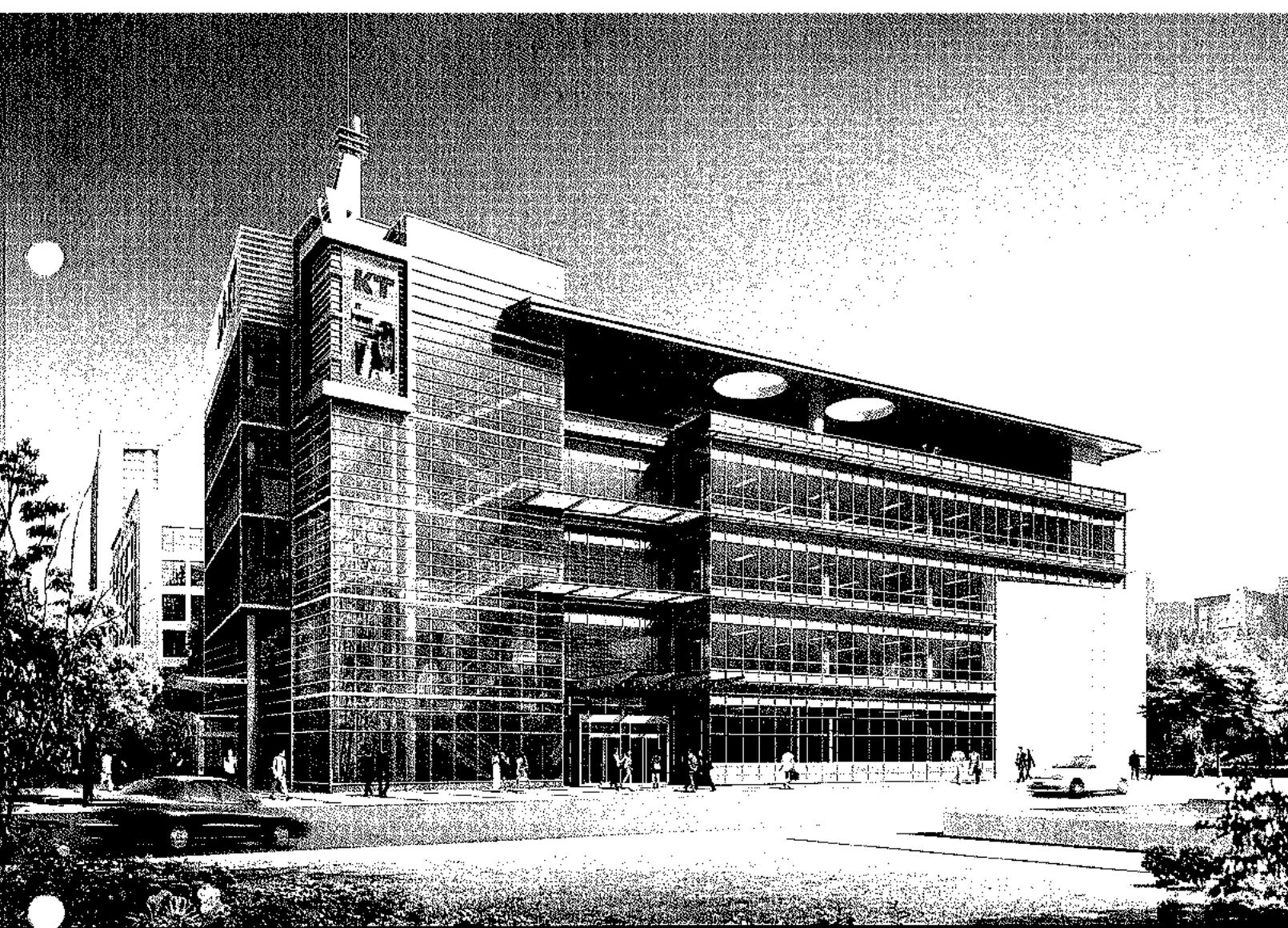
- Vitruvius의 10書 -

이 글을 건축적 방법이나 수완의 나열등으로 끌고가고 싶지는 않다. 우리 건축사誌도 이제 그 대상이 건축인에만 더물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 넓은 영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건물이 예술의 한 축임을 일반인에게도 인지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글은 건축적 어휘나 방법등으로만 채워지지 말고 과학, 회화, 음악, 법률, 철학등의 순수예술이나 인문학과의 긴밀한 접목을 필요로한다.

건축행위를 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규명하기는 건축은 개인적이고 예술적이며 철학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표현하고 있다. 건축의 역사와 전통은 건축설계 행위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답의 추구일뿐만 아니라 사회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적인 표현으로서의 가치와 미래를 향한 철학적인 제언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 이정만교수 건축설계학 -

필자는 이 글에서 건축사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이러한 글들의 인용이 우리 건축사지의 향후의 편집



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말미에가서 최근 작품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간략히 피력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하는 것이다. 즉, 「작품은 본인이 읽어라」라는 메시지를 띠우면서...

시대의 흐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유와 향유는 과거보다 그 상황을 훨씬 더 퇴보시킬뿐이다.

제2의 IMF를 맞고 있다는 요즘, 우리 사회는 땀흘리지 않은 노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일련의 사건들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물어서 투쟁을 해야만 살아남 수 있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势와 제도의 개선없이 무리한 요구라고 말하는 使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결국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걸 알면서도 막무가내식이 되어버렸다. 서로가 내세우는 권리에 따른 책임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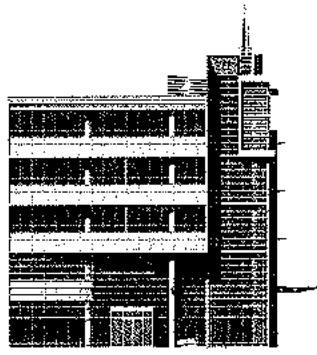
우리는 스티븐 코비의 승/승(Win/Win)적 사고를 가져야한다.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두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

듬길이라는 걸 알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계속해서 발생되는 갈등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이다. 더 이상 피해자는 없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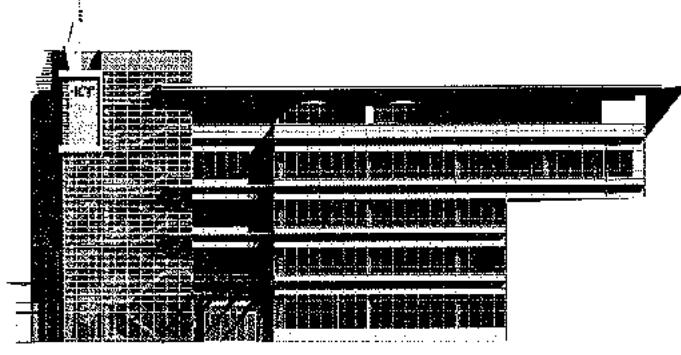
Don't give up. Never

필자가 강의나 혹은 강연시 자주 인용하는 문구며 내가 좋아하는 어휘이다. 그래 너는 절대로 포기를 안한다. 아주 부득이 한 경우 다음을 기약한다. 포기하는 것과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을지 몰라도 실상은 전혀 다르다.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가능성은 넘겨두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건축을 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잘못친 이유로 건축을 만났고 그 후 현재까지 나는 Happy하다. 물론 과정 속에서의 힘들고 어려움을 어찌 이 한두줄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만은 속내를 보이지 않는 우리내 심성이니 일듯이 각지가 해아려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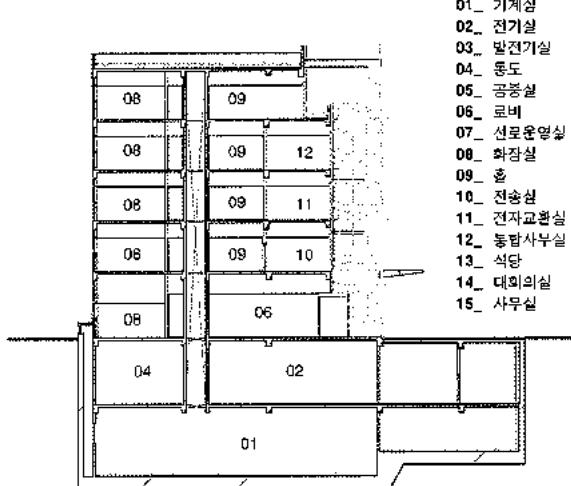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최근에 있었던 KT(한국통신) 설계경기다. 우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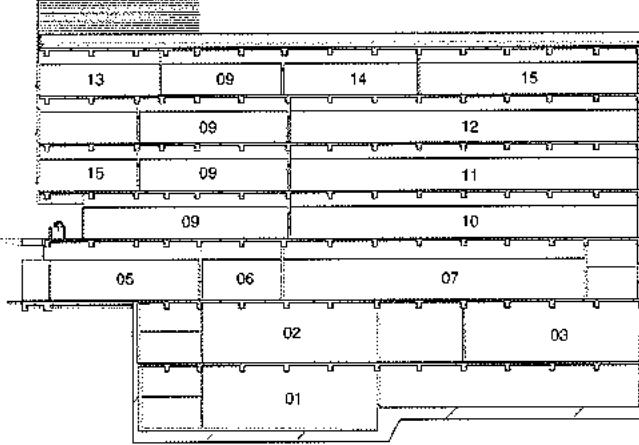


우측면도



- 01_ 기계실
- 02_ 전기실
- 03_ 발전기실
- 04_ 통도
- 05_ 공용설
- 06_ 로비
- 07_ 선로운영실
- 08_ 회장실
- 09_ 홀
- 10_ 전송실
- 11_ 전자교환실
- 12_ 동별사무실
- 13_ 식당
- 14_ 대회의실
- 15_ 사무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리는 올해 두 번의 실패를 맛본 후 의기소침해 있었고, 흥분해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필자에게 절대적 강요를 요구했다. 다행히 발주처에서의 관심이 약간 동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현장답습차 대전에 실장과 나려가면서 많은 생각이 났다. 바로 직전에 정통부에서 발주한 설계경기에서 1등을 한 직후라 약간의 여유는 있었지만, 그건그거고 이건이거가 아닌가. 이번도 안되면 연3번씩이나... 아찔했다.

경기조건은 기존 기계동 등은 존치시키고 부속 건물은 철거하여 그 부지에 새 전화국을 증축하는 것이었다. 기존 전화국을 어떻게 뜯느냐가 관건이었다. 우리는 현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향후에 기존 기계동의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현재 짓는 건물과 향후 지어질 건물과의 양면성을 우선했다. 결론적으로 심의결과 터작품들은 현기준 건물이 철거됨을 전제로 계획들 이 이루어져 향후 증축에 대한 배려가 소홀이 계획되었다.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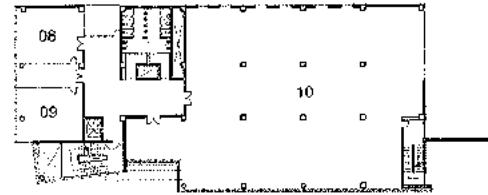
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발주처에 가변성을 제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현재같은 좋은 결과를 얻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고있다.

디자인의 과정에서의 내 스타일은 마취인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샘물을 솟아나게 하기 위해 가능한한 초기안 구상에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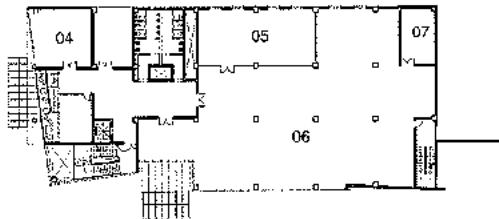
기존 건물과의 조화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극복해야 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두 개의 시안이 나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개의 시안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 단계를 넘어야 했다.

주차장을 지하2층으로 만들고 나니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지침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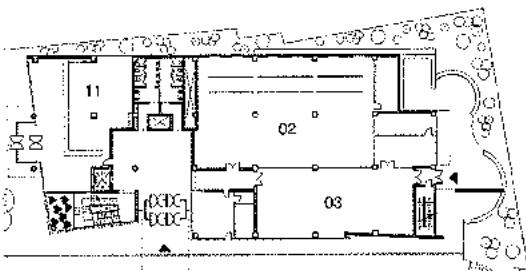
전화국의 기능상 예전에는 꽤 넓은 공중영업실을 필요로 했지만 근래에는 그 영업실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대전지사 역시 1층의 영업실 지침 면적이 생각보다 적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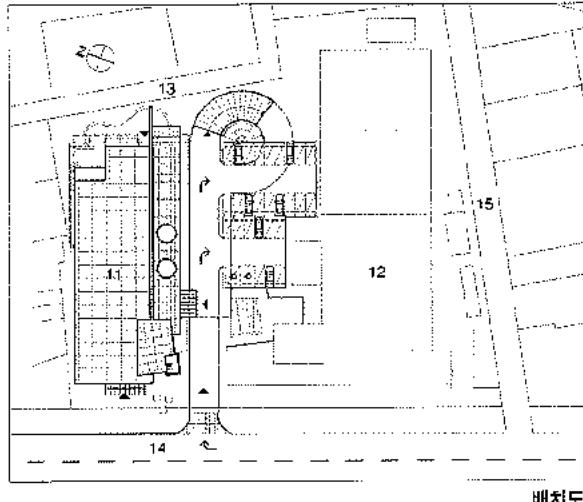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 | | |
|----------------|------------|
| 01_ 영업장, 공중실 | 11_ 통축건물 |
| 02_ 선로운영실 | 12_ 기준기록 |
| 03_ 케이블운영실 | 13_ 4m도로 |
| 04_ 사무실 | 14_ 24m 노로 |
| 05_ 정류기 및 축전지실 | 15_ 6m 도로 |
| 06_ 전송실 | |
| 07_ 공조실 | |
| 08_ 소회의실 | |
| 09_ 지사장실 | |
| 10_ 통합사무실 | |

로족에 빗 자른 방향축을 설정, 가능한 최대의 면적을 이용하여 넓어진 홀로 정면성을 부여했다. 전면은 Echo Booth로 침략하고 생동감 있는 환경을 연출하고, 최상층의 식당과 대회 의실의 연계로 공간적 합일을 이루었다. 또한 전면의 작은 아뜨리움에 골고 푸른 이미지를 주는 대나무를 심어 전화국사가 갖는 경직된 외관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아쉬운점은 1층의 Lobby를 개방감 있게 못했다는 것이다. 스텝들과 여러번의 대 스커션 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으로 채택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물의 전체적 볼륨을 키우기 위해 횡금분할적인 매스 형태미를 이용하여 육상층에 그릴가벽을 세웠다.

이제 남쪽의 외관이 남았다. 전화국사의 기능상 2,3층(기계실 층)은 무창이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위해, 보는자와 보여지는 모습의 품요한 만족을 위해, 무창은 재고되어야만 했다.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빗자른 벽면이 3층까지 일부에 적용됐다. 주 현관면 상부는 절개됐고 차양은 내밀어졌다.

이제 하나가 남았다. 일부분이 Setback된 5층 대회의실 복도 면 외부 상부에 판을 씌웠다. 그리고 두개의 구멍을 뚫었다. 음과 양의 기가 그 Black Hall을 통과하면서 이 작업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것이 끝이었다. ┌

건축 개요

대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5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반 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밤화지구
대지 면적	7,348.00㎡
건축 면적	3,406.95㎡(증축 1,232.03㎡)
연면적	14,637.99㎡(증축 8,262.33㎡)
건폐율	46.37%(증축 16.77%)
용적률	149.50%(증축 68.48%)
구조	지하 2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공간 클럽 - 04

Space and Rooms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 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시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립속의 공간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금지도

5회

- a. 중성의 공간
- b. 공간의 성격-공적공간
- c. 공간의 성격-장소성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위계
- c. 공간의 전이

7회

- a. 공간의 창조
- b. 기억나는 공간
- c. 쉬운 공간만들기
- d. 공간실험

8회

-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 b. 공간의 종류
- c. 공간의 극

9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비례

10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11회

- a. 공간속의 기둥
- b. 써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2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The Three Values of Space

공간의 가치에 대해 세속적으로는 평당 얼마라는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평당 가치는 그것을 팔려고 하거나 사려고 할 때만 문제가 될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에는 공간의 평당 가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집 한 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거주한다는 조건 내에서는 집값이 오르든 내린든 교환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공간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거주하고 있는 이 시간에 공간은 크게 3가지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존재와 관련해서는 공간이 나를 대신(나를 확대, 또는 표현)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솔츠는 노르웨이의 작가 타제이 베사스의 소설을 인용하면서, 집과 인간의 일체감에 대해 설명한다. 그의 소설에서 “너트, 너는 이제 집에 왔다”의 한 구절을 통해 인간이 집이라는 공간을 경외하고, 공간과 인간이 일체화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매우 편



그림 1. 숲여서...



그림 2. 집으로...

안한 어휘인 이 구절은 모두가 느끼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간은 그렇게 편하게 나와 관련을 갖는다.

나만이 갖는 공간은 그렇게 나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므로 가치를 갖는다. 그 공간이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공간은 내가 된다. 나를 안다는 것이 힘들지만, 나만이 차지하며, 나만이 누리며,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몸과 같이 내 몸 밖의 공간이지만 내 몸과 똑같이 나만이 차지하며, 나만이 누리며, 나만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일 것이다. 공간은 내 몸이 차지할 수 있도록 비워져 있기도 하지만, 내 몸 밖의 공간으로서 차지될 수 있도록 비워져 있기도 하다. 그것은 비워져 있음으로서 나를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습관을 만들고, 나의 취미를 키우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듯, 그 공간은 나의 습관을 표현하고 있고, 나의 취향에 맞춰져 있게 되며, 여러 가지 나의 활동을 담는다.

그것들은 전부 나의 몸에서 나오는 다른 모습의 하나인 셈이다.

나를 대신함으로서 가치를 갖는 공간은 가깝게는 내 방으로부터 내 집,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도시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계천의 복원은 나를 대신하는 확장된 영역의 도시에 대한 수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몸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듯 나의 도시를 그렇게 고쳐나가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내 방으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공간들이 제 가치를 갖고 나에게 적합성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겠다.

삶의 의미측면에서는 나에게 감동을 줌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나를 담으며, 나를 대신하고 있는 공간은 멈추어 있지 않으며 세계의 변화에 맞딱뜨리고 있다. 자궁 속 공간과 같이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시간 변화속에서 빛의 움직임이 있으며, 봄, 가을의 계절변화 속에서 단풍의 불그스름이 창밖을 아른거린다. 비오는 날의 축축함과 시원함이 있으며, 맑은 날의 깨끗함이 있다. 추운 겨울날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돌의 열기가 따스하며, 바람 부는 날에는 피부의 생동감이 나를 느끼게 해준다. 6월이면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고, 8월에는 짓푸른 소나무가 생동감을 드러내고, 10월이면 호박넝쿨에 누런 호박이 탐스럽게 열린다. 애미의 울음소리는 창가를 물리고, 까치의 지저귐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마을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는 그곳에 그대로 있음으로서 나의 지주가 된다.



그림 3 김동의 순간: 사진-Akira Taniguchi



그림 4 강동의 순간: 사진-Akira Tanigu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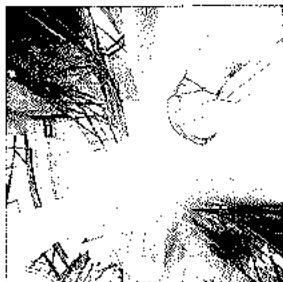


그림 5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



그림 6 외암관 영향대 안마당쪽 모습



그림 7 하버드건축 대학원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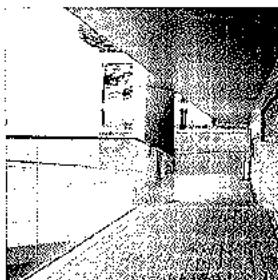


그림 8 안도다이오의 병화의 정원

공간에는 감동이 있다. 이것들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건축이 빛을 발한다. 놀라움, 신비로움, 포근함, 희열, 계절감, 발랄함, 시원함.....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답답함, 단조로움, 쓸쓸함, 삭막함, 침침함, 썰렁함, 어색함....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가치관이 혼동되는 세상에서 어떤 감동이 좋다고 언급하기는 힘들겠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면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 특이함으로 감동을 준다. 한복의 중정은 안온함을 준다. 라파엘 비뇰리의 동경포럼 건물의 아트리움은 장대함을 준다.

그러나 많은 감동이 공간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간주변에 의한 것일 때가 많다. 공간의 규모나 형태, 공간의 비례, 공간의 개구율, 공간의 관계 등등은 차선일 때가 많으며, 치경된 경치, 유입된 빛의 질감, 날씨, 온도와 습도, 공간속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등이 공간에서 감동을 일으키는 우선 요소일 때가 많다. 공간과 공간외적 요소, 어느 것 이 우선이라고 단정짓기 힘들기는 하지만 감동을 주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보다 잘 느끼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요구된다. 감동을 주기 위해 공간의 모양과 배열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의 위치나 창문의 모양과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건축가는 인간이 감동하게 되는 공간에 대

해 열심히 탐구하고 적절히 잘 활용하여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공간은 감동을 줌으로서 그 가치를 갖는다.

가장 실용적으로는 나를 지지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공간은 최종적으로 나의 소유이거나 나를 표현하거나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삶에 대해 언급한 Maslow 의 인간 요구에 대한 다섯 단계 중 4, 5단계에 해당된다. 그의 이론에 의한 1, 2, 3 단계의 공간의 가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단계는 성립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Maslow는 인간의 삶의 요구를 5 단계로 나눠 물리적 요구, 안전에 대한 요구, 소속에 대한 요구, 사랑의 요구, 존경의 요구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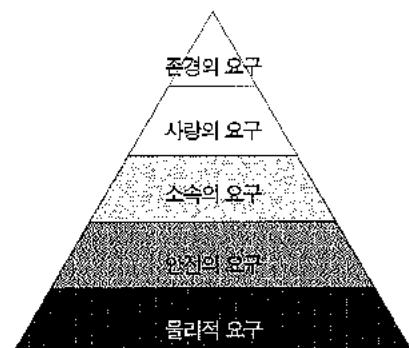


그림 9 마슬로우의 인간의 요구5단계

이러한 요구를 건축공간에 대응하여 보면, 첫째로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피난처로서의 요구이다. 비와 눈, 바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의 역할이다. 아무리 비싸게 지은 건물도 비가 새고 있다면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인간의 생활 행위와 관련한 기능성의 요구이다.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불편함이 다른 가치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필요한 곳에 계단이 없고, 돌아서 가야만 하는 문과, 엉뚱한 위치에 놓인 전등 스위치들은 생활행위를 불편하게 하면서 공간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셋째는 인간의 생활방식과 관계한 문화적 요구이다. 아파트에서 거실의 위치는 동서양이 다르다. 학교와 사무실은 공간의 배열방식이 다르다. 소규모 사무공간과 대규모 사무 공간은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 사장과 사무원의 공간은 크기나 공간의 관계 형식이 다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생활방식을 지지하는 공간의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될 때, 인간의 요구가 공간으로 수용되어졌다고 판단된다. 공간의 기본적 역할들이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은 나를 지지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나는 나를 느끼도록 하는 공간의 감동을 찾고, 나와 일체가 되는 공간을 소유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공간은 궁극적으로는 나와 같게 됨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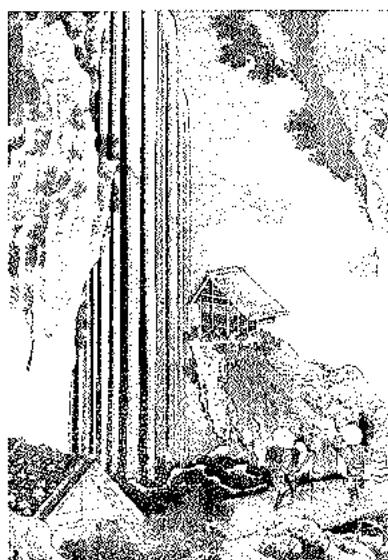


그림 10 농노암의 소그innacle
그림 : 호구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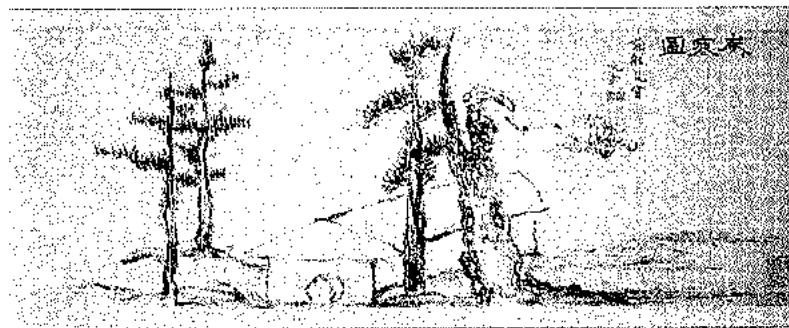


그림 11 김정희의 서한도에 보이는 허름한 집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공간에서도 나와 일체가 되는 공간을 찾기도 한다. 비가 내리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공간 내부에서 비를 느낄 수 있으니 좋다고 하고, 돌아가는 문을 보고 여유가 있어서 좋다고 하고, 위계가 없는 업무공간을 평등하다고 인정해 버린다면, 미술로우의 인간요구 1, 2, 3단계는 이론적으로만 맞는 허상이며, 결국 인간에게는 그 자신과 일치된 공간에 대해서만 최선의 공간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대적 공간에 대한 막연함이 궁극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건축공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달성해야하는가를 어렵게 하는 인간의 비과학적 속성이다.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Logical Approach to Space

공간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공간으로부터 감동을 받거나 실존적, 예술적 가치에 대해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리”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속성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공간의 절대적 가치를 공간과 자신의 일체로서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타인과 쉽게 공유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나와 타인의 차이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 차이점으로부터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복원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 시도의 하나가 ‘논리’라는 관계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논리가 우선이며, 인간활동과 제약은 논리를 바탕으로하고, 사회적 업무와 조직은 논리를 기준으로 일어난다. 공장의 생산품은 화학 반응이라는 논리적 단계를 거쳐 생산되거나 조립의 논리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일찍이 Hillier는 인간의 사회조직과 활동이 논리적인 질서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건축공간도 논리적인 조직으로 이해

되고 표현되어야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생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Hillier는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회생활과 관련되며, 사회는 질서에 의해 유지되고 이해되므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질서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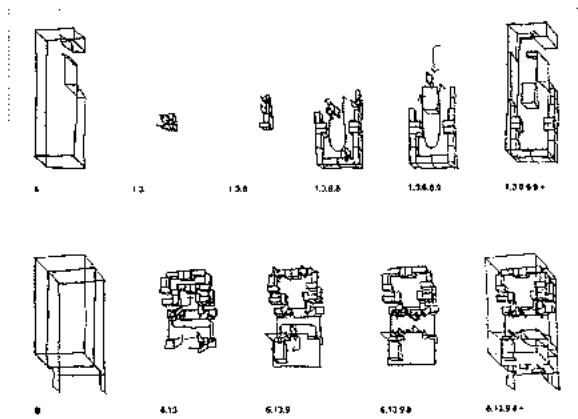


그림 12 사무공간의 조직 다이아그램

그는 space syntax라는 공간구문론을 만들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공간속에 숨겨진 사회활동의 공간적 질서를 표현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었다. 공간의 관계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해석해내려는 그의 시도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조직의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유익하다. 그것은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성이 증대되면서 보다 진화된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조직으로 건축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Steadman은 Frank Lloyd Wright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택을 똑같은 논리 다이아그램으로 분석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 주택들은 모두 다른 경험을 만들어낸다. 논리상으로는 같은 지점이지만 공간의 경험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경험과 미적 효과가 다른 주택들을 똑같은 다이아그램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라이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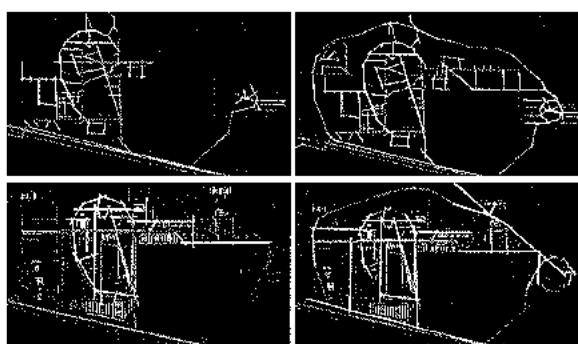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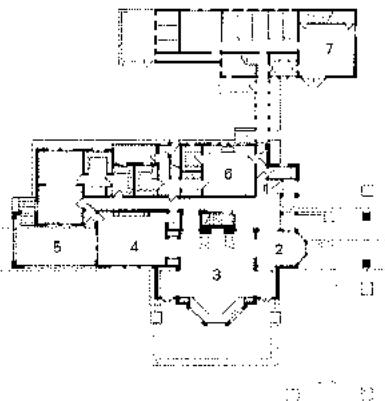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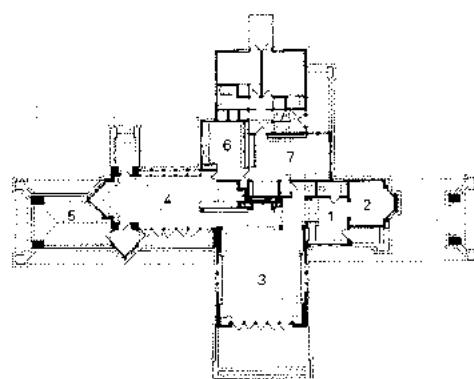


그림 13 space syntax 다이아그램의 한 예

설계한 주택의 논리적 공간조직이 동일할 수는 있으나, 각각의 주택들은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다른 집이다. 그것을 같은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1. 입구
- 2. 충첩실
- 3. 거실
- 4. 셀랑
- 5. 포치
- 6-7. 부엌 및 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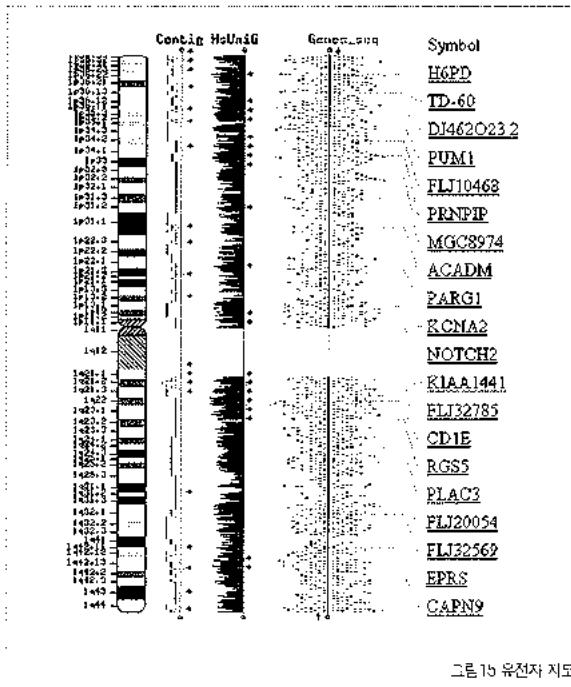
B. Harley Bradley house(상), Ward W. Willits houses(하)
공간조직상으로는 유사한 질서를 갖지만 공간의 경험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4 B.O 는의 주택평면

여러 가지 한계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논리적 체계로 분석해야하는 이유는 논리의 설명력을 논리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의 영역에 대응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 공간과는 다른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차이만점이나 표현의 의미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c. 공간지놈지도

Space Genome Project



2000년 6월 인체 지놈의 초안이 완성 발표되었다. 지놈은 원어로 gene과 some의 합성어로서 '유전자'와 '어떤 형체'의 합성이 되어 유전체로 해석된다. 인체 지놈(유전체)은 인간의 유전정보의 한 세트를 말하며, '인간의 설계도'라고 불린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10만개로서 30억개 정도의 염기배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체 지놈에 담겨있는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지놈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지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놈 지도 없이는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을 정확히 배열하지 못할 것이며, 생물종 사이의 방대한 유전정보를 서로 대응시키는데 있어서도 유전자 지도는 필수적이다.

인간지놈지도의 완성은 인간의 유전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각종 모습과의 상관성을 밝혀내고, 인간에게 발생되는 병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해석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장수, 건강에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30억개의 유전자 배열이 각각 어떠한 인간의 모습과 상관되고, 어떤 질병과 연관되는지를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가 나온다면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에 의한 이상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도 하다.

인간지놈지도는 인간의 실체와 건강, 장수의 비밀에 대한 요소적 접근의 승리를 뜻한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실체, 또는 존엄한 대상으로서의 인간은 요소들의 결합에 의한 결과물로 전락하고 마는 상황처럼 보여진다. 인간과 환경, 지구와 우주의 종합적 연계성이 논의되기 보다는 요소에 의해 해석되고 관련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는 지놈지도의 변형에 의해 새로운 종의 인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공간지놈지도는 공간을 분석, 해체하는 과정이 된다. 몇 개의 유전적 요소가 건축공간을 생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결합방식을 파악함으로서 30억 개에 달할지도 모르겠지만 공간지놈지도를 그려내고, 궁극적으로는 공간과 인간의 상관성에 대한 1:1 대응의 논리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간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이며 관념적인 또는 심리적인 여러가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요소적 접근에 의한 상관요소의 추출은 인간지놈지도의 의미처럼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요소로 해체된 공간정보는 요소변형에 의해 이형공간의 생성이 무한 발전할 것이며, 공간의 결합방식 자체를 조정하여, 공간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다르게 치환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지놈지도의 완성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적을 뿐더러, 30억 개에 달할지도 모르는 공간의 정보를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인간의 생명에 대한 연구의 가치만큼 상응한 가치가 있을지- 그 작업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재료는 인간의 발명에 따라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의 재료가 바뀌면 다른 공간지놈의 쌍과 연관되는 지도가 무한에 가깝게 또다시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건축물에 대한 분류체계는 매우 단조롭다. 겨우 16개의 항목에 의해

구 분	내 용
F1	Compound spaces of building
F2	room
F3	Circulation spaces
F4	Building sub-spaces
F5	Internal spaces of building
F6	External spaces of building
F7	Building spaces by degree and type of enclosure
F8	Miscellaneous, other spaces
F9	Building spaces analysis

그림16 NBS의 공간정보 분류

건축물이 분류되며, 건축공간은 바닥과 벽과 천정이라는 3개 요소로 분류된다.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한 분류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이제 초보의 단계이다. Autocad, Microsoft 등의 업체가 참여하며, 영국 등 10개국의 나라가 참여하는 건축 정보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표준화 방식이 정착되면, 그 방식에 따라 건축관련 프로그램(건축공간 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식을 따라야만 국제적 호환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공간지금지도처럼 공간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공간의 실체가 요소로 분해됨으로서 요소에 대한 변형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요소변형에 의한 다양한 공간의 생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크 게리의 휠공간도 결과물로 본다면 휠공간이지만 공간지금지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벽이라는 요소에 대해 직선화 되지 않는 가능성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렉 린의 절편화된 공간은 결과물로 본다면 절편화된 공간이지만 공간지금지도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닥, 벽, 천정이라는 요소가 선이라는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미분적 시각이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요소중심 주의

의 폐해를 예측하게 하지만,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새로운 공간의 창조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요소 변형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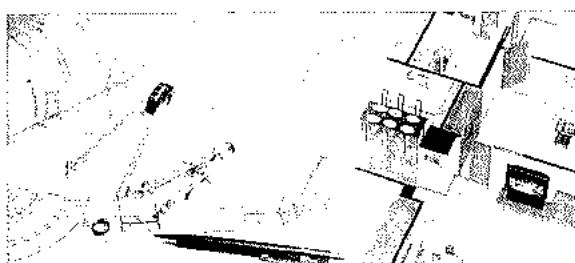


그림 16 똑같은 요소의 빙복을 보여주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간지금 지도는 과거 건축계의 대가들이 설계한 건물을 해석해냄으로서 그러한 공간의 무한 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스의 평면이나 르고르비제의 주택이 똑같이 우리나라에 지어질 수 있을 것이며, 몇가지 요소를 바꾼다면 현대적으로 변형된 르고르비제의 주택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소의 결합에 의해 미스와 고르비제의 특성을 함께 가진 주택의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델하우스의 스펙이 100번, 1000번 씩 반복하여 적용되는 모습은 이미 우리의 주변이 요소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실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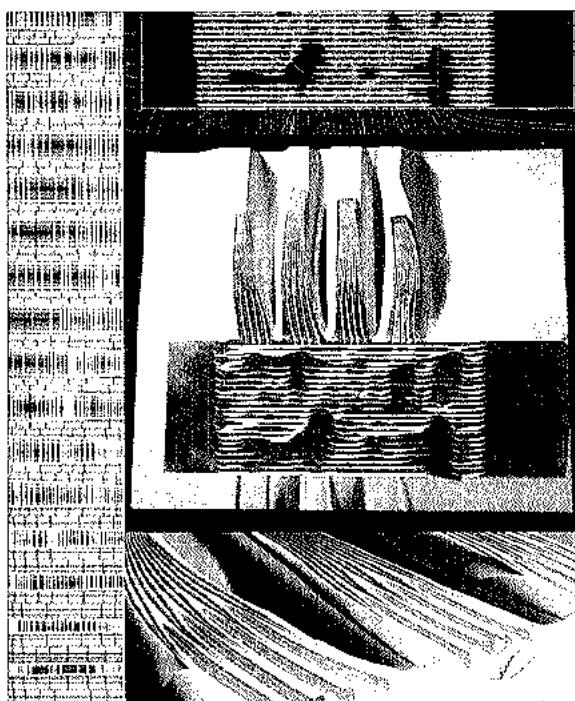


그림 17 절편화 시킨 공간

「선계획-후개발」 정책과 도시 · 건축행정의 변화

Pre-Planning Development Policy and the Changes in Urban Architectural Management

윤혁경 / 서울시 시설서기관

by Yoon Hyuk-Kyung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80년대 90년대의 「개발제일주의」 시대를 잊지 못하는 것 같다. 나라 경제가 1997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건축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장치(특히 개발의욕을 저하시키는 용적률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필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용인 난개발, 과도한 재개발 · 재건축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도시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얻게 된다. 그 결과 정부가 「선계획-후개발」정책을 선언하게 된다. 그렇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 국토 · 도시 · 주택법령의 통합 개편

정부는 최근 국토 · 도시 · 주택 관련법령의 통 · 폐합을 거쳐, 「선계획-후개발」정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법명조차 생소하다. 이를 법령은 서로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잘 뛰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구 법		신 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토기본법(2003. 1. 1)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 1)
도시계획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7. 1)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	주택법(2003. 11. 30)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 제외)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체제의 전면 개편

지난 2000년 7월, 건축법에 있던 용적률·건폐율·용도제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 친화적인 개발」 그리고 「선계획-후개발」을 도시관리정책으로 선언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추진, 용적률의 하향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의 확대,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 새로 도입된 제도로 말미암아 건축업계는 이미 상당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 국토기본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으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과 지침제시 기능이 미흡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 '국토기본법'을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도입한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년 1월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이 법은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하여 관리지역(전국토의 27%)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중 계획관리지역에만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선계획-후개발」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용량에 따라 개발의 규모를 조정하는 소위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등 개발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나의 법령체계로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것도 철저히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으로 개편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재건축사업도 철저하게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의 원칙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로 인한 재

건축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 주택법

2003년 11월 30일 시행되는 "주택법"에서 도 난개발 방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 철거재건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폐지하고 "주택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선계획-후개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

2002년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전처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펴지 않아도 될 여유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압력도 만만찮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Agenda 21」,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도 이에 가입하고 「의제 21」을 선언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용량을 감안해서 적정인구를 유지시키고,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과도한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밝히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내건 「세계기후 협약」도 우리에게 멀리 안가서 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선계획-후개발」이 없었다는 말인가? 물론 계획은 없지 않았다. 용도지역·지구를 나누고, 세분하는 계획, 도로·공원·시장·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의 바탕 속에 개발을 허용하였던 점에서는 계획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이지 않는 포괄적인(macro) 계획만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은 해당 필지에 대한 상세한(micro) 컨트롤은 가능하게 할지 모르지만 일정한 지역적인 문제나 국지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중 간단계(meso)의 새로운 계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도입한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환경성 평가, 기반시설연동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등이 그것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따로 정한 바는

없지만 대개 1만㎡ 이상, 몇십만㎡ 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기존의 용도지역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한 관리지역안에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신설되었고,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구역도 확대했다.

관리지역의 세분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로·공원·학교 등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개발단위를 30만㎡로 정함으로 과거 난개발 양태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그만큼 개발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 기반시설연동제

개발규모를 제한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확보하는 제도를 기반시설연동제라 하는데, 기준 시가지 안에서 도저히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개발용적률을 1/2 범위 안에서 규제할 수 있고(개발밀도관리구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안에서는 개발은 허용하되, 그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어느 쪽이 되든지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계획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 시행으로 인한 환경부하요인(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성 검토제도가 2000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환경성 검토를 하다보면 개발규모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해당 도시안의 개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정비사업의 개략적 범위·단계별 추진 계획·토지이용계획·용적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개별 사업은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번의 계획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으리라 본다.

▷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다. 변해도 너무 변해서 탈이다. 한 두 개의 법률만 이해하면 되는 시대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변해버렸다. 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규제, 이 변화에 순응하느냐 도태되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이러한 때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

건축계소식 / 79

현상설계 / 86

해외잡지동향 / 102

건축계소식 archi-net

인천건축사회, 2003년도 장학금 전달식

지난 8월 19일



우리협회 인천건축사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화) 인천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소재 각급 학교 건축과 학생 백승원(인천대 건축공학과 3년) 등 8명에게 대학생 150만원, 전문대생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총 7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백승원(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3년), 조은영(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송용철(인천전문대학 건축과 2년), 권영미(인하전문대학 건축과 1년), 황대연(대현공고 건축과 3년), 이형주(인천기계공고 건축과 2년), 박정규(운봉공고 건축과 2년), 장두리(부평여자공고 건축과 2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9월 20일 한양대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문화재 보수공사의 철학과 기술 을 주제로

건축역사학회에서 9월 월례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 보수공사의 철학과 기술'을 주제로 오는 9월 20일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건축역사학회에서는 근래에 이루어지는 건축문화재 보수공사는 첨단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전통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근대적 개념의 공정관리, 이에 따른 경비절감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이 반드시 긍정적인가?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이 혹시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가?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간파하고 있는 문화재보수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화재 보수공사의 철학이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발표는 먼저 최종덕(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과장이 경복궁 복원을 대상으로 복원의 의미, 문화재 보존, 수리, 기술축적 등을 살펴보고, 조인숙(다리건축)건축사가 뚝밀의 사례(순례교회 비스(Die Wies) 수리(修理))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문화재 수리공사의 특성과 실태, 한국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김란기씨가 근대건축들의 보존처리기술과 기술보존, 시공과정 등을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토론은 이춘근(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장), 박경립(강원대 건축학부 교수), 김덕문(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석탑 책임조사원)씨 등이 참여한다. 진행은 목원대학교 이왕기교수가 맡는다.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강연회

'수원화성의 보전과 회복'을 주제로

(사)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주최로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주간 강연회가 열린다.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건축의 기본 내용 및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된 이번 강연회는 김동훈(진우건축), 손제석(지성건축), 이천복(다디건축), 안경화(수원대 교수), 이순희(안산1대학 교수), 양재호(동서울대 교수), 김진성(화인건축), 신호근(넥스트건축)씨 등이 '수원화성의 보전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이번 강연회의 강사로 참여하는 김동훈(진우건축) 건축사는 지난 8월 22일 홍익대에서 '수원화성경내의 보전과 회복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문의: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031-214-8800 www.jwa.co.kr

2003 KIBEX 국제세미나 주제 및 세부 일정안 확정

'미래를 향한 도시건축-초고층
주거복합빌딩'을 주제로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전문 박람회를 지향하며 올해로 4회를 맞는 KIBEX2003-국제건축박람회의 사무국은 참가업체 부스 배정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행사기간동안 개최되는 2003 KIBEX 국제세미나의 주제와 세부 일정안을 확정했다.

한국FM학회 리노베이션위원회와 키비스 국제건축박람회 공동주관으로 진행될 2003 KIBEX 국제세미나의 주제는 '미래를 향한 도시건축-초고층 주

거복합빌딩'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 2층에 위치한 국제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초고층 주거복합빌딩 시공에 필요한 공조 및 환기시스템, 외장시스템, 창호시스템, 건식벽체, Home Automatic&보안시스템, 초고층 엘리베이터 및 주차설비, 초고층 주거복합빌딩 시공 신기술등의 각 분야의 선두 업체들이 직접 그 구체적 사례와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내외 업계의 전문 업체들과 학계의 전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KIBEX2003-국제건축박람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 (SETEC)에서 개최되며, KIBEX2003-국제건축박람회 및 국제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ibex.com를 방문하거나, 박람회 사무국(전화: 02-708-4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양대, 제1회 세계 건축 석학 연속 강좌

이탈리아 건축가 '프랑코 푸리니' 와
'베르나르도 세키' 초청

한양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세계 건축석학 강좌 시리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20일(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서울역사박물관강당)과 22일(한양대중합기술연구원)에 그 첫 번째로 이탈리아 건축가 프랑코 푸리니(Franco Purini)와 베르나르도 세키(Bernardo Seocchi)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다. 프랑코 푸리니는 '이탈리아 건축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건축의 시공간적 정체성과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베르나르도 세기는 이탈리아 도시 건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파편과 확산의 징후들에 대한 논의와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문의: 02-2290-0300



한옥문화원, 가을 강좌 개최

아파트를 한옥처럼 / 신한양유람3

한옥문화원은 가을을 맞아 9월 25일부터 '아파트를 한옥처럼'과 '신한양유람3' 두 가지 강좌를 마련했다. '아파트를 한옥처럼'은 주도적인 주거공간이 되어버린 아파트에 한옥의 그리움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강좌이며, '신한양유람3'은 올해로 세 번째 강좌로 한양답사를 통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양을 되새기는 의의를 갖는다.

참조: hanok@hanok.org
urihanok@hanmail.net

<아파트를 한옥처럼>

- 강좌일정(매주 목요일 오후 2시, 4시 10분)

- 9월 25일: 아파트의 21세기(신영훈)
 - 10월 2일: 한국의 색과 무늬(이병찬)
 - 한국의 가구(임영주)
 - 10월 9일: 한국 방안의 소품들(임영주)
 - 한옥과 그림(한상봉)
 - 10월 16일: 문과 창호(심용식)
 - 10월 23일: 한지의 이해(오성남)
 - 10월 30일: 한지 바르기(고수익)
 어떤 재료를 써야 하나(홍동화)
 - 11월 6일: 생활 속의 작은 멋(이병찬)
 명품 한복 김상(김대벽)

〈신한양유람3〉

- 강좌일정(매주 토요일 10시, 한옥문화원 강의실)
 - 9월 27일: 동궐도를 통하여 보는 삼 이 있던 시절의 모습
 - 10월 4일: 창덕궁
 - 10월 11일: 조선의 교량
 - 10월 18일: 살곶이 다리, 수표교
 - 10월 25일: 학교
 - 11월 1일: 양천향교
 - 11월 8일: 한강 박제의 터전과 그 자취
 - 11월 15일: 풍납리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
 - 11월 22일: 봉원사와 남녀근석
 - 11월 29일: 한규설 대감댁
 - 12월 6일: 항양성의 변천사
 - 강사: 신영훈(한옥문화원장), 최래옥(한양대 국문과 교수), 이장렬(창덕궁 소장)

한겨레 생태건축학교

9월 17일부터

한겨레문화센터는 생태주의 실현의 목적으로 9월 17일부터 내년 2월 25일 까지 신촌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생태건축학교를 연다. 12기를 맞는 이번 강좌는 생태건축의 대중화에 중점을 두어 온 이전의 과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매주 건축사를 초청, 강연한다. 기초과정은 생태건축의 기본적 흐름 등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한 학습기간이며 9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12회 강의, 답사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에서 학습한 생태건축의 대표적 기본 요소를 현장성 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12월 17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문인·학자·문학세계

02-3272-7575

www.hanter21.co.kr

미국 팬실비니아대, 「민현식 ·
승희상 초대전」 개최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폐식비는 100대 페미아스홀에서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추진해온 동아시아 근, 현대 건축의 다양한 양상을 주제별로 소개하고자 하는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민현식, 승효상 두 건축가의 초대전이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메이어슨홀(전시회 9월 29일부터 10월 10일, 강연회 및 리셉션 9월 29일)에서 열린다.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건축학과 단과대학(The School of

Design), 한국학 연구소, 그리고 한국 문학예술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두 작가의 공통적인 건축적 화두인 ‘비어있음 (emptiness)’에 대한 성찰과 그 관련작품들을 소개한다. 펜실베니아 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이어서 프린스턴대학(Princeton University)(2003년 10월 1일)에서도 특강이 있다.

- 전시제목 : Structuring Emptiness
: Modernity in Korean Architecture, The Works of Hyun-Sik Min and H-Sang Seung

-전시 및 특강주제 : Making Emptiness, ethics over aesthetics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장), Urban Void(승효상, 이로재대표)

- 전시일정 : 2003년 9월 29일 - 10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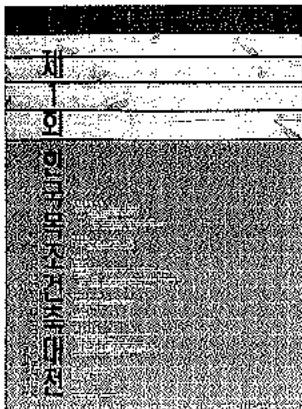
-전시장소 : Upper Gallery,
Meyerson Hall, University of
Pennsylvania

- 특강일정 : 2003년 9월 29일 6시
(Room B1, Meyerson Hall,
University of Pennsylvania)

-문의 : 이재준 팀장 (IROJE
architects & planners)
T. 82-2-763-2010
F. 82-2-745-3606
master@iroje.com

제1회 한국목조건축대전

10월 31일까지 접수



(사)목재문화포럼과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이 2003년 8월 31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응모자격은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로서 출품 건축물의 관련 서류상(건축물대장 등)에 명시되어 있는 자이며, 응모대상은 목조건축물부문(주거부문, 비주거부문)과 목조옥외시설물 부문이다. 신청접수는 10월 31일(금)까지이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5층 목재문화포럼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원정수(인하대 명예교수, 간접건축 고문), 김낙중(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김병현(창조건축

정림포럼

- 주제: OMA건축사사무소 업무의 확장 AMO네트워크 실천을 위한 Think Tank
- 강연자: 신승수+조임식(네덜란드 베를라해 건축대학원)
- 일시: 9월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정림사옥 1층 정림갤러리
- 문의: www.junglim.co.kr/
www.archious.com

대표), 김진희(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 센터 소장), 이전제(서울대 임상공학과 교수)씨 등이 맡는다. 수상발표와 시상식은 11월 중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508-5106
www.wooddesign.or.kr

헤이리 페스티벌 2003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내 15만평의 대지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문화예술마을 헤이리가 '자연과 예술'을 주제로 10월 3일부터 19일까지 '헤이리 페스티벌 200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 속의 미술', '풍경 속의 미술' 등의 미술전시프로그램을 비롯해 '헤이리 건축전-마이크로폴리스Ⅱ', 공연프로젝트 '국·소리·움직임', 헤이리 오픈 스튜디오, 어린이 예술체험마당, 헤이리 아트마켓, 헤이리 시네마 등 총 8개 프로젝트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의: 031-946-8551
www.heyri.net

200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쓰임(use, 用)' 주제로 10월 19일까지

200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쓰임(use, 用)'을 주제로 열릴 이번 행사는 종전의 순수

미술 중심의 좌대 전시에서 벗어나 예술적 가치와 도구적 용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공예 예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생활공간과 밀착한 공예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주요행사로는 제3회 청주국제공모전과 더불어 국제초대작가전인 '쓰임의 재발견'과 '생활공예명품전'이 있다.

문의: 043-277-2503
www.cheongjubiennale.or.kr

빛의 대축제 부천 루미나리에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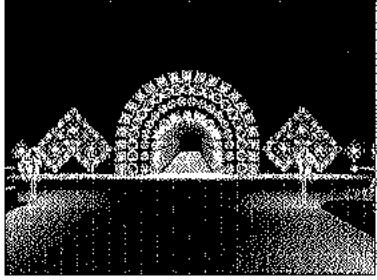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서

'빛의 대축제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가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빛의 축제가 펼쳐질 이번 행사는 '400년 전 르네상스의 빛을 한국에서 만난다'는 주제로 (주)엠 앤 엠 코리아와 예술그룹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16세기 후반 남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성자를 기리는 의식'에서 비롯된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건축양식과 무늬를 본뜬 입체적 목조 건축물에 조명 등으로 장식한 삼차원적인 공간예술이며 조명예술 축제이다. 현재는 이탈리아 전역을 비롯 독일, 스페인, 미국에서 축제의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10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밤을 밝히는 축제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올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행사는 복사꽃 세레나데(60미터의 심플한 갤러리와 facade, 마름모 형태의 spalliera로 구성된 경쾌하고 낭만적인 빛의 터널), 르네상스의 빛(콜로세움 형태의 원형 조형물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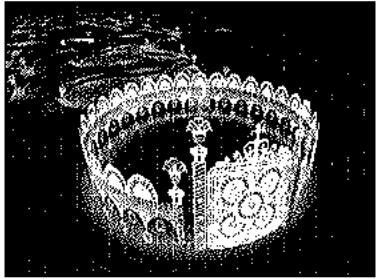
이 20미터로 설치돼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광장), 평화를 향한 기원(높이 24미터, 폭 40미터, 100미터 길이의 갤러리아가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공간), 빛의 호수(호수를 따라 설치된 40여개의 조형물이 호수의 물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산책공간)의 4가지 테마로 환상적인 장관을 통한 시각적인 즐거움은 물론 빛이 주는 경건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마당이 될 것이다. 개막식은 10월 1일이며, 일몰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02-2276-0289

www.luminarie.or.kr



복사꽃 세레나데



트리닝스의 빛



평화를 향한 기원



빛의 호수

「드록 디자인」전

10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노 디자인(No Design), 노 스타일(No Style)을 주제로 열리는 「드록 디자인(Droog Design)」전이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드록 디자인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하는 유럽 디자이너 그룹으로 세계 디자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1993년 결성된 이래 이탈리아와 미국, 일본 등에서 독특한 주제로 반향을 일으킨 이들은 실험과 실제 제품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예술성과 사회적인 주제의식을 디자인에 반영시킨다. 이번 전시는 'Dry Tech(1995+1996)'로부터 'Hotel Droog(2002)'에 이르기까지 10년간의 작품을 프로젝트별로 총망라하여 드록 디자인과 우트레트 센트럴 뮤지엄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구, 도자기, 조명 등의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문의: 02-580-1539

www.designgallery.or.kr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0-7475 ·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099 ·
- 관악구건축사회/6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 구로구건축사회/684-5828 · 금천구건축사회/879-1588 ·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830-9720 ·
- 등대문구건축사회/987-8052 · 등작구건축사회/815-2026 · 미포구건축사회/333-676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3 · 성동구건축사회/292-5355 · 성북구건축사회/8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9-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경주광역시건축사회/(05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지역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8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성지역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8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387-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용인지역건축사회/(031)657-8149 · 오산건축사회/(031)376-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8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경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경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8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6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64 · 목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 충주시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노령지역건축사회/(041)5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사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5551 · 을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452-3815 · 능원지역건축사회/(063)531-2223 · 임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6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375 · 인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염천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8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243-603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해명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녕이 2000. 8. 경에 준공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한양종합기술연구원 건물의 실시설계를 함께 있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이강업 교수가 작성한 기본설계를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용하였음을 알립니다.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영
대표이사 박명화

신간안내

◇ 친환경도시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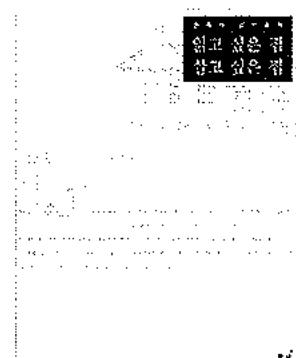
이 책은 해외 선진도시의 계획 및 사업을 정리하고 특히 선진 외국의 친환경적 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 시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제안하고 있다. 친환경 도시계획수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1)토지 이용 2)도시녹화 3)도시교통 4)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5)역사, 경관계획 6)주거계획 7)환경교육, 문화 8)행?재정 계획 9)에너지절약 및 리사이클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문별로 구체적인 선진사례를 기준문헌,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해 정리, 분석된 친환경 도시만들기 수법 및 시책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본 계획수립 등 도시 만들기에 있어 친환경·에너지절약형 도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절약형 도시시스템의 개념적 모델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정형·김주석 지음/208쪽/15,000원/
구미서관 발행(02-333-1101)

◇ 건축가 김억중의 읽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건축가 김억중이 쓴 '좋은 집을 읽기 위한 지침서'이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최상의 지혜이지만, 그 진면목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적다. 이 책은 집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며, 집에 대한 독자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1부에서는 '집 속의 공간미학'을 주제로 공간의 힘, 사유하는 눈, 집으로 가는 길 등 의 세부분으로 나뉘어 집을 이해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2부는 '집 읽기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주제로 손동만 가옥, 절두산 순교복자 기념 성당 및 박물관, 카사 비앙카의 세군데 현장을 토대로 설명한다. 방법론과 실천의 자세한 설명은 집을 이해하기에 쉬운 지름길로 유도해 주고 있다. 독자들이 껌데기 건축의 허상과 세태의 가벼운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집을 진정으로 꿈꿀 수 있는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집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김억중 지음 / 12,000원 / 도서출판 동녘
발행(02-358-6164)

◇ 아름다운 造景

산업화와 도시화로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조경의 역할이 산업화,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중요해지는 것이다. 경제개발 시대에 덮어버린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주변 환경과 이를 조성하는 조경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현재 도시의 비합리적 개발과 난개발 등 파괴된 자연 위에 다시 조경이 이루어지는 모순의 반복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존이 조경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강자 지음 / 25,000원 / 주택문화 발행

대관안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m²)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발산지구 아파트 / 86

반석초등학교 / 96

강동구청 별관 / 100

발산지구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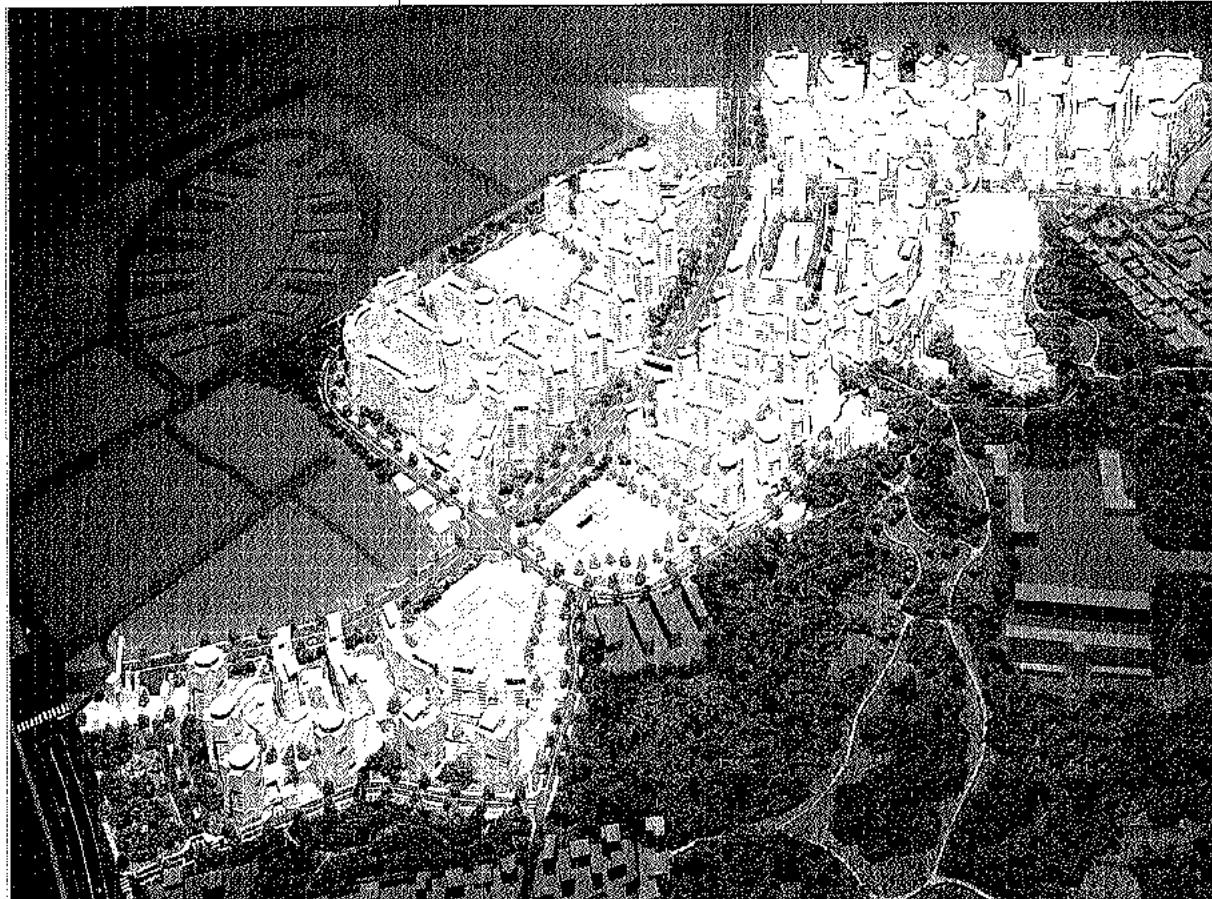
Balsan Apartment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인이다. 강서구 내·외발산동 일대 총 17만
7천 평에 8개 단지, 5,592세대가 들어선다.
2004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0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 최우수작 / 단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 강
서구 발산지구 미스터풀랜을 담당할 건축사
사무소로 (주)단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예
주건축사사무소를 선정됐다. 지난 6월 30
일 작품을 접수한 결과 18개 작품이 접수되
어 최우수로 당선된 업체는 각 지구의 마스
터풀랜의 계획설계를 맡게되며, 당선작을
포함하여 5위까지 입선한 업체는 지구내 블
록풀랜의 중간 및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최
우수작 외에 입선작은 (주)무영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안,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내외 발산동 일원
전용면적	361,470.107m ²
공용면적	105,177.152m ²
세대수	합계 5,592세대
	40m ² 841세대
	50m ² 1,122세대
	60m ² 1,402세대
	85m ² 2,227세대
주차대수	합계 6,409대(법정:6,172대) 지상 600대, 지하 5,809대
설계팀	총괄-최명철(단우), 김선재(예주) 장명희, 조영호, 서종환, 김연옥, 이승언, 최은석, 김경일, 박우만



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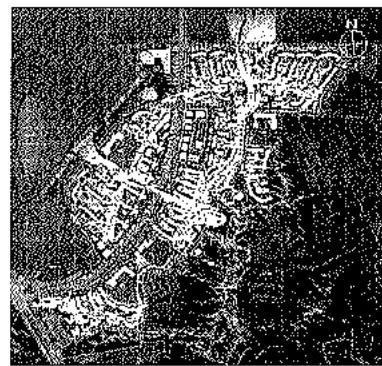
■ 환경친화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린 네트워크 구축
- 서울 외곽을 연결하는 환상 녹지네트워크
- 한강으로부터 남북 생태축 연결 (마곡천-소천-계획대상자-수면산)
- 개화산-수명산-우장산-매봉산 녹지 네트워크체계 연계
-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마을
- 자연보존지와 개발지의 조화
- 수명산자락 단지 내 수용 : 생태 이동 통로(ecobridge)연결
- 수명산 쪽으로 열린 주동 배치
- 비오톱(biotop) 및 친수 공간
- 기존 비오톱의 보존 및 연계 고려한 계획
- 기존 수로를 이용한 친수 공간 계획
- 에너지 절약
- 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계 활용

- 자연형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 인간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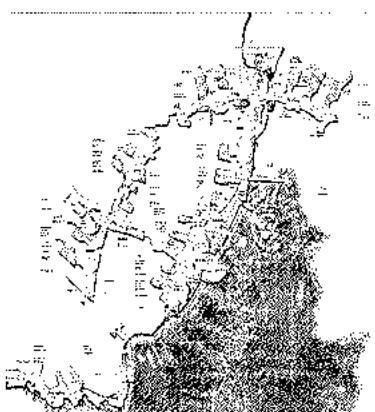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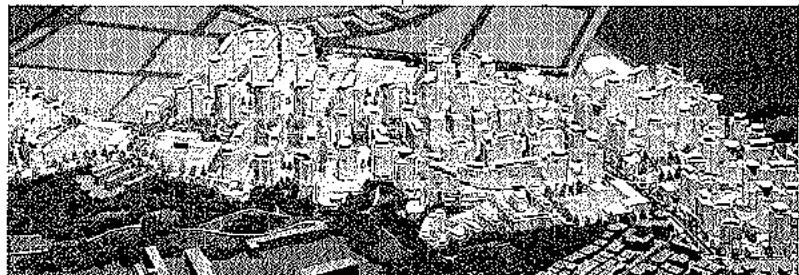
- 다양한 활동 및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자구중심 바리의 생태공원
- 단지 중심 공동 마당 조성
- 주민 참여형 생활 공간 조성 : 텃밭, 생태공원조성
- 사람, 정보, 문화의 긴밀한 네트워크
- 안전하고 쾌적한 외부 환경
-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
- 전체 외부공간을 보행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 자전거 네트워크체계 구축
- 보행네트워크 상에 부대 복리시설 배치
- 다양한 생활 양식과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주거 계획
- 재활용 가능한 가변형 주거(리모델링 고려) 도입



배치도

■ 경관친화

- 주변지역 및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수명산과 조화되며 개발예정인 마곡지구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조성
-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경관 계획
- 한강과 연계한 수 공간 형성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암면 계획
- 저층부 기단개념 및 고층부 다양한 지붕 개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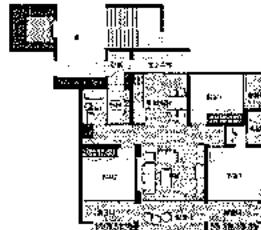
40㎡형



50㎡형



60㎡형



85㎡형

단위서사 평면도

▶ 입선작 / (주)무영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면적	229,400.00m ² (8개단지)
건축면적	35,310.94m ²
연면적	624,904.64m ²
지상연면적	488,835.39m ²
건폐율	15.39%
용적률	213.09%
세대수	합계 5,592세대 40m ² 841세대 50m ² 1,122세대 60m ² 1,431세대 85m ² 2,198세대
주차대수	합계 6,284대(법정:6,173대) 지상 1,039대 지하 5,245대

계획의 목표

- 風流(하늘의 맥) : 경관친화
- 水流(지형의 맥) : 환경친화
- 心流(마음의 맥) : 인간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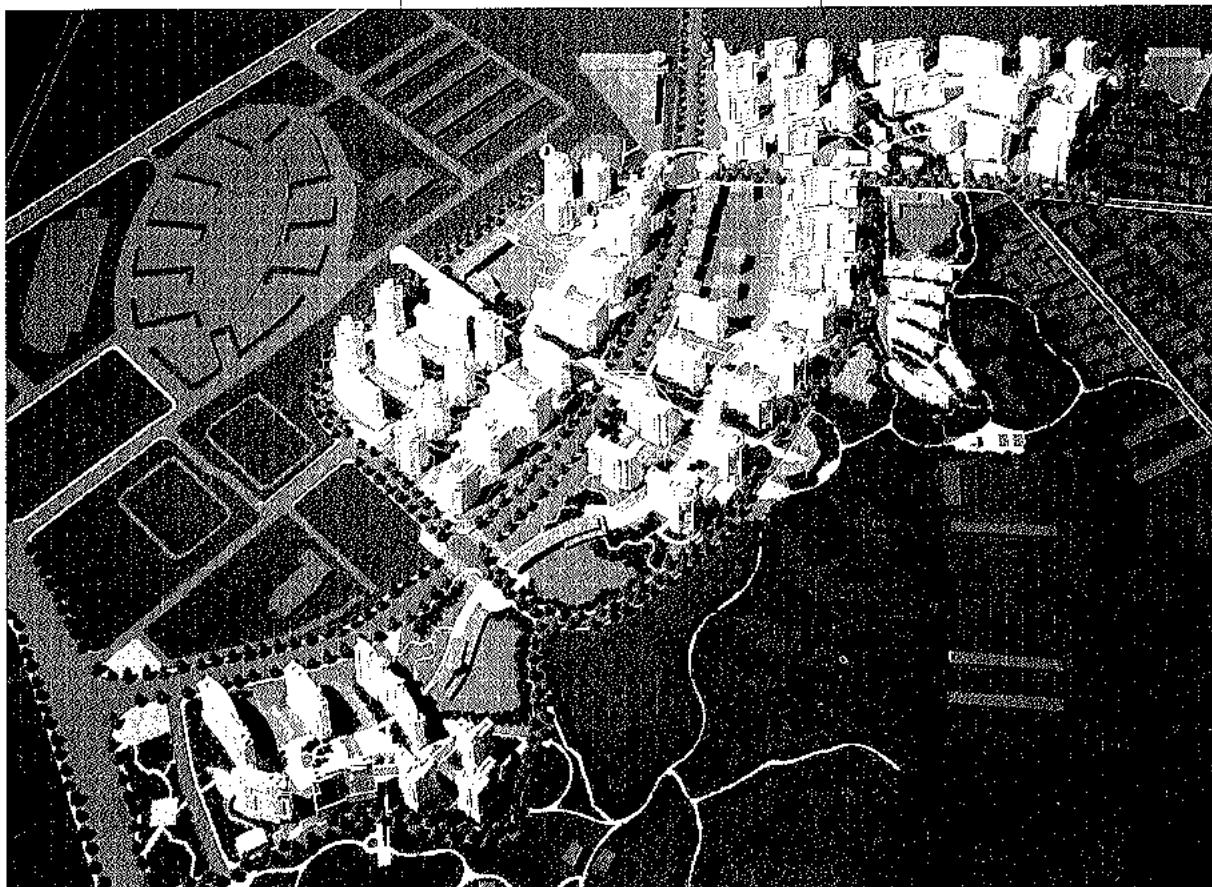
계획의 주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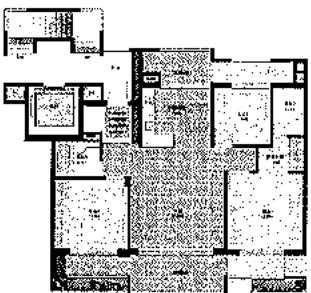
- 경관친화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립)
 - 발산지구의 근원인 수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는 방사형 단지계획 및 마곡지구 방향으로의 열린 축 확보.
 - 서울 서남권 최고의 주거단지로서의 이미지 확립.
- 도시축과 단지축상에 랜드마크적 요소를 부여, 생활가로 축상에 랜드마크형 타워들을 배치, 역동적인 주동디자인을 창출하여, 시각적인 경쾌함과 풍요로움을 추구.
- 환경친화 (도시내 자연성 회복)
 - 자연녹지를 염어 마곡지구까지 연결시

키는 그린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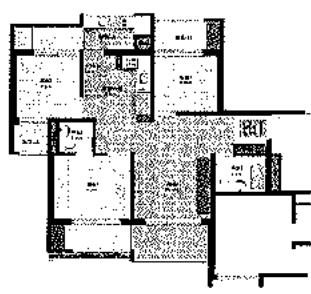
지형차를 이용한 데크 및 녹지계획, 중앙 보행족의 친환경 녹도계획을 통한 그린네트워크의 교량역할.

- 지반의 녹지화, 기존수로를 살린 블루네트워크 도입으로 도시형 환경친화 확립. 기존수로를 중심으로 한 습지계획과 이를 이용하여 주변을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교육시설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인간친화 (도시형 커뮤니티 형성)
 - 환경축과 경관축을 아우르는 생활가로 조성.
 - 주민참여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공동체 의식 제고.
 - 주출입구에 공동마당, 주호입구에 공동 공간 조성으로 한국적 커뮤니티 도입.
 - 임대기구와 분양기구의 자연스러운 균락 형성.
 - 농수산물시장에 대응하는 주동비치 및 소음에 대한 직각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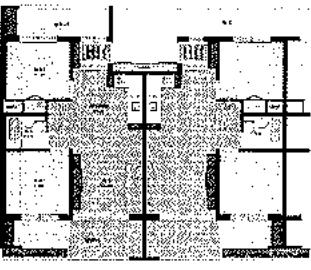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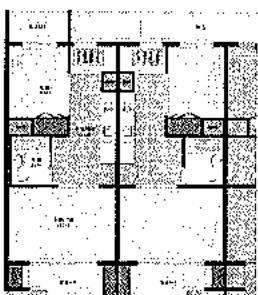
85m 기본형



69m 기본형 / 타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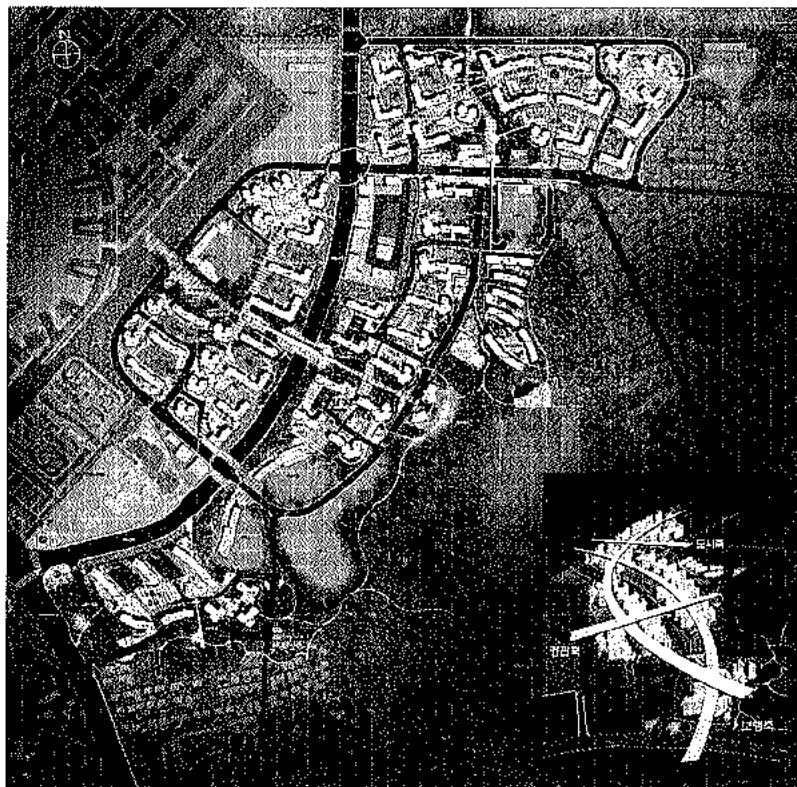


50m 기본형 / 코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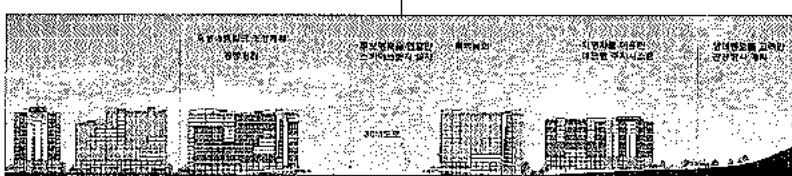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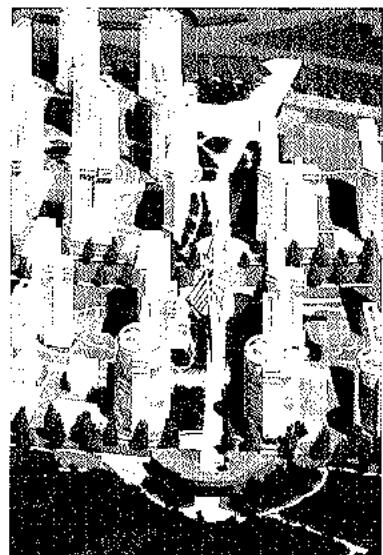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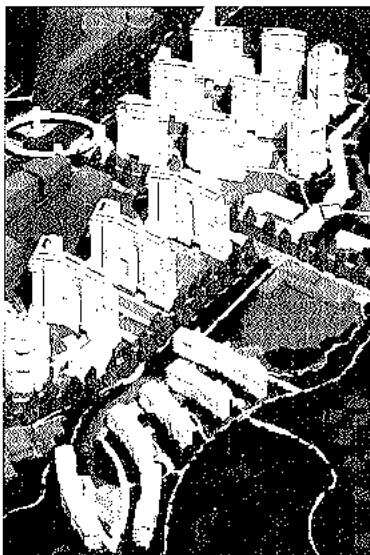


40m 기본형 / 코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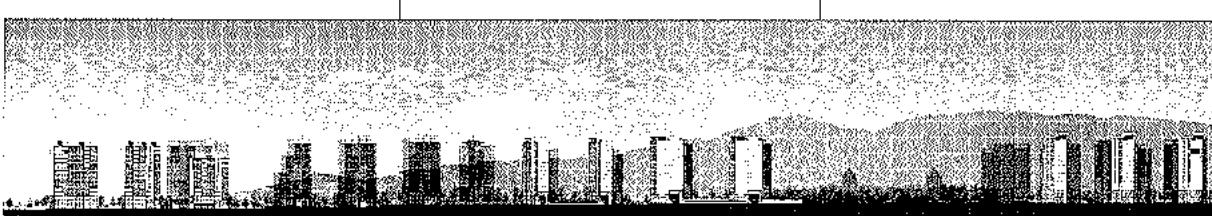
단위세대 생면도



위치도



단지 횡단면도



30m 도로변 가로경관

▶ 입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229,400m ²
건축면적	45,991m ²
연면적	655,011m ²
건폐율	20.05%
용적률	195.80%
세대수	총계 5,597세대 85m ² 2,227세대 60m ² 1,402세대 50m ² 1,124세대 40m ² 844세대
주차대수	총계: 6,177대 지하: 6,125대 지상: 11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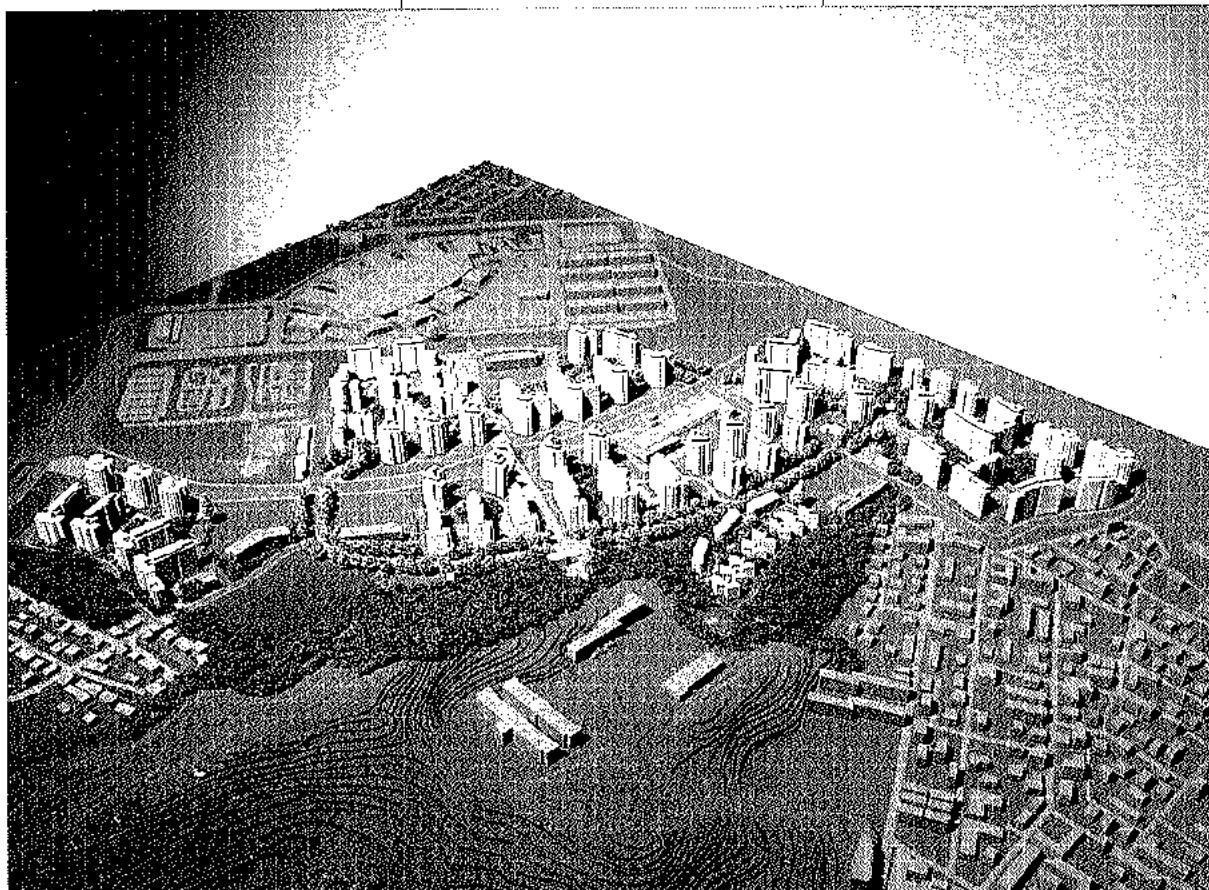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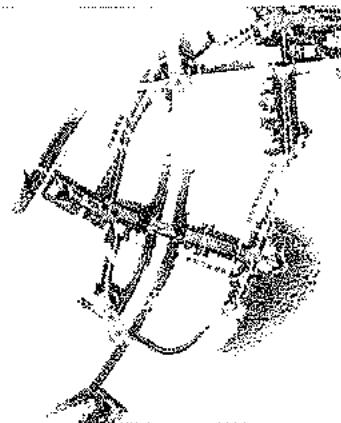
단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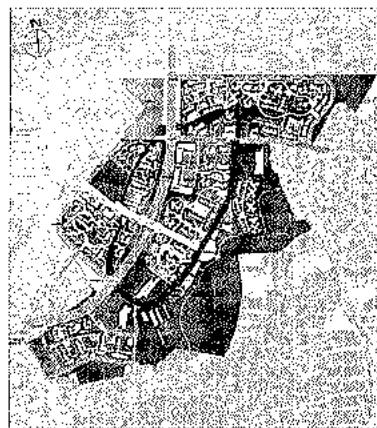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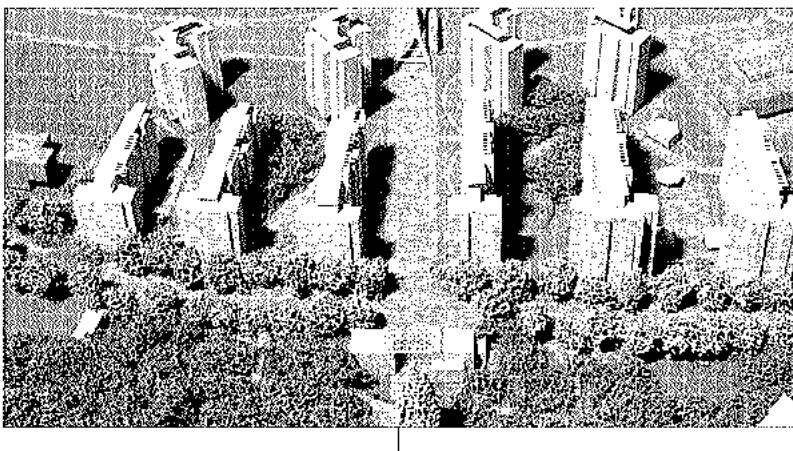
- 배치계획
 - 축과 흐름
 - 도시축을 중심으로한 열린공간 조성
 - 주거밀도 구상
 - 열림과 닫힘을 통한 고밀도 주거단지 (1,2,3,4단지)
 - 통경축을 고려한 중밀도 주거단지 (5,6,7단지)
 - 전망을 중시하는 전망형 풍경주택 단지 조성(8단지)
- 클러스터계획
 - 동네입구의 상징성 부여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마을순환로의 적정배치
 -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화합의 장소인 커뮤니티공간 조성
- 주요시설배치
 - 커뮤니티 시설
 - 마을중심에 위치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배치
 - 상가배치

- 상업지역, 균생을 고려 적정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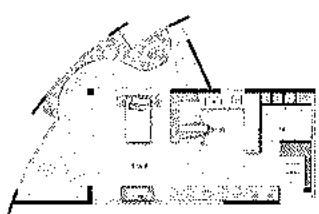
건축계획

- 주동계획
 - 남동/남서향 배치
 - 총벌 커뮤니티공간(정나눔)조성
 - 타워형태의 배치로 Open Space 최대 확보
- 단위세대계획
 - 60m²이상 3-BAY
 - 가변/확장을 고려한 평면계획
 - 자연환경, 체광을 극대화(2면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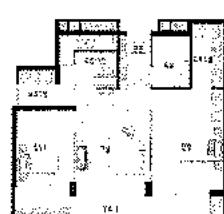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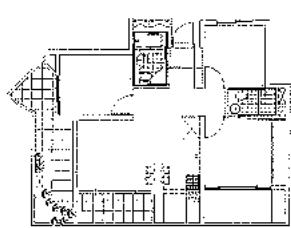
내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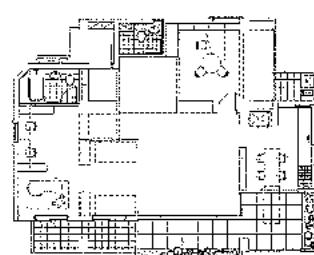
40m 콘크리트



30m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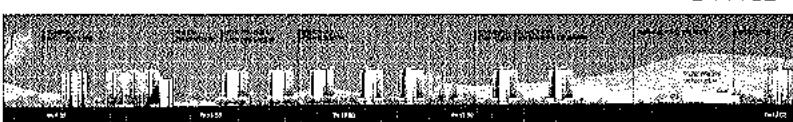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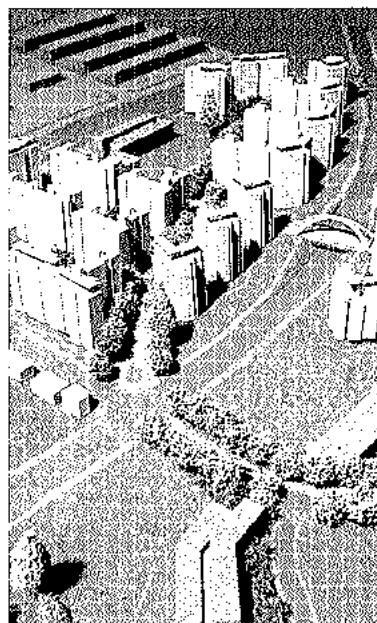


60m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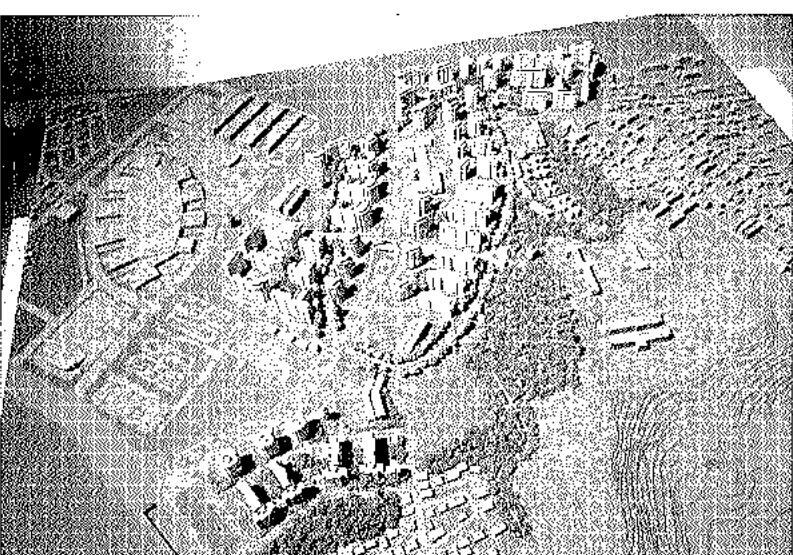


85m 디자인

단위세대 평면도



단지종단면도



▶ 입선작 / (주)아키플랜종합
건축사사무소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29,400.00 m ²
건축면적	43,286.40 m ²
연면적	635,441.16 m ²
건폐율	18.87%
용적률	212.20%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4-15층
세대수	합계 5,592 세대
	40m ² 841 세대
	50m ² 1,122 세대
	60m ² 1,402 세대
	85m ² 2,227 세대
주차대수	법정 : 6,209 대 계획 : 6,265 대 지하 5,140 대, 지상 1,125 대
설계총괄	김정훈, 이광재
설계팀	박영철, 김진수, 문혁주, 이영민, 김형우, 김현우, 황성희, 정유석

단지특화기념

가. 자연 살리기

- 생태통로 구축(Green Network)
 - : 수명산의 자연흐름 복원
 - 수생비오름(Blue Network)
 - : 기존 실개천 복원, 친수공간 유수지 활용
 - 비람통로(Clean Network)
 - : 광장, 마당 조성, 열린공간(Open Space) 형성

나. 도시경관구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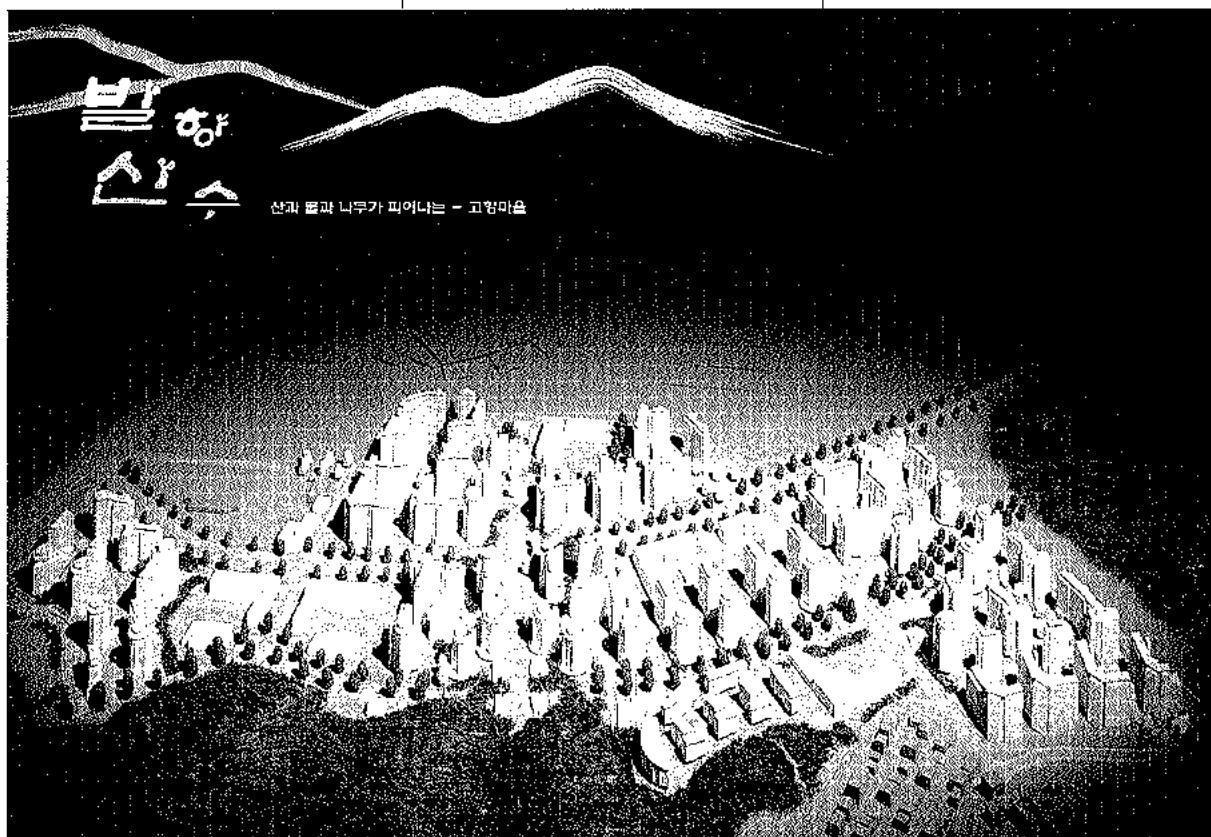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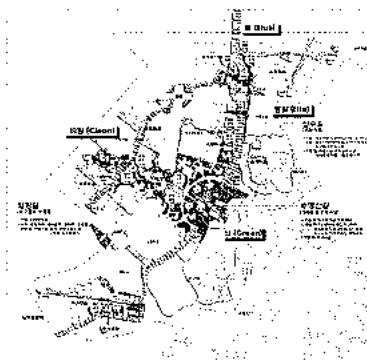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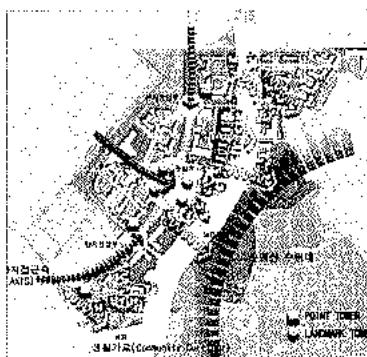
- 원경 : Landmark Tower 상징성
단지의 중심성 이미지 제고
- 중경 : Point Tower 단지전체의 조화
진입거점경관 형성
- 근경 : 일반 Tower 시가지축
(활동축 축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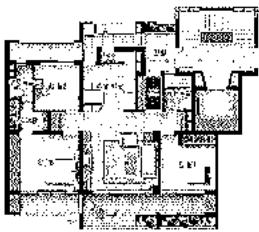
다. 생활가로 만들기

- 특성화계획 : 단지별 개성부여
산(Green), 물(Blue), 바람(Cl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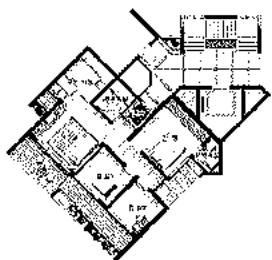
생활(Life)

- 편의성 / 인지성 : 보행물 커뮤니티시설
집중비치
- 공동체 : 지구중심공원의 미당계획





85m² 2호설계



60m² 4호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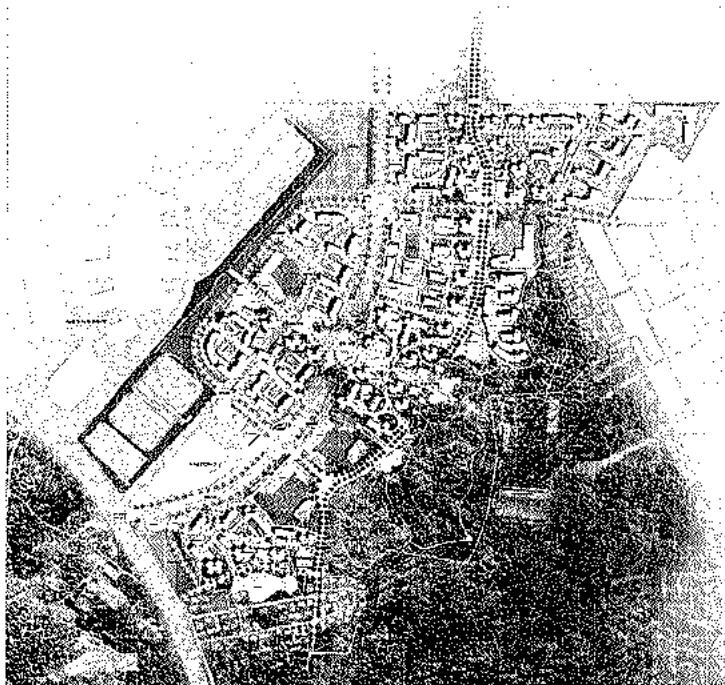


50m² 4호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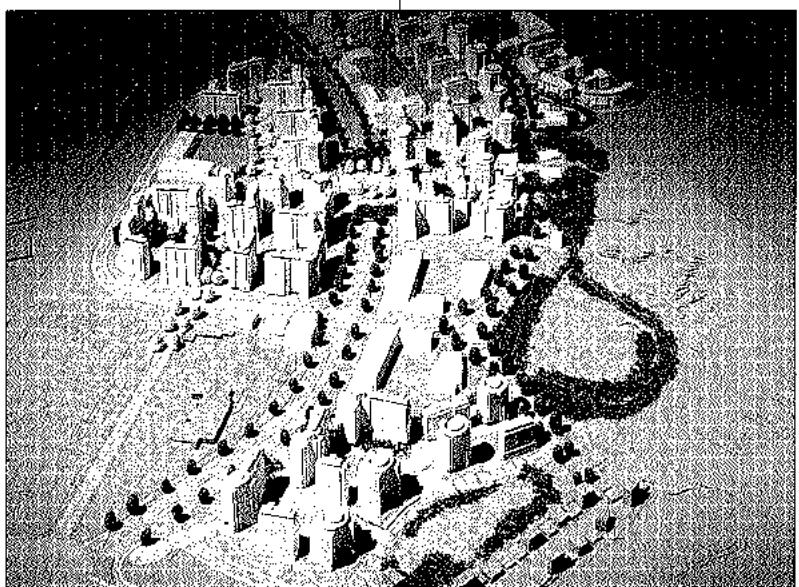


40m² 복층식설계

단위세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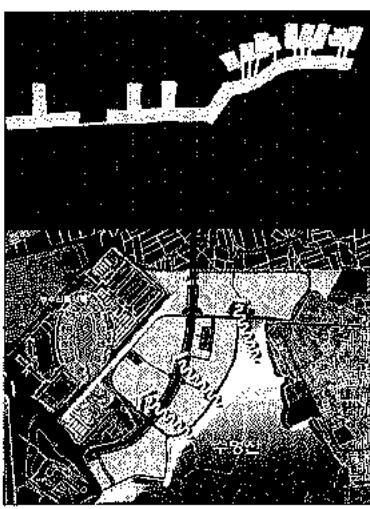
현재도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

▶ 입선작 /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대지면적	229,400.82㎡
건축면적	40,146.73㎡
연면적	459,449.47㎡
건폐율	17.50%
용적률	200.28%
세대수	합계 5,603세대 40㎡ 841세대 50㎡ 1,125세대 60㎡ 1,410세대 85㎡ 2,227세대
주차대수	총계 6,211대(법정 6,123대) 지상 441대, 지하 5,7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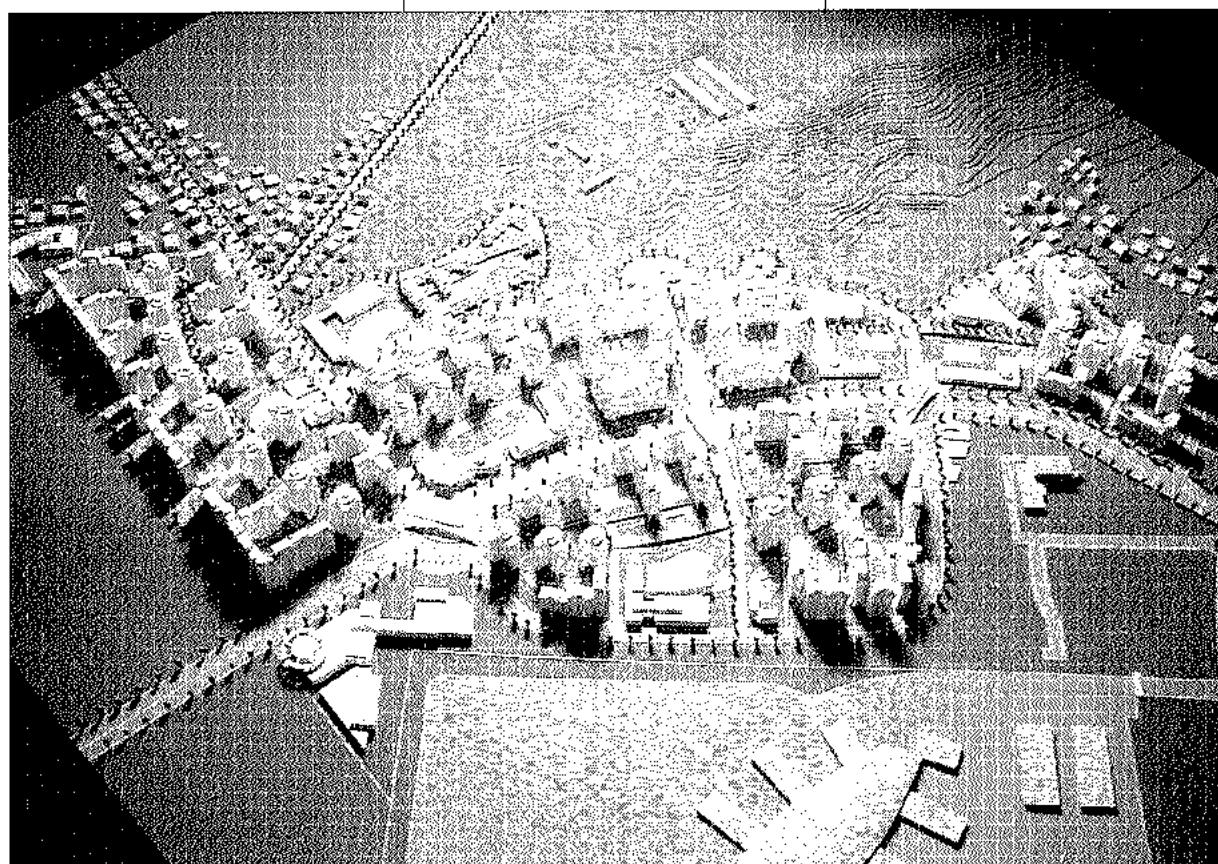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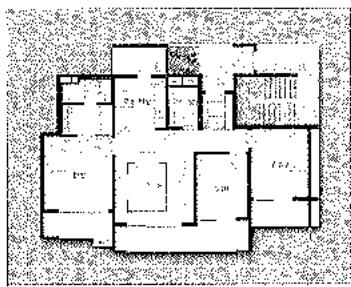
- 환경친화
 - 자연, 인공 녹지의 순환체계
 - 수자원, 수공간의 보존 및 구상
 - 단절되지 않는 생태통로, biotope구상
- 인간친화
 - 공동체 삶의 교류증대를 위한 공간 구성
 - 커뮤니티 공간의 다양한 및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 경관친화
 - 수명산 등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 주변지역을 수용하는 경관계획

계획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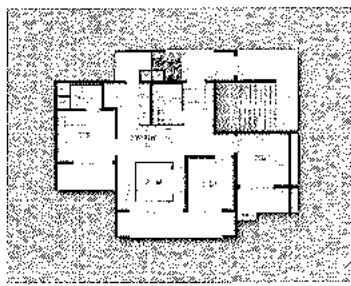
- 숲으로 가는 길
 - 안미당에서부터 시작되는 숲
 - 기존녹지(수명산)와 단지내 녹지의 연계

- 단지내 주제정원 및 생태 숲길 조성
-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 커뮤니티공간의 체계적 구성
(1차 - 주동단위, 2차 - 블록단위)
- 마당과 녹지공간을 통하는 커뮤니티 코리더(community corridor)
- 마을 단위의 장소성을 갖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알뜰시장, 축제)
- 길위의 풍경
- 수명산의 경관확보를 위한 위계있는 스카이라인 계획
- 기존의 도시맥락에 순응하는 가로의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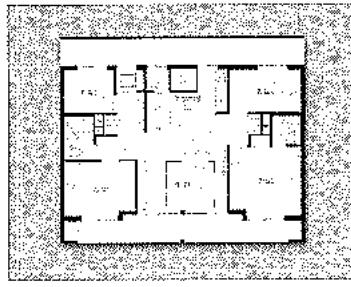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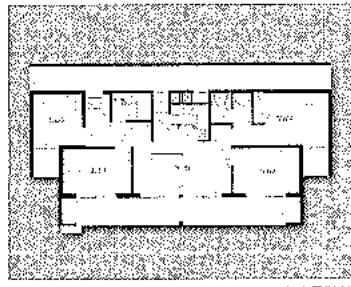
64m²형



59m²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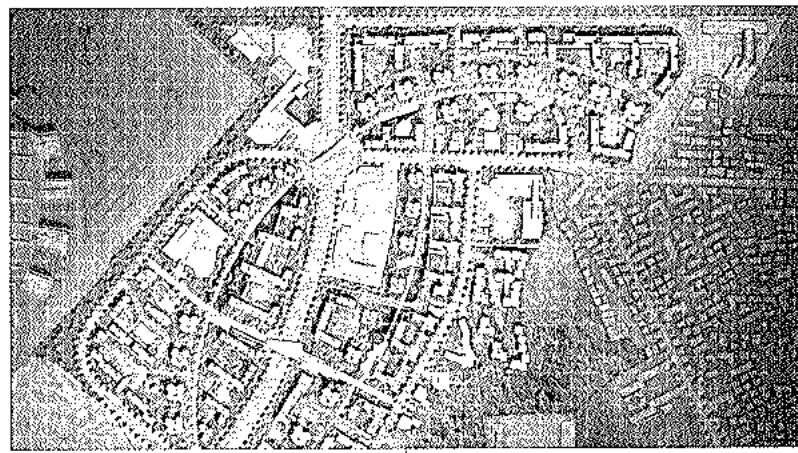


49m² 동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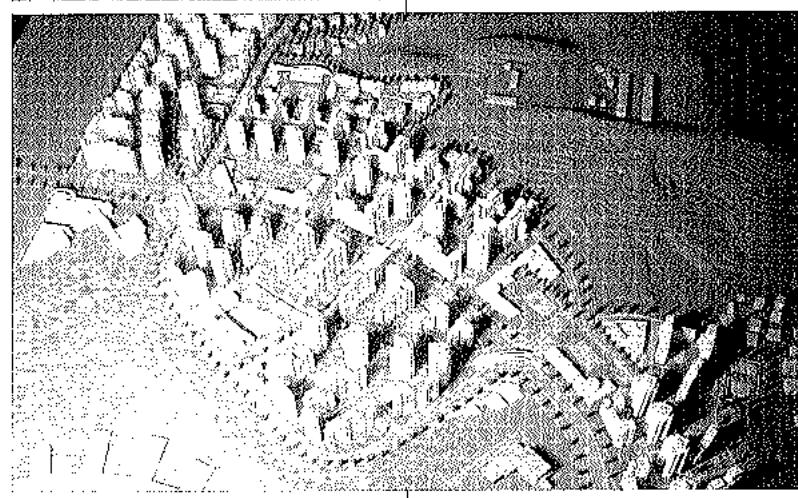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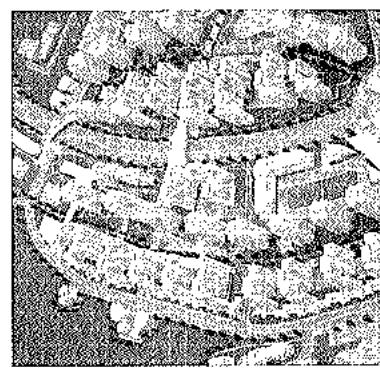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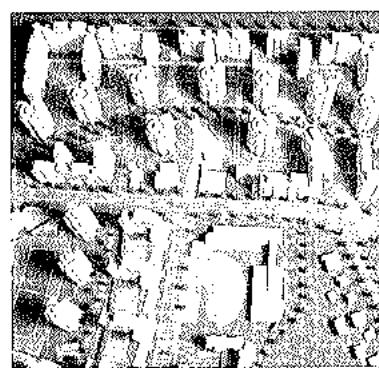


38m² 동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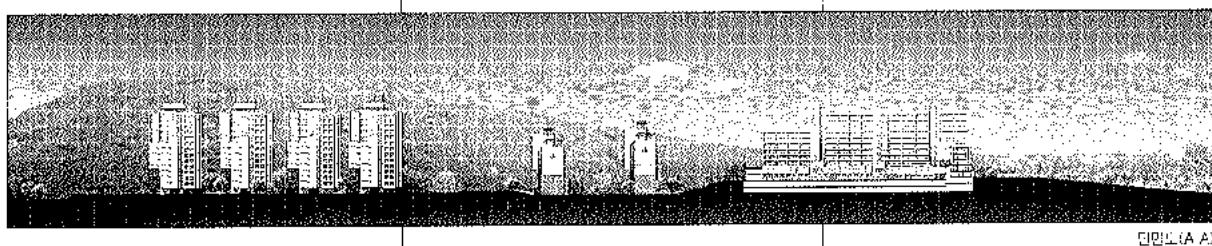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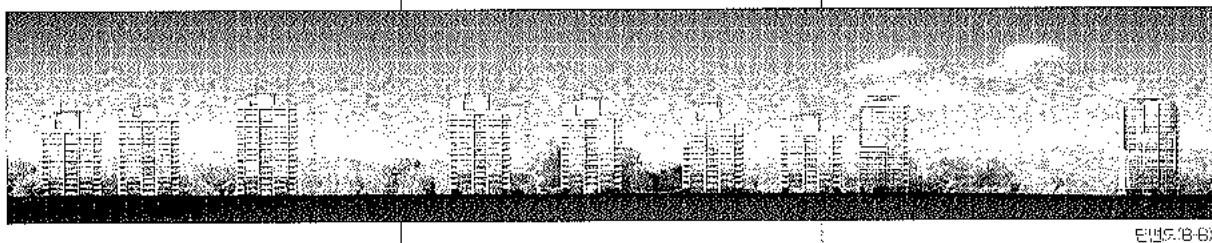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네시도



단면도(B-B)



단면도(A-A)

반석초등학교

Bansuck Primary School

▶ 당선작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조도연)

대전시 교육청이 실시한 반석초등학교 현상 설계에서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조도연)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안기돈)의 안이 선정됐다.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44블럭
지역지구 노은택지개발지구, 2종일반주거
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초등학교)

대지면적	14,033.00m ²
건축면적	3,595.81m ²
연면적	10,899.69m ²
건폐율	25.62%
용적률	76.22%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체육관)
주차대수	자주식56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외부마감	컬러지장벽돌 / 컬러복층유리 / 외단열시스템 / 압출성형콘크리트파널
설계팀	김현주, 이옹호, 문형덕, 이기동, 박임호, 김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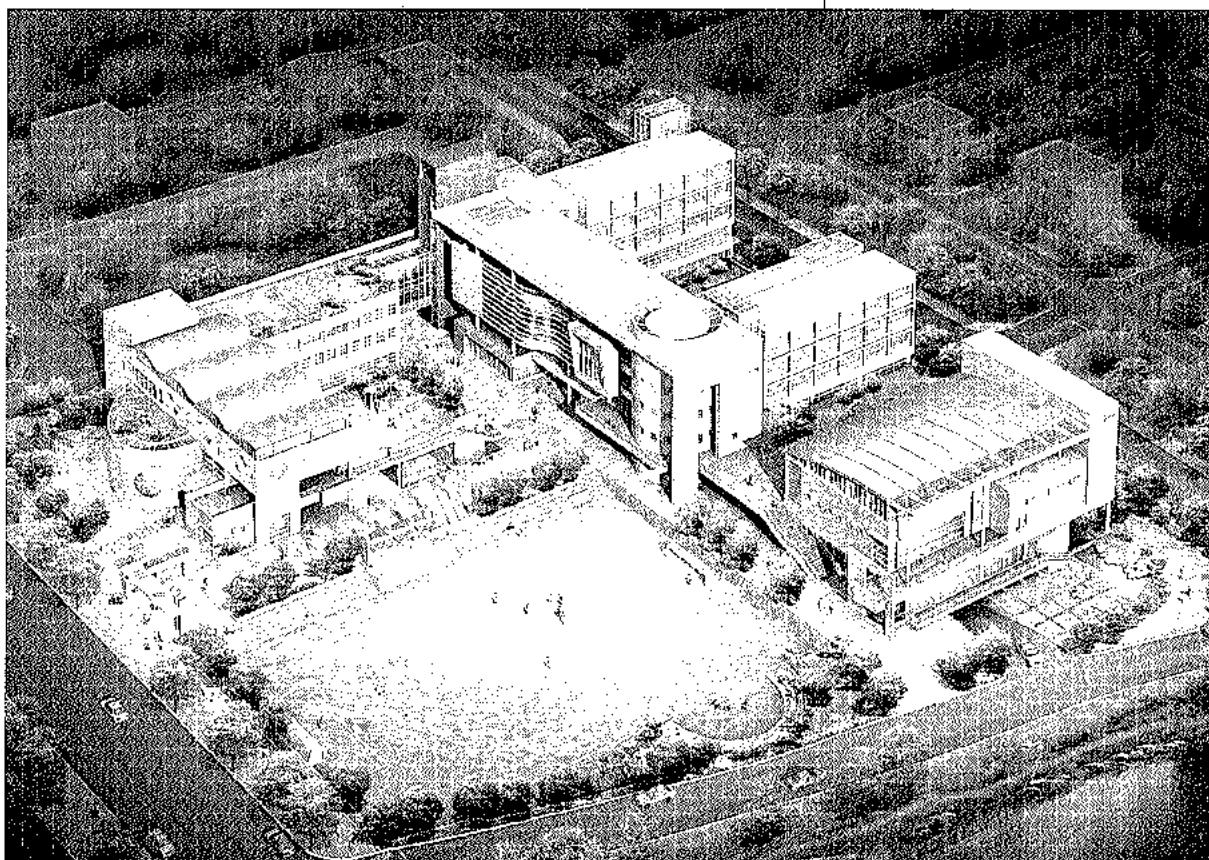
설계개념

가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기억되는 곳.....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학교.....
학습과 휴식, 놀이 등의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안 여기저기에 숨겨

놓는다. 아이들의 숨겨진 이벤트를 따라 움직이면서 내·외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학습의 기능 또한 옥외 공간까지 확장된다. 학교 안에서 느끼는 친숙하고 포근함으로 지루하기만 했던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곳, 이벤트 공간과 그 곳에서의 행위들이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아 기억될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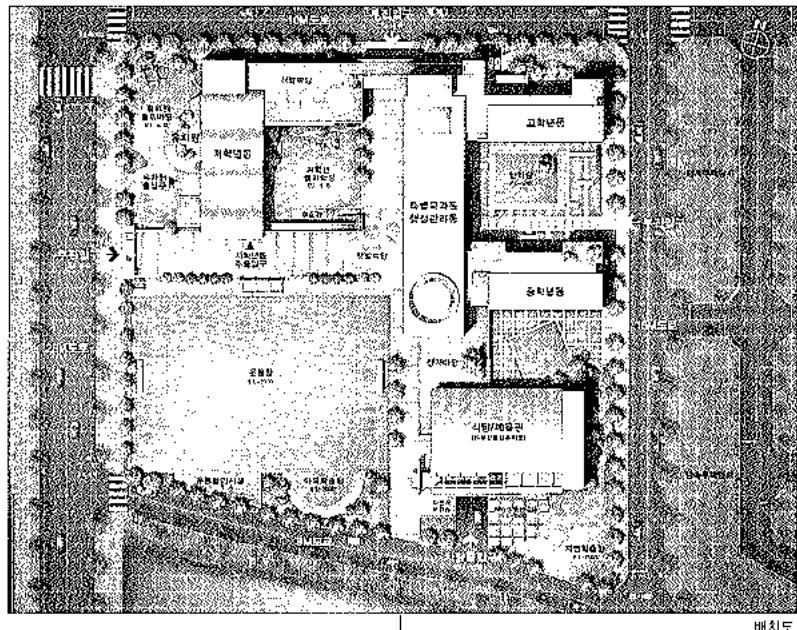
배치계획

- 교과동의 남향배치 - 중·고학년 교과 동은 남향으로 계획하고, 저학년동은 오전 수업을 고려하여 남·동향으로 배치하며 도시 가로망에 맞춘 직교 체계를 가지도록 함.
- 학년별 조망 - 저학년과 고학년의 공간을 구별하여 학년별로 양역화하여 배치하고, 중·고학년 교실군의 중앙에 학습정보센터와 특별교실을 배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반석천을 향한 조망 - 반석천을 향한 열린 조망을 위해 레벨이 낮은 남측에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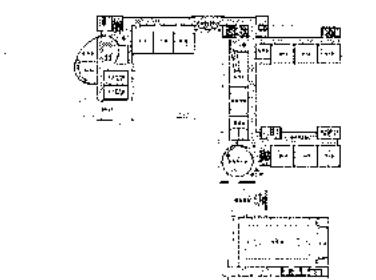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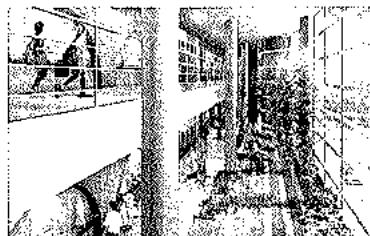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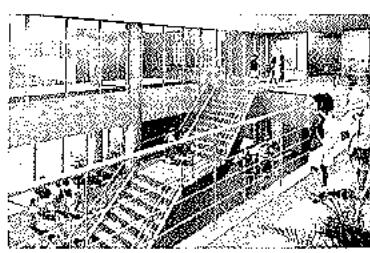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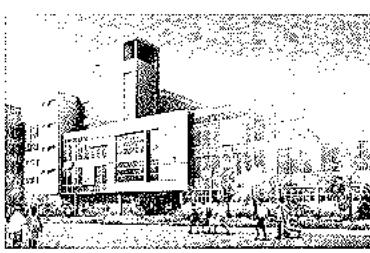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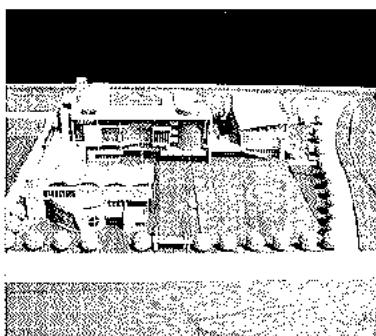


동장을 계획하여 교실동에서의 시야를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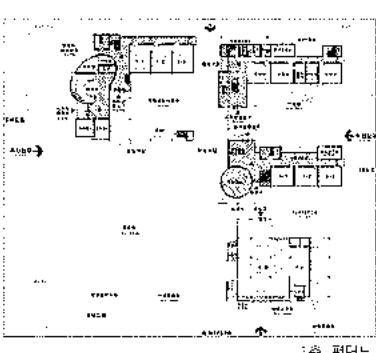
- 지역주민이용시설의 블록화 - 도서관과 정보자료실, 시청각실 등을 학습정보센터로 그룹핑하여 계획하고 식당, 체육관과 함께 차량진입구에 인접 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함.
- 내·외부동선계획 - 25M도로에서 보행자 주진입이 이루어지고, 남측8M도로의 차량진입 가능 구간에서 차량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개방되는 공간을 계획하여 학생·교사동선과 분리함.
-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을 기능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계획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군을 주차 공간과 연계시킴으로 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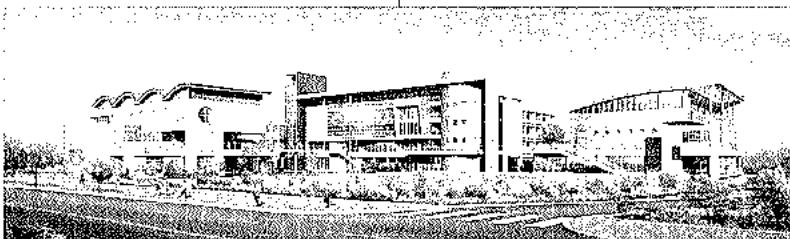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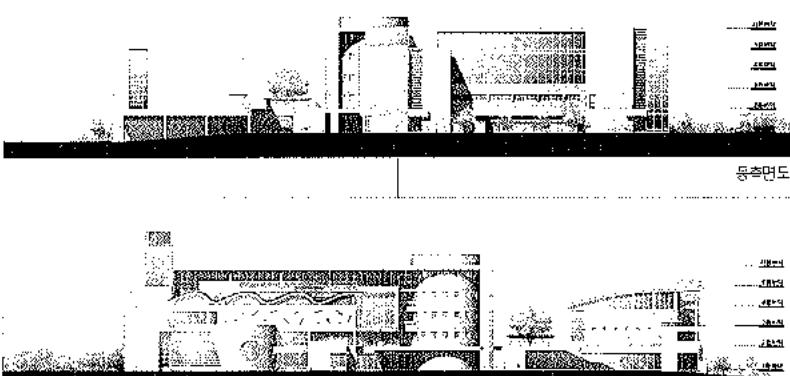
2층 계획도



1층 계획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 우수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상건축 (안기돈)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44블럭
지역자구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4,033㎡ (4,245평)
건축면적	3,322.04㎡ (1,004.92평)
연면적	10,489.27㎡ (3,173.00평)
건폐율	23.67%
용적률	73.22%
구조	철근콘크리트-리멘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52대
외부마감	점토 벽돌 치장쌓기, 학색 베이스 패널, 금속 패널

대지 분석

대지주변의 도로여건을 고려하며 남측의 반식천으로 시원하게 열리도록 계획하고 북측과 동측의 디기구 및 상가지역의 간섭에 대응하고 25M도로변 건너의 아파트단지의 주된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연친화적이며 주변과의 유기적관계를 고려한 배치계획

건축 계획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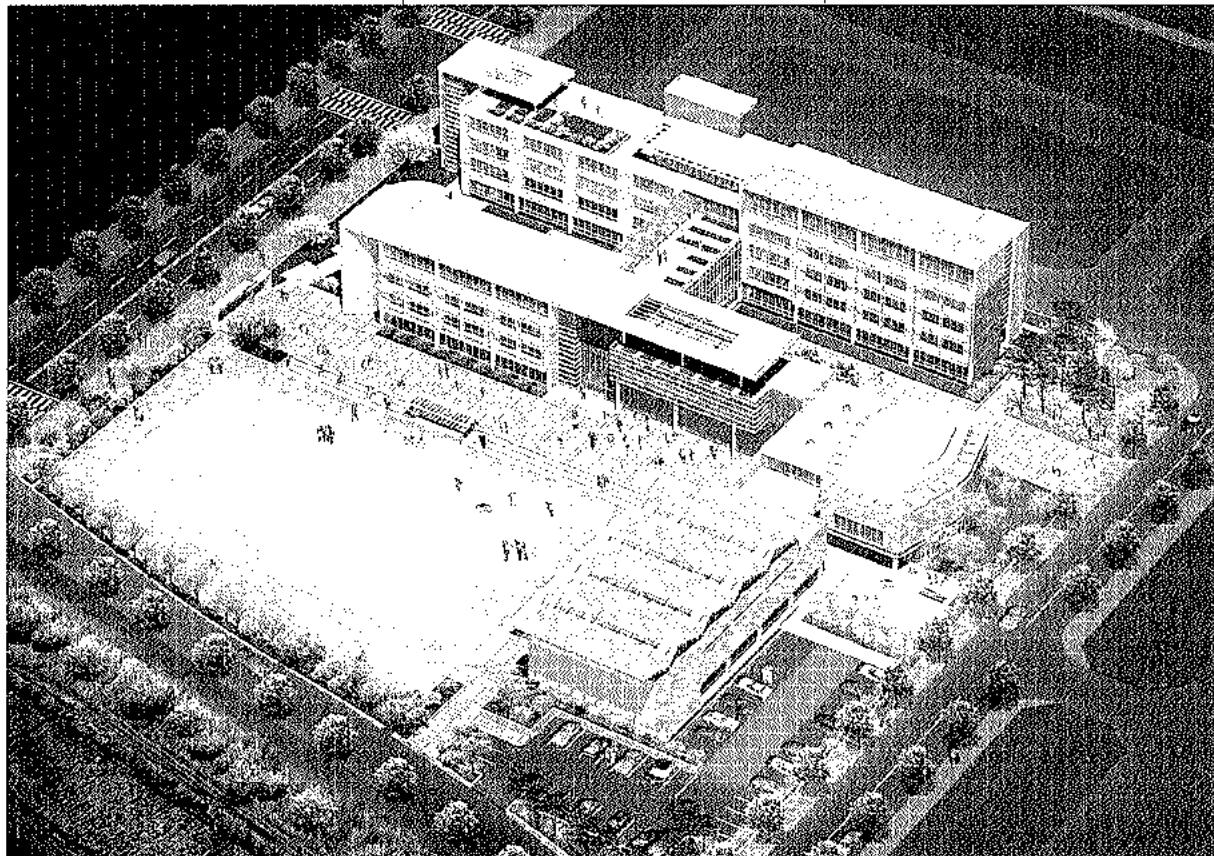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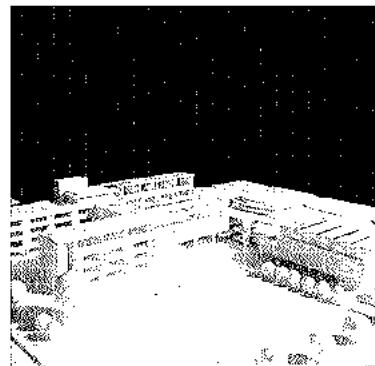
- 보행동선은 차량동선과 철저히 분리하고 25M도로변에서는 운동장과 교시동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진입하며 15M도로변에서는 쌈지공원(학교공원공간)을 끼고 아기자기하게 진입하여 중정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 주차장도 정해진 구간으로 진입하며 안쪽은 교직원영역, 외부쪽은 서비스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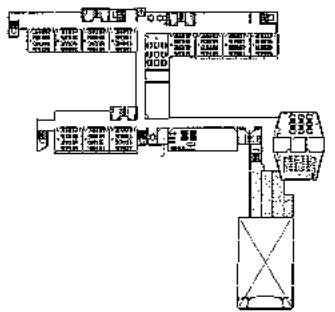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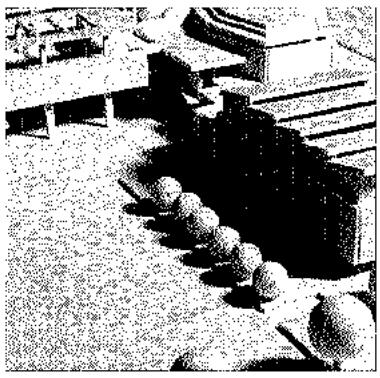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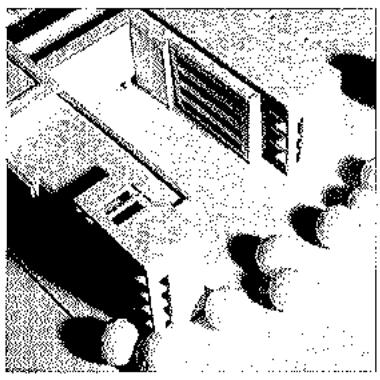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영역

- 25M 도로 진입부의 솟대쉼터 15M도로변의 쌈지공원과 자연학습장의 연계
- 주차장 쪽의 소나무동산 등을 배치시켜 어느 곳에서나 학교의 공원같은 쉼터를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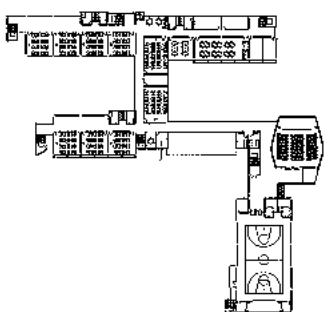
증축 계획

- 교육시설의 특징 중 하나는 짧은 증축이다.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며 추후에도 증축부분이 학교의 공간구성에 적절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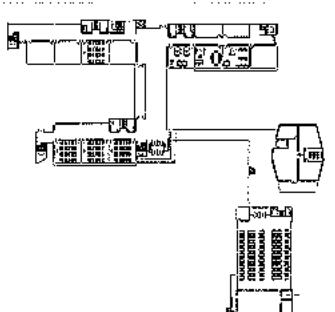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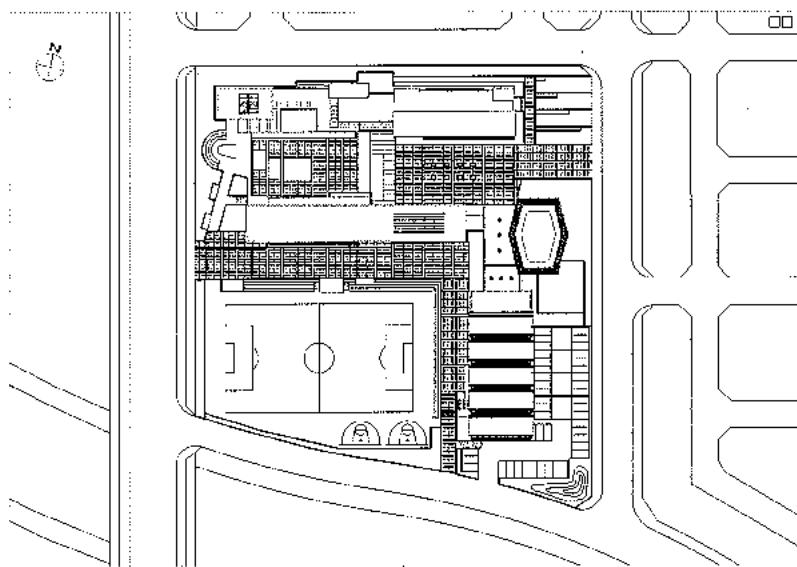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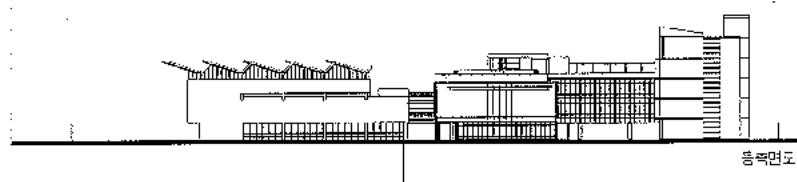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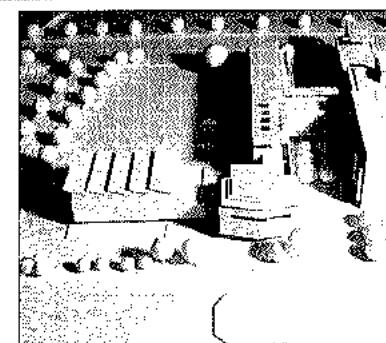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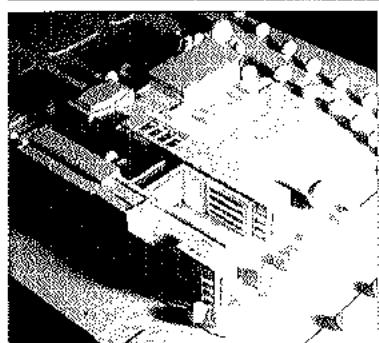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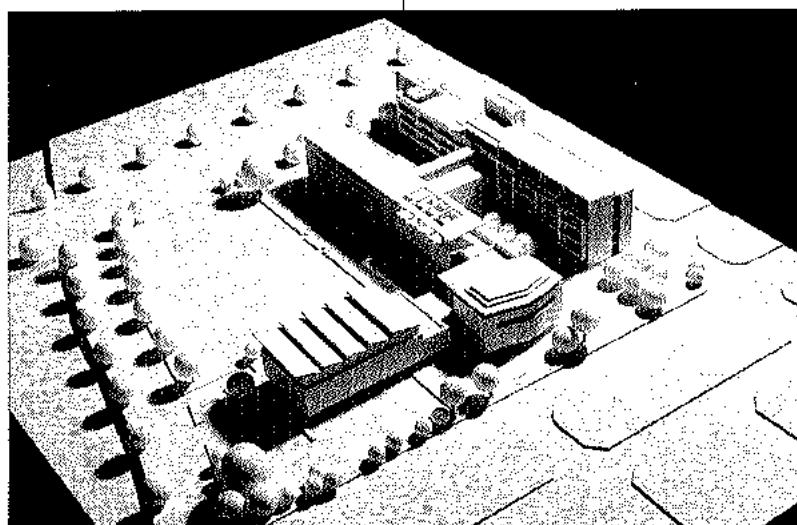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바지도



총측면도



는측면도

강동구청 별관

Annex of Gangdong-gu Office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사이간축 (박주환) + 인산공과대학(박경무)

서울시 강동구청은 구청의 공공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주민과 구청직원들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강동구청별관 현상설계를 실시해 지난 7월 11일 (주)건축사사무소 사이간축(박주환)의 안을 당선적으로 선정했다. 총 4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건축사사무소 공간인식(양상준)의 안이 선정됐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39-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안)
대지면적	856.90㎡(259.21평)
건축면적	421.65㎡(127.55평)
연면적	2,508.68㎡(758.88평)
건폐율	49.21%(법정: 50%)
용적률	214.91%(법정: 250%)
용도	업무시설, 균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17대
외부마감	징크페널, 노출콘크리트, 베이스 패널, THK24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송상호, 임준현, 정선화, 박근철, 손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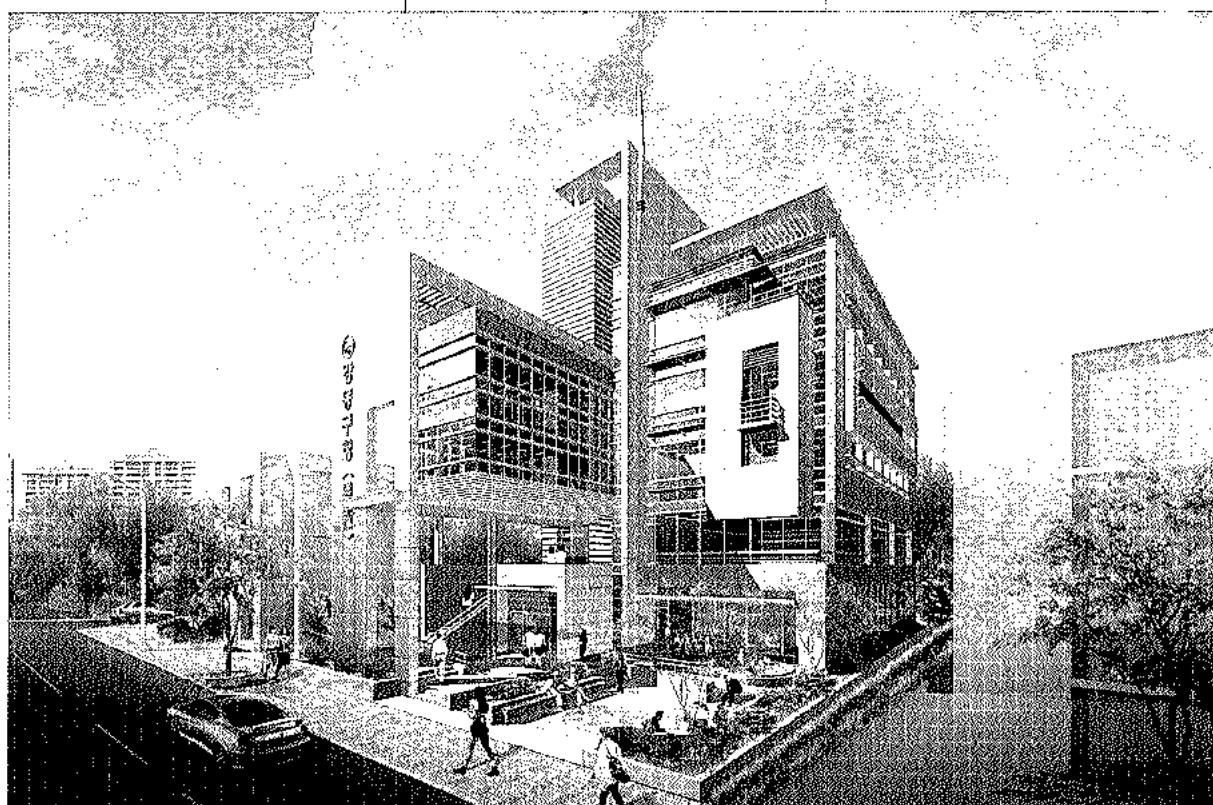
강동구청은 청사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근에 부족분을 필요로 하여서 점차로 세워진 몇 개의 별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사무환경을 해결하고 인근 동사무소 기능과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

이라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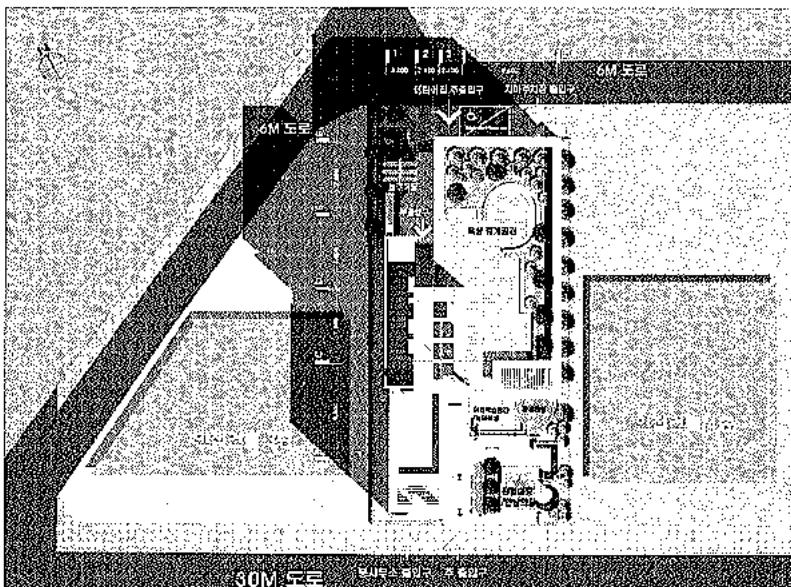
대지는 강동구청과 바로 인접하지는 않았으나 약 100M 거리에 같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양옆에는 주도로쪽으로 바짝 다가선 3,4층의 작은 근린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건물과 연속성을 가질것인지 조금이나마 트인 열린공간을 구성하여 가로의 여유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양측면의 인접건물들이 도로 앞쪽으로 바짝 다가서 있어 조망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후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주마스를 후면으로 배치하여 개방감과 일조를 확보하고 코어와 부속마스를 슬라이딩 시켜서 적당히 앞쪽으로 내세워 전면성과 청사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또한 가로의 연속성도 포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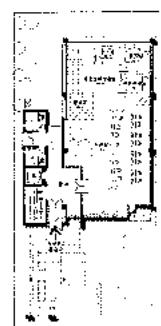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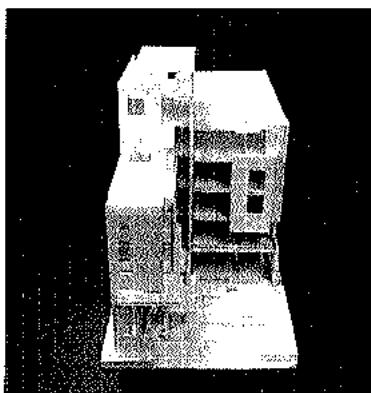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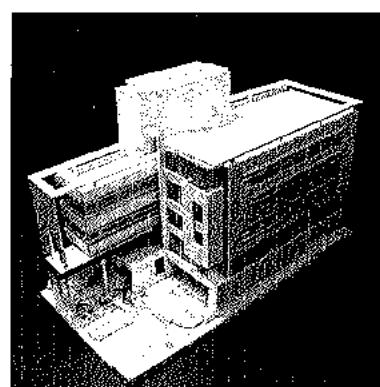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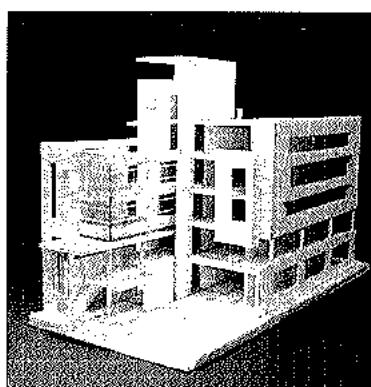
앞뒤로 긴 대지의 형태는 앞쪽 주도로에서의 접근과 후면 주택가쪽에서의 접근을 모두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전·후면의 진입동선을 별도로 확보하고 2층 동사무소와 1층 보육시설 동선, 주출입구 동선을 모두 별도 처리하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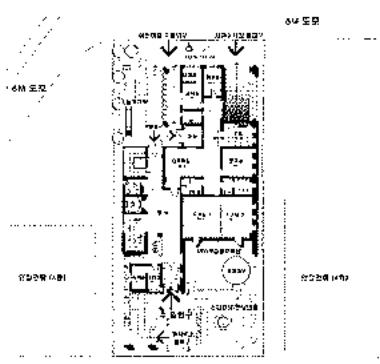
별 접근성을 적극 배려해야 했다.
 다가서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품어안는 형상을 취하고자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물로의 접근방식에 따라 미당을 통하여 건물을 눈안에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접근해야 했으며, 대지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외부공간에서 조차 목적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원하는 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한다.
 적절한 면의 분리와 결속으로 기존 관공서의 경직되고 기능만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탈피한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스케일로 매스를 분절하여 매스와 매스의 사이공간을 조망의 통로로 계획한다.
 콘크리트와 금속, 유리등 소재의 속성만으로 형태를 형상화시키고 작위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애써본다.
 앞·뒤도로를 연결하는 대지내의 골목길을 만들고 싶었던 당초의 의도를 대자가 너무 협소하고 총수의 한정 때문에 이루지 못한 절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언급한 작가의 몇가지 의도가 준공때 까지 이어지고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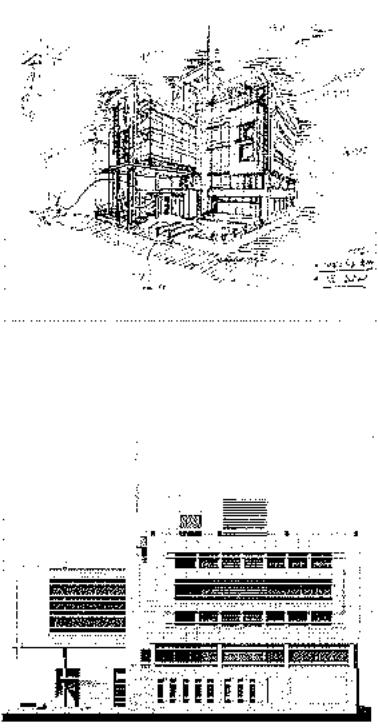
매지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建築文化

a+u

신건축

Architectural Review

DOMUS

建築文化

2003년 8월

이번 호에서는 두 개의 특집이 다루어졌다. 첫째 특집은 「U(언더)-35의 포텐셜」로서 일본의 35세 이하의 젊은 건축가들이 잠재력을 다른 특집이다. 15명의 젊은 건축가가 소개되고 있으나, 각자의 대표작을 소개하기보다는 「현대건축의 5원칙」을 무어라 생각하는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통해 건축가의 개성과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특집은 프랑스의 건축가 안느 라카통 & 장 필립 비살(Anne Lacaton & Jean Philippe Vassal)의 작품(라디피 주택, 그르노블<예술 및 인문학부 교사>세계에 관한 것이다. 라카통과 비살의 건축은 경쾌함, 태양에너지, 자연환경 등의 용어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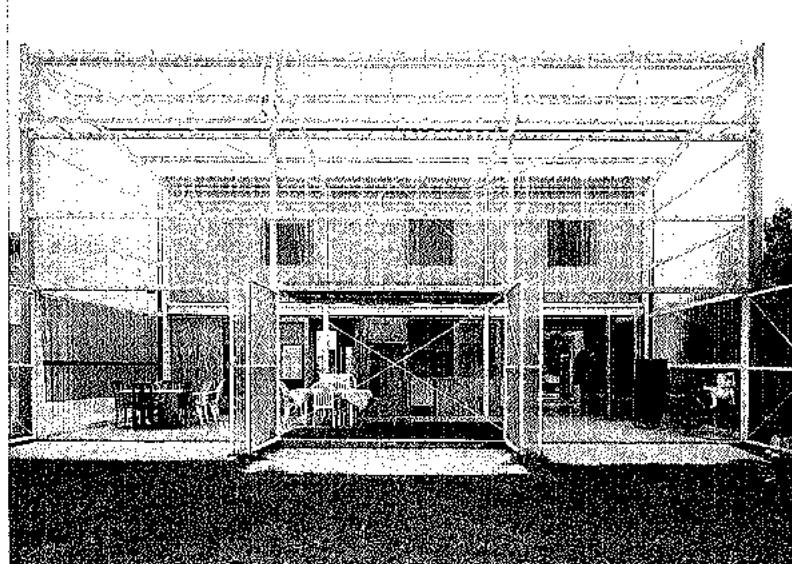
建築文化

U-35のポテンシャ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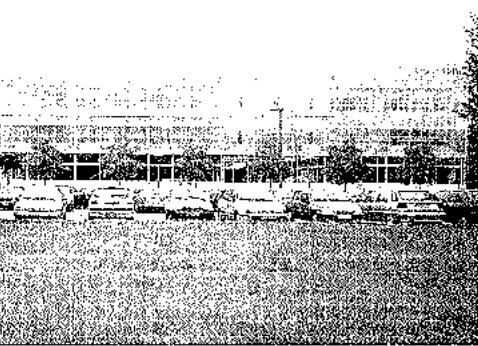
ラカトン&ヴァサル

■특집: U-35의 포텐셜

U-35, 이는 35세 이하(under 35)를 칭하는 말이다. 이 특집에서는 35세 이하(1968년 이후 출생)의 젊은 건축가들 중에서도 그 위의 세대와 가치관이나 디자인, 직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선을 긋고, 기준의 건축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고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젊은 건축가들을 선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젊은 건축가들이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특집의 기획 의도이다. 선별된 15인(그룹)의 건축가에게는 「현대건축의 5원칙」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에 더하여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이 던져졌다. 15인에 대한 소개는 이 공통된 질문의 대한 각자의 대답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자 내놓은 해답 속에 건축가의 철학과 태도, 지향하는 바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 기회가 많지 않은 젊은 건축가들의 사고와 경험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각자 내놓은 대답과 함께 작품에 대한 도판이 배경으로 실려 있어 각 건축가의 작품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좌담회, 인터뷰, 칼럼



라디피 주택



그린노블(예술 및 인문학부 교사)

등을 통해 35세 이하 세대의 건축가들에 대하여 논함과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건축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 「유니트派」의 세대로부터 U-35에게 보내는 메시지 - 이기라시 타로우(五十嵐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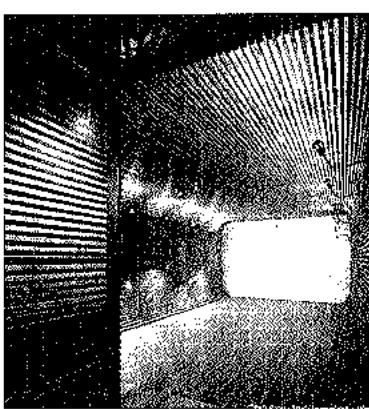
5년 전『SD』0號에서는 「차세대의 멀티 아키텍트들」이라는 제목으로 11인(그룹)의 젊은 건축가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소개된 건축가들 중에는 더러 해산한 그룹도 있으나, 이들리에 원, 미강구미, 크리인 다이삼 아키텍츠, F.O.B.A. 등이 현재에도 활약하고 있다. 이기라시는 당시 이 특집에서 이기라시와 동년배였던 이들 건축가의 평론을 맡았었다. 이들 건축가들의 특징은 「유니트」에 의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유니트」란 건축가들이 느슨한 조직 속에서 팀 작업을 한 것을 그렇게 불렀다.

이번에 마련된 U(언더)-35의 기획은 현대건축의 전환점이 된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아래 세대를 다루고 있다. 완전히 버블경제와는 동떨어진 15인의 젊은 건축가들을 소개하고 있어, 건축계의 새로운 절목(節目)을 기록한 중요한 특집이 될 것으로 본다. 젊은 건축가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5년 전『SD』의 특집과 비교해 보자.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다. 다만 자의적인 잡지의 특집 속에서 미디어가 기대하는 새로운 동향을 읽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SD』에서는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유니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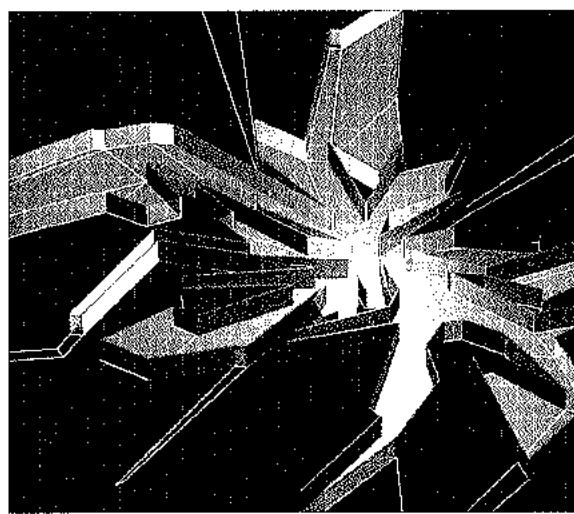
느슨한 조직의 존재방식이 각광을 받았다. 소개된 11개 그룹 중에 10그룹이 「유니트」였다. 반면 이번의 15인 중 SPEED STUDIO, 스와 제작소의 2 그룹만이 「유니트」이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의 이름을 내놓고 있다(엄밀히 말하자면 松川昌平(마쓰카와)은 000studio를 결성, 吉村靖孝(요시무라)는 SUPER-OS를 결성, 金田充弘(카네다)는 ARUPJAPAN, 勝矢武之는 日建設計에 소속). 그러나 藤本壯介(후지모토)가 「연약한」 건축을 주창하는 것처럼 강력한 공간을 제시하는 디자인은 선호되지 않는다. 개인이라 할지라도 포스트모던적인 기발함을 기파하는 태도는 「유니트派」와 연속되는 점이다. 五十嵐淳(이기라시 준)의 주택 「矩形의 森」(2000)은 추상적인 상자와 흑카이도의 현실을 교묘히 융화시켰다. 乾久美子의 건축은 기호적인 조직이면서 풍부하고 미묘한 현상을 살려내었다.

「유니트」派에서는 해외의 사무소 근무나 사제(師弟)관계가 그다지 없었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MVRDV-吉村靖孝와 柄澤祐輔, 헤르조그&드 라모-菊地宏, 미국 유학·아오키 준-乾久美子, 쿠마 겐코-中村拓志, 러시아유학·伊東豊雄·중국설계원-松原弘典, 미국 유학·ARUP의 런던 본사-金田充弘, 미국 유학·田中浩也 등이다. 역시 인기 있는 사무소가 많다. 몇몇 케이스에서는 디자인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의 후반은 글로

벌화를 반영하여 이전과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면 젊은 일본인들이 해외의 사무소나 학교로 점점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가 귀국하기 시작한 것과 U-35의 기획은 겹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몸에 익힌 국제성을 크게 기대해 보는 바이다. 「유니트」派의 경우에는 굳이 해외나 (유명한 건축가로부터의)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팀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돌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U-35의 건축가들은 글로벌한 감각을 재도입하고 있다. 「유니트」派의 세대와 비교하면 U-35는 보다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웹에도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田中(타나카)는 직렬하는 4차원 도라에몽(일본의 유명한 만화 캐릭터)을 만들어 등장하였는데, 다차원 포토꼴라쥬를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도시의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다. 000studio(PAO Room)는 건축 출신이면서 디자이너의 영상제작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와인바(wine bar)인 「decfive」(2000)에서는 정보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시스템과 디자인에 관계하고 있다. 柄澤(unfolding space 이론)는 CG에 의해 보다 강렬한 도시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시부야 재개발 마스터플랜에서는 동경을 리셋시키며 복잡한 지형을 공중에 띄워 올려 수평방향으로 건물을



PAO Room



unfolding space 이론

을 확장시켰다. 中村이나 松原은 웹에서 정보발신을 하고 있다. 吉村과 菊地는 필자(이가라시)와 같은 나가야(長屋, <http://www.cybermetric.org>)의 주인이다. 이 두 사람의 문장은 매우 쿨(cool)하다. 현재, 필자는 乾, 藤本, 吉村과 함께 『건축MAP東京2』의 감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학회의 이벤트에서 처음으로 勝矢武之의 발표를 들었을 때, 논리의 정연함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팝(pop)적인 「유니트」派보다 한결 쿨(cool)한 것이다.

이들은 보다 윗세대에 대한 명쾌한 안티(anti)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차 기운 눈으로 새로운 리얼(real)을 붙잡아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계를 도발하는 작품과 논의를 생성해 낼 것을 기대해 본다.

a+u

2003년 8월

이번 호의 특집은 우루과이의 건축가 엘라디오 디에스떼(Eladio Dieste)의 작품 세계이다. 엘라디오 디에스떼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작품활동을 펼쳤으며, 그의 보강 세라믹구조에 의한 건축은 그의 건축을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는 엔지니어로서의 건축가의 전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우루과이의 거장



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상황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건축을 창조해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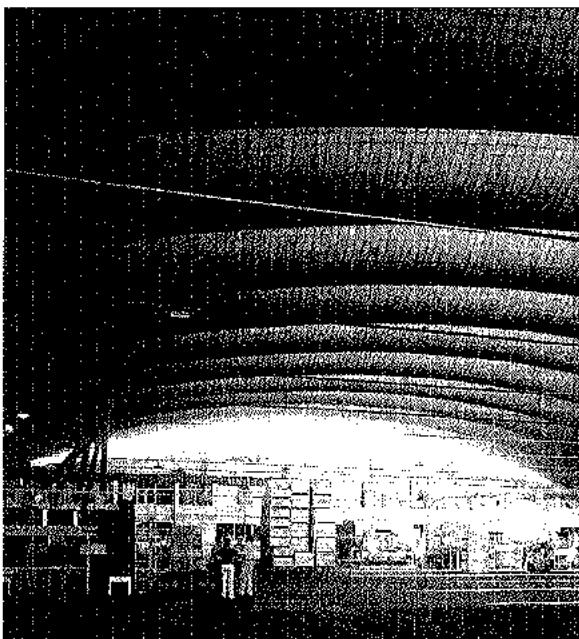
■ 특집: 엘라디오 디에스떼(Eladio Dieste)

우루과이의 건축가 엘라디오 디에스떼(1917~2000)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보강 세라믹을 이용한 구조를 사실상 창조한 인물이며,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였다. 1917년 우루과이의 아르티가스(Artigas)에서 태어난 그는 노동성 및 민간기업의 기사로 근무한 후 1954년 디에스테 & 몬타니에스를 설립하면서 그의 본격적인 건축 활동을 시작하였다. 힐리주의자이면서 시인(詩人), 깊고 성실한 사색가, 사회정의의 옹호자, 엔지니어로서의 건축가. 이러한 말들을 동원하여도 엘라디오 디에스떼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디에스떼의 작품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보강 세라믹구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기술과 그의 건설회사이 디에스떼 & 몬타니에스가 만들어낸 것의 범위는 매우 폭넓다. 그 작품의 대부분은 창고, 공장, 소규모의 스포츠 시설 등 지극히 실용적인 용도의 것들로서 이러한 의뢰 내용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대로 그는 빠듯한 예산 속에서 작업을 해 왔다. 디에스떼는 그러한 제약들을 뛰어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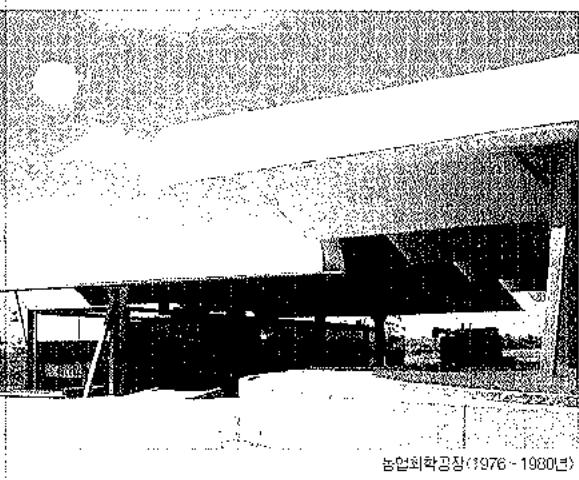
디에스떼의 작품은 대부분 그가 개발한 2가지의 보강연외구조(補強煉瓦構造)의 기본적인 형식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가 복곡면(複曲面)볼트로서 그 예를 초기의 작품 중에서 찾는다면 몬테비데오(Montevideo)의 TEM공장(1960~1962년, 스판:43m)을 들 수 있다. 이후 살토(Salto)의 시토리코스 카푸토(Citoricos Caputo)社의 오랜지 집배(集配)공장(1977~1979년, 스판:50m)에서 잘

나타난다. 디에스떼는 이 구조시스템을 「가우시안(Gaussian)」이라고 불렀다. 많은 용도에 있어서, 또 이토록 긴 스판에 있어서는 내부의 높이와 볼륨을 실용적인 한도 내에서 얻어내자면 볼트 윗부분의 곡률은 작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단곡면(單曲面)에서는 이렇게 길고 낮은 볼트는 붕괴되고 만다. 디에스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아하면서 경제적인 해결책을 개발한 것이다.

디에스떼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볼트 형식은 마싸로(Massaro)의 농업화학공장(1976~1980년)에서 다양하고 드라마틱하게 사용된 「자립」 볼트이다. 이것은 횡단면이 카테나리 곡선(현수선)으로 프리스트레스가 가해진 볼트로서 장축 방향의 인장 굽힘 응력(tensile bending stress)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로서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볼트는 또한 긴 캔틸레버로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마싸로 농업화학공장의 메인 작업 공간은 각각 5개와 3개의 볼트가 종단부를 마주보고 배열되었다. 각 볼트의 크기는 상당하다. 횡방향의 스판은 12.7m, 종방향의 스판은 35m이며, 캔틸레버로 뽑아진 부분의 최대 길이는 16.5m에 달한다. 횡방향으로의 응력은



오랜지 집배(集配)공장(1977~1979년, 스판:50m)



농업화학공장(1976~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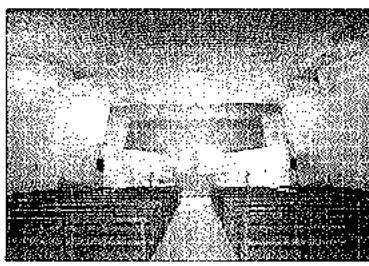
이웃에 붙은 볼트에 의해 맞물려 지지되고, 가장 외측의 볼트는 단부의 보와 경사진 기둥에 의해 가볍게 지탱되었다. 볼트의 측방(側方)에는 연속되는 지지구조가 없으며, 단부에도 텐퍼나(tympana)가 필요 없다. 9,000m²의 내부공간은 군데군데 배치된 24개의 기둥으로 지지되었다. 마싸로 농업화학공장의 입구 부분은 지립볼트의 드라마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메인볼트의 밑에는 동일한 횡방향의 스패을 갖는 3개의 볼트가 1열당 4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되어 부분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배치되었다. 형태와 빛의 드라마, 그리고 눈에 띠게 얇은 볼트의 두께는 누구의 눈에도 확실한 것이다. 벽돌처럼 가볍다라는 말은 디에스떼의 작품을 해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실용상의 목적 이 충족되어 있으면서도 억지스런 부분이 있거나 장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로프선, 디테일, 색채, 텍스처, 공간과 빛, 그리고 드라마성에 의해 훌륭한 환경의 질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질은 상호간에, 그리고 구조나 건설의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디에스떼가 「코스믹 이코노미(cosmic economy)」라 한 것처럼 그

자신의 깊은 고찰에 의한 것이다. 디에스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록 건축을 창조하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창고를 건설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내 자신이 건축을 창조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의 엔지니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에스떼의 「코스믹 이코노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세계의 깊은 질서」가 만약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과거의 위대한 작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만든 건축을 속에서도 선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 대한 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디에스떼는 1936년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의 공과국대학 공학부에 입학하여 1943년 졸업하였다. 1954년 자기 자신의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公共事業省의 여러 일에 참여하고 국제적인 건설회사의 엔지니어로서, 혹은 대학의 교관으로서 학생들의 연수여행을 인솔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작은 나라이다. 국민의 교육수준은 높으나 지원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戰後의 세월은 편안한 것이 못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전략에 기댈 수밖에 없다. 디에스떼는 벽돌에 대한 노스텔지어적인 감상에서 철근콘크리트의 디자인에 대해 자신이 배운 것을 기초로 보강 세라믹구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세라믹 재료의 생산은 우루과이에 적합한 산업이었다. 이제까지 보이온 바와 같이 디에스떼는 이들 소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구조적인 시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어떻게 하여 빨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설할 것인지를 생각해 자기 자신의 건설회사를 통해 실현해왔다. 디에스떼의 볼트에 의해 덮여진 거대한 공간은 그것들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설, 기술, 그리고 건축의 통합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시 말해 실천적으로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표작들로는 아틀란티다교회(1960년) 디에스테 자택(1963년), 드라스노의 교회(1971년), 시토리코스 키푸토의 오렌지 집배공장(1972년), 마싸로 농업화학공장(1980년), 살토의 장거리버스 터미널(1980년) 등이 있다.



아틀란티다교회(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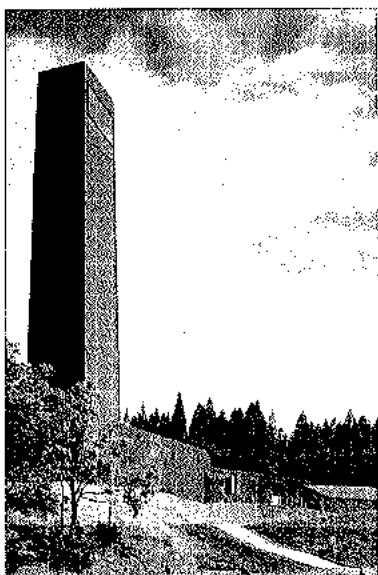
디에스테 자택(1963년)

이번 호에서는
새로이 완공된
작품들로 「토
키(朱鷺)メッセ
(Messe)」, 「국
립 나가사키
원폭사상자추
모 평화기념
관」 등과 「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
2003」에서 선보인 작품들을 소개하였
다.



특히 「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
2003」에 관련된 건축물로 많은 주연이
활약되었는데, 트리엔날레를 통해 만들
어진 건축·랜드스케이프 작품들 중 「越
後松之山 森의 학교 코로로」와 「마쓰다
이 설국농경문화촌(雪國農耕文化村)센
터」는 건축가의 설명과 함께 자세히 소
개하였다. 이중 「마쓰다이 설국농경문화
촌(雪國農耕文化村)센터」는 MVRDV의
설계에 의해 일본에 세워진 최초의 건물
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 2003」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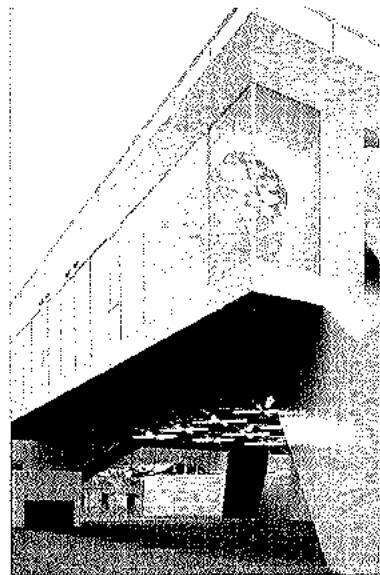


越後松之山 森의 학교 코로로

마쓰다이 설국농경문화촌(雪國農耕文化 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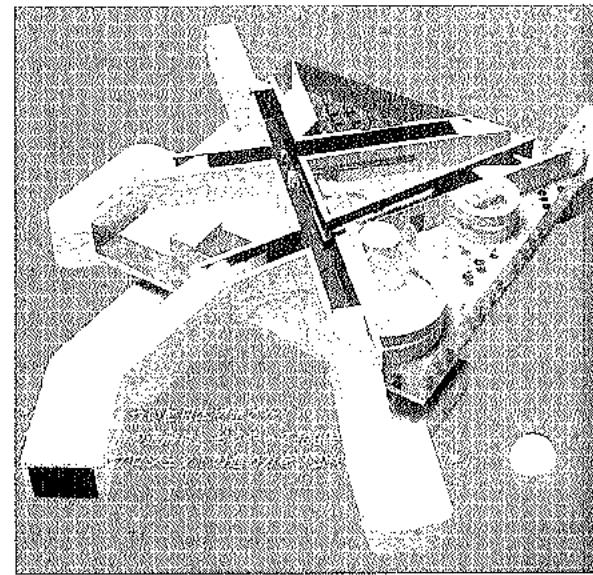
「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 2003」는 금
년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新潟縣十
日町市, 川西町, 津南町, 中里村, 松代町,
松之山町의 6개 市町村에 걸쳐 개최되
었다. 아트 이벤트로서의 인식이 높지만
국내외의 건축가들도 많은 수가 참여하
여 건축작품이나 항구(恒久)전시로서의
사이트 스페시피한 작품을 만들어내었
다. 신건축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건축·랜드스케이프의 작품
들을 모아 소개하였다.

마쓰다이 설국농경문화촌센터는 대지의
예술제인 「越後妻有 아트 트리엔날레
2003」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는
MVRDV의 설계로 일본에 세워진 최초
의 건물이기도 하다. 설계에 있어서 먼저
고려된 것은 멀리서 온 방문객과 지
역의 주민 모두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프
로젝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도시에
서 온 방문객의 기호를 만족시켜야 할뿐
더러 눈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농경
문화촌센터의 개념은 매우 명쾌하다. 먼저
설국(雪國)이기에 1개 층을 들어 올
리고, 들어올려진 박스 모양의 미스는 박
스를 관통한 통로에 의해 지지되어 1층
부분에는 거대한 무주공간을 만들어 냈



마쓰다이 설국농경문화촌(雪國農耕文化村)센터

다. 또한 관통한 통로가 박스 안의 공간
을 분할하여 분할된 공간들은 각각 전시
공간이나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
용된다. 또한 지금 그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바꿔 끌어 넣음으로서 건
축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가 되도록
하였다. 「마쓰다이 설국농경문화촌센터」
의 경우 도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붕
이 덮어진 옥외공간을 도입한 점이라 하
겠다. 따라서 이 건물은 도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구조적이다. 이러한 수법
은 MVRDV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계
속 실천해 오던 방식이었다. 이번 프로
젝트에서는 그다지 크기가 크지 않았으
므로, 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넓
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구조적 일관성
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MVRDV측은 밝
혔다. (번역 : 강상훈)



마쓰다이 설국농경문화촌(雪國農耕文化村)센터

Architectural Review

2003년 6월

고온기후지역
의 건축물을
특집으로 다룬
고 있는 이번
호에는 그 독
창적인 예로
Auer +
Weber의 칠
레 Cerro Paranal ESO 호텔과 Rafael
Moneo의 스페인 Navarre 외인 양조장
을 소개하고 있다.



■ Design Review

Acconi Studio의 오스트리아 Graz 인
공 섬
2003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된 오스트리
아 Graz시의 시설물로서, 도시의 중심
을 가로지르는 Mur강 위에 이 구조물을
띄웠다. 강의 만조에 따라 움직이는 구
조물은 거대한 부교위에 세워진 것으로,
형태상 도넛모양의 테라스 안에 작은 돔
이 겹쳐져 있어 음양, 솔리드와 보이드,
볼록과 오목함의 두 요소가 하나로 합쳐
진다. 유리와 스테인리스스틸 매우 외피

는 반투명한 막을 형성하며, 이는 물의
반사와 밤의 화려한 조명에 따라 시시각
각 다른 표면을 연출한다. 오픈된 테라
스는 가장자리에 야외 좌석을 마련하여
물위에 떠있는 작은 광장이 되는 동시에
이 장소는 새로운 퍼포먼스의 장소로서
도시 재개발의 장기적 계획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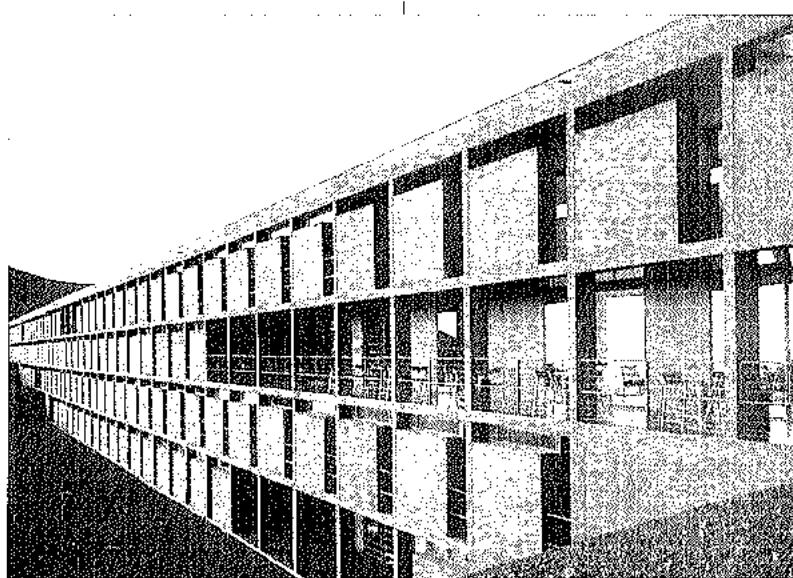
■ 고온기후지방의 건축

극서의 기후는 생태학적으로 적합하도
록 건축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호
에 소개되는 건축은 고온의 기후에 의
해 어떻게 적응하고 형태에 영향을 받
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간이 살 수 없
는 가장 건조한 지역인 칠레 Atacama
사막의 고온지방에서부터 싱가포르의
열대기후에서 선택한 모더니즘적인 건
축어휘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
법을 소개한다. 고온기후지방 건축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중요시되고 주목
을 받는 이유는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외벽을 갖고 있는 추운 지방의 건축과
는 달리 보다 따뜻한 지방의 건축에서는
는 개방적이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를 걸러서 받아들이는 장치들을 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과 주
환경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하며, 기
능적이거나 시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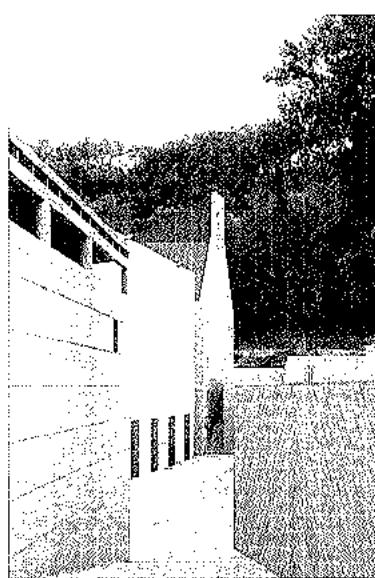
연과 접촉하도록 한다.

▶ Auer + Weber의 칠레 Cerro Paranal ESO 호텔

칠레의 가장 덥고 건조한 아티카마 사막
지역에 자리잡은 이 호텔은 수평적으로
대지에 묻힌 형상을 함으로써 주위 환경
과 어우러지고 있다. 입면을 구성하고 있
는 모듈화된 콘크리트 스크린들은 이 지
역의 재료와 노동력을 통해 제작되었으
며, 내진 구조를 취하고 있어 구조적 안
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평면은 전체적으
로 그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내부
에는 지오데식 드로인 실내 정원이
위치해있다. 건물로의 진입이나 실내 정
원으로 향하는 길은 램프로 계획되어 있
어 시막 지역이라는 컨테스트에 형태적
으로 부합되고 있다. 고급스러운 리조트
호텔의 분위기와는 달리 건물은 매우 경
제적으로 지어졌다. 시공법과 재료는 매
운 단순하고 내구성 있는 방법이 선택되
었으며 적은 비용으로 유지되도록 설계
되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시공은 지역
의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건조
한 환경에 적합한 것이었다. 또한 작은
베이의 모듈을 유통적으로 연결하여 내
진 성능을 향상시켰다. 강한 햇빛에 의해
형성되는 입면의 반복되는 음영은 단일
건물로서의 덩어리감을 더욱 강조하며,
형태적인 절제미는 시막 한가운데 서있



칠레 Cerro Paranal ESO 호텔



스페인 Navarre 외인 양조장

는 건축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Mok Wei Wei, William Lim Associates의 싱가폴 집합주택
싱가포르의 가장 큰 번화가인 Orchard Road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Nassim Hill은 1951년 모던한 집합주택 단지가 처음 소개된 곳으로, 약간 높은 지면으로 인해 시원한 열대풍의 헤택을 받는 주거지역이다. 고밀도 개발을 위해 고층으로 짓는 대지의 주변으로 12m~16m 깊이의 건물마스를 배치하였다. 단 위주거를 종방향으로 틈을 두고 배치함으로써, 좁은 건물사이의 틈으로 공기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각 주호의 거실은 수 영장과 자쿠지가 조성된 내부 정원을 향하며, 내부 정원을 향하는 입면은 투명한 면으로 반대면은 다소 솔리드한 면으로 구성된다. 백색의 회백과 검정색의 스틸 창호, 그리고 스텐인리스스틸의 브리즈 솔레이유는 싱가포르의 열대기후에 적합한 건축적 어휘의 도색에서 재해석되어 모더니스트의 섬세한 감수성을 반영한다. 대지의 주변을 건물로 배치하는 계획에서 대지 모퉁이 부분은 주호의 시각적 노출이나 환기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Mok은 단순히 대지의 요각부분에 주호를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비워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대지 주변의 무성한 수목이 이루는 경치를 위한 시각적 통로가 된다.

▶ Rafael Moneo의 스페인 Navarre 와인 양조장

Moneo가 이 건물의 설계를 의뢰 받았을 때, 농경지와 기존의 역사적 건물의 연관성이 없는 배치와 직면하였다. 세 개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건물로는 현재 작업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Commander's house와 교회, 그리고 게스트 투숙으로 쓰이고 있는 Manor house로서 마치 땅에 흩어져 있는 체스 조각과 같이 질서 없이 서 있었다. 신축되는 와인 양조장과 오피스 창고의 선형 마스는 위의 세 건물을 둘러싸며, 종정에는 포도나무의 기하학적 그리드가

독립적으로 놓여져있던 건물군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신축건물의 배치에서는 와인 양조과정이 기능적으로 표현된다. 수확된 포도는 동쪽의 열주로 둘러싸인 마당에서 수집되어 선별된다. 마당을 덮은 캐노피는 작업장의 그늘을 만들 어주는 동시에 양조장의 입구로서의 사용기능을 한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와인 탱크가 오른쪽 윙에 위치하며 숙성고가 가운데 위치하여 병에 와인을 채워넣는 공장과 와인탱크 두 마스의 힌지 역할을 한다.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와인 저장고로서 지붕은 오크와 스테인리스스틸 트러스에 의해 지지된다. 프렌치 오크로 만들어진 와인통들은 트러스에 의해 들어올려진 보행통로를 통해서 검사가 이뤄진다. 기능적이고 직설적인 여타의 실들과는 달리 와인 시음실은 극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목재 미감 벽에 작은 벽난로를 설치하고 와인 시음 등에 필요한 개수대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미치 성스러운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벽의 한 면은 와인 양조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을 설치하였다.

그밖에 ▶Bligh Voller Nield with Troppo Architects(QLD)의 오스트레일리아 Queensland 군대 막사, ▶Predock_Frane Architects의 미국 Hot Springs 불교 명상원 등이 소개되었다.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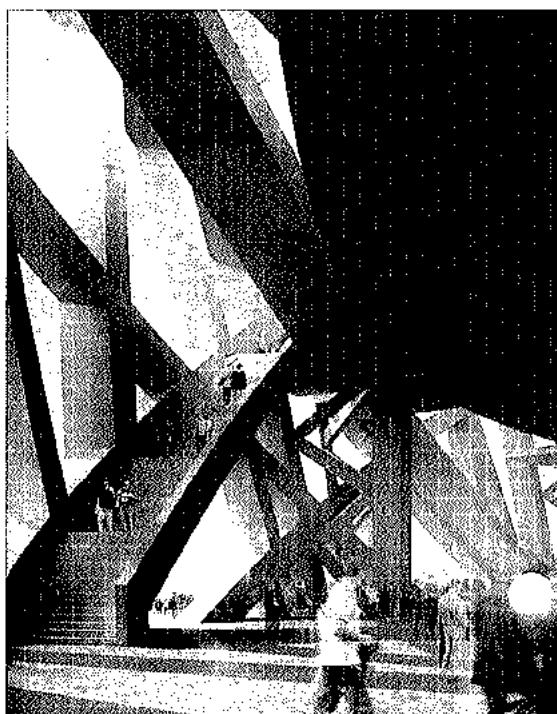
2003년 6월

최근 작품으로는 Herzog & de Meuron의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Sauerbruch Hutton의 독일 Biberach 제약회사 부속동 등이 소개되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디렉터인 Francesco Bonami로부터 그의 예술 철학을 들어보았다.



■ 근작소개

▶ Herzog & de Meuron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지금까지의 스타디움 건축은 보통 거대 건축의 구조적 특성이 강조된 형태 내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사용될 아스타디움은 이러한 기술 본위의 형태에



2008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

서 완전히 벗어나는 형태를 추구했다. Herzog & De Meuron이 스스로 새롭지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땅으로부터 솟아난 구조 띠들이 자유롭게 얹혀 스타디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구조 띠 내부로는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갖춰진 훌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통해 총 3개층으로 이루어진 객석으로 이동하게 된다. 유동적인 지붕 구조는 우천 등의 기후 조건에 따라 스타디움을 실내화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높인다. 구조적 형태는 구조물과 건축 입면의 분리라는 기준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관중과 트랙, 필드를 배경이 아닌 주요 요소로 만들면서 사람이 건축 그 자체가 되도록 의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막구조가 사용됐던 Otto Frei의 원형 올림픽 경기장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올림픽 건축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 Sauerbruch Hutton의 독일 Biberach 제약회사 부속동
Sauerbruch Hutton는 지속적으로 건축물에 화려한 색을 도입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의 과학 캠퍼스에서 기존 건물에 증축된 이 건물 역시 색의 자유로운 구성이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입면은 두 개의 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건물 외벽 밖으로 유리 패널의 커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이 패널

커는 다양한 색으로 구성됨과 더불어 회전축을 통해 열리기도 함으로써 건물에 매우 다양한 표정을 선사하고 있는데, 비단 이러한 장식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가능성은 갖추고 있기도 하며, 이중 커를 통해 태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내부의 거대한 아트리움은 기존 건물과 증축동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있다.

▶ 그 외에 Machado and Silvetti의 미국 보스턴 공공 도서관이 소개되어 있다.

■ 2003 베니스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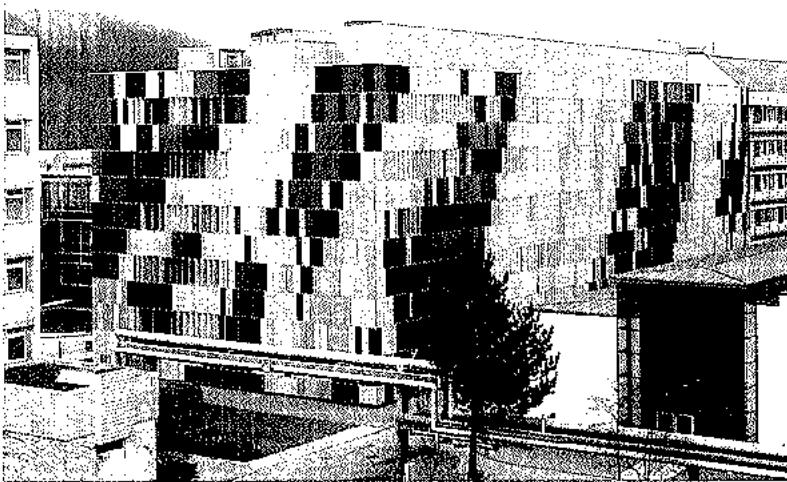
베니스 비엔날레가 50주년을 맞았다. 100년 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만한 예술 행사가 없었으며, 누드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스캔들을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없이 많은 예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난폭하고 잔인한 시각적 묘사들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비엔날레의 디렉터 Francesco Bonami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다른 행사들로부터 차별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Massimiliano Kuksas와 Deyan Sudjic이 이끌었던 지난 두 차례의 건축 비엔날레는 미디어나 고객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었는데, 이는 전시회가 동시대적인 건축 상상력과 유토피아적인 시각으로 충만해있기 때문이었다.

Bonami는 성공적인 비엔날레를 위해 일단 거대한 주요 전시회 체제를 파기하고 이를 다양한 소규모의 전시회들로 치환시킴으로써 예술 부문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직접 모든 과정을 통솔하기보다는 재능 있는 큐레이터들을 발굴하고 기용하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문들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이들을 비평가가 아닌 예술가의 시점에서 하나의 시각으로 엮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예술과 예술 제도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 Lillo Mangano의 핀란드 가구 컬렉션, ▶ 브라질의 형제 가구 디자이너 Fernando와 Humberto Campana의 작품 세계 등이 소개되어 있다.

(번역 : 최원준)



독일 Biberach 제약회사 부속동